

출애굽기 이야기

옛 언약 백성의

옛 출애굽기

The Old Exodus of the Old Testament People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겉표지 그림 설명 - 284쪽

A Story of Exodus
The Old Exodus
of the Old Testament People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7, 2018
20-10 Beonyeong 8-gil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815
Tel(042)841-9697

머리말: 새 언약 백성을 위한 새 땅과 새 나라 이야기

주께서 주신 결말”

성서는 ‘땅’과 ‘나라’이야기이다. 구약은 지상 가나안땅과 이스라엘 나라의 출범, 발전, 쇠퇴, 희망에 관한 것이고, 신약은 하늘 가나안땅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 발전, 완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땅과 나라들을 싸고 있던 주변국들의 이야기이다. 신약은 구약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해석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인류구원에 유일한 대안인가를 설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옛 언약 백성의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새 언약 백성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땅과 나라를 희망했던 아브라함은 아들도 낳지 못하던 떠돌이 유목민이었다. 그의 후손이 이집트에 들어가 작은 민족을 이루지만, 노예 신세가 되었다가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땅을 ‘침노’하기까지 최소한 430년(최장 645년)이 걸렸고, 절정기에 이르기까지 4백년이 더 걸렸다. 그러나 이 영화는 1백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눈을 세계로 향하고 경계를 넘어 도전(진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는 쪼개지고, 국력은 쇠하여져 도전(진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신생 제국들에게 차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떠돌이였고,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 땅이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하였다. 그래서 땅은 그들의 ‘희망’(Ha-Tikvah)이자 ‘다가올 세상’(Olam Ha-Ba)이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간절함과 이 땅을 지켜내고자 한 절박함의 산물이 율법준수의 엄격함이었고 배타적 선민사상이었다. 가나안땅이 보존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충

실히 지켜내느냐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배타적 영토주의와 선민사상은 민족주의를 낳았고, 민족주의는 세계를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들었으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제사장직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았어야 했다. 야훼를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알지 말았어야 했다. 가나안땅이 그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았어야 했다.

유대인들은 땅을 얻고 난 때로부터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국시대 이전 사사시대 4백여 년간 피땀 흘리며 싸워야 했고, 땅을 빼앗기고 나서 6백여 년을 속주민의 처지로 살아야 했으며, 1948년 건국 때까지 무려 1878년간 땅과 나라가 없는 떠돌이와 노예로 살아야 했다. 그렇다고 비극만이 유대인의 모든 것은 아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행동하였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아삼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시 79:13)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앗수르의 살만에셀이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로 선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로 인해서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망한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주전 609년부터 주후 1846년까지 2455년간 6미터 깊이의 토사 속에 묻혀 지냈지만, 이스라엘은 비슷한 시기에 망하고서도 무려 2534년 만인 1948년에 건국에 성공하여 작지만 막강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 하나님을 주인과 목자로 섬긴 이스라엘과 백성의 태양으로 군림한 앗수르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약 5:11)은 이토록 극명하게 달랐다.

이집트, 앗수르, 바벨론의 결말

조병호 목사는 <성경과 5대제국>에서 고대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이었던 이집트 경영의 키워드가 ‘자연,’ 즉 치수와 농업의 진흥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 제국이 만든 생산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1960년대에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에서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으로써 관리와 보존의 대상임을 강조하면서 출애굽사건을 자연의 마력, 인간의 권력, 유한한 가치를 절대시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사건이라고 하였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면, 유대인의 조상들을 노예로 부리며 문명의 피라미드를 쌓았던 이집트가 지금은 오히려 한때 자신들이 노예로 부렸던 자들의 후예들에게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에서 수모를 겪고 있다.

조병호 목사는 이집트를 무너뜨린 앗수르 경영의 키워드가 ‘경계’였다고 말한다. 앗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려 혼혈족들을 만들어 각 민족의 독특성을 말살함으로써 반란의 근원을 도려내 제국의 영화를 누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은 제국의 말발굽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복음)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의 연설에서 말하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17:26-28)고 하였다. 앗수르가 취했던 정책에 반대되는 말씀이다. 비록 민족 색깔 언어 경계는 달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는 군권에 짓밟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네트워크에 연결돼야할 대상이라고 하였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아테네가 고집한 ‘혈통’이 로마가 강조한 ‘정신’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민족주의 바벨탑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복음’으로 ‘경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정신을 통일시킨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였다.

조병호 목사는 앗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경영의 키워드가 이데올로기 ‘교육’이었다고 말한다.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정책은 유다에서 끌고 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영재들을 한곳에 모아 교육시킴으로써 세계지배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파르타식 교육과 북한의 주체사상 및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이미 실패한 것에서 보듯이, 또 칸트가 말했듯이,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교육이 아닌, 인간을 지배와 통치수단으로 삼는 교육은 반드시 패배한다. 또 유대인들의 율법교육은 약소민족이요 소수민족인 그들 자신을 배타적 선민사상과 민족주의로 묶는 데는 여전히 성공적이지만, 그로 인한 대가가 나라를 잃고 2천5백년이 넘는 세월을 떠돌이와 노예로 살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주께서 주신 결말”은 명백하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성별 빈부귀천 언어경계에 관계없이 값없이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류를 그리스도의 나라의 평등한 시민과 형제자매로 삼으신다는 기독교 복음에 복을 주셨다. 지난 2천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스도의 나라의 결말

조병호 목사는 가장 너른 영토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경영의 키워드가 ‘숫자’였다고 말한다. 다리오가 그리스 원정에 30-40만의 대군을 동원한 것이나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70만 대군을 동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알렉산더가 이끈 4만의 군사 앞에서 붕괴되었다. 세계대전을 겪었던 세대들이 거의 유명을 달리한 지금 우리 주변의 열강들은 패권주의경쟁에 이미 돌입하였다. 군비증강과 자본지배로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독식하려는 지배구조는 반드시 망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경영, 약자를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경영,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고귀한 권리이다.

조병호 목사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경영의 키워드가 ‘융합’이었다고 말한다.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으로

제국을 영속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앓수르가 강제 결혼방식으로 민족경계를 허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헬라는 세계동포주의로 민족경계를 해체시키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힘써 세우려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민족성별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나라,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평등한 나라, 개체가 거대한 조직의 톱니바퀴나 부품으로 천대받는 나라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나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데나리온(주후 132-134년)
 전면에 월계관으로 머리를 묶은 황제의 옆얼굴을 새겼고, 그 둘레에 HADRIANVS AVGVSTVS(하드리아누스 아구스투스)라 썼다. 뒷면에 관용(용서와 자비)의 여신 클레멘치아가 오른 손에 헌주를 담은 접시(patera)를, 왼손에 홀을 쥐는 모습을 새겼고, 그 둘레에 CLEMENTIA AVGVSTI P P(관용의 황제, 집정관 3회, 국부)라고 새겼다.

조병호 목사는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정영의 키워드가 '관용'이었다고 말한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은 화폐를 만들 때, 앞면에는 자기의 옆얼굴을 새

기고, 뒷면에는 '관용'이라는 글자를 새기기를 좋아했다. 여기서 조병호 목사가 말하는 '관용'은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말한 '정신'의 공유와 상통하는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관용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신인 아가페사랑, 십자가사랑, 하나님사랑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로마제국을 갈릴리 어촌 출신의 예수님의 복음사상에 무너져 내리게 한 “주께서 주신 결말”에서 보듯이, 진실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답게 만들며, 안식과 행복을 주는 기독교복음이야말로 다시금 조명을 받고 인정받아야할 인류의 유산이요 가치이다.

성서는 '땅'과 '나라'이야기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도 역대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땅의 '침노'(마 11:12)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그 땅은 이 지상의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땅이다. 하나님이란, 자연지배, 혈통통합, 이데올로기교육, 숫자의존, 문화통합, 정신공유에 의지하여 영원한 제국을 꾀한 나라들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반면에 지상에서의 삶을 최종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끊임없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 '장차올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도전(진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이다. 제국의 황제들이 신성을 찬탈하고, "짐(朕)의 나라"임을 주장한 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형제요 일군이다. 이에 감동하여 바울은 자기결정권이 없는 노예로서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섬겼다. 이 방식으로 출애굽기 이야기, 곧 옛 언약 백성의 옛 출애굽기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 이야기로 이어져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가나안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

본서가 출애굽기를 조금치라도 깊이 이해하고 은혜롭게 설교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참고로 이곳의 머리말은 <사도행전 이야기: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의 것과 동일하다.

2017년 5월 27일

조 동 호

차례

머리말: 새 언약 백성을 위한 새 땅과 새 나라 이야기 3

차례 9

1. 민족을 살린 산파의 믿음(출 1:1-22) 11
2. 모세의 역전의 삶(출 2:1-25) 17
3. 모세의 소명과 사명(출 3:1-22) 22
4. 모세의 이집트 귀환(출 4:1-31) 28
5. 모세가 난관을 헤쳐나간 방법(출 5:1-23) 32
6.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출 6:1-30) 37
7. 피 재앙(출 7:1-25) 42
8. 개구리, 이, 파리 재앙(출 8:1-32) 47
9. 가축, 악성종기, 우박 재앙(출 9:1-35) 52
10. 메뚜기와 흑암재앙(출 10:1-29) 57
11.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출 11:1-10) 62
12. 유월절 예식과 마지막 재앙(출 12:1-51) 67
13. 무교절과 처음 난 것의 구별(출 13:1-22) 72
14.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가다(출 14:1-31) 77
15.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의 노래(출 15:1-27) 82
16. 만나와 메추라기(출 16:1-36) 88
17. 광야는 믿음을 키우는 훈련장소(출 17:1-16) 93
18. 광야 연단과 원시 국가체제(1)(출 18:1-12) 98
19. 광야 연단과 원시 국가체제(2)(출 18:13-27) 103
20.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출 19:1-25) 108
21. 십계명(1)(출 20:1-17) 113
22. 십계명(2)(출 20:1-11) 118
23. 십계명(3)(출 20:12-26) 123
24. 이스라엘의 율법, 노예법(출 21:1-11) 128

25. 이스라엘 율법, 살인(출 21:12-17)	133
26. 이스라엘의 율법, 피해보상(출 21:18-36)	138
27. 이스라엘의 율법, 절도, 담보, 간음 등에 관한 법(출 22:1-31)	143
28. 이스라엘의 율법, 재판, 안식, 절기 등에 관한 법(출 23:1-33)	148
29. 시내산 언약식(출 24:1-18)	153
30. 성막(출 25:1-9)	158
31. 법궤, 떡상, 등잔대(출 25:10-40)	163
32. 성막의 구조(출 26:1-37)	169
33. 성막의 뼈대(출 26:15-30)	174
34. 성막의 양장(출 26:1-14)	179
35. 성막의 성소(출 26:31-37)	184
36. 번제단과 성막 뜰(출 27:1-21)	189
37. 대제사장의 예복(출 28:1-43)	194
38. 제사의 종류와 방법(출 29:1-37)	199
39. 하나님임재로써의 성막(출 29:38-46)	205
40. 분향단과 기도(출 30:1-10)	211
41. 속전과 물두멍(출 30:11-21)	216
42. 관유와 향 제작에 관한 규례(출 30:22-38)	222
43. 성막건축자와 안식일 규례(출 31:1-18)	227
44.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를 중죄로 다룬 이유(출 31:12-17)	233
45. 보이는 신(출 32:1-35)	238
46. 하나님의 동행거부와 모세의 간구(출 33:1-23)	243
47. 야훼 하나님의 성품(출 34:1-35)	248
48. 성막건축을 위한 백성의 헌물(출 35:1-35)	253
49. 성막건축(출 36:1-38)	258
50. 성막 기물 제작(37:1-29)	263
51. 성막 뜰 기구 제작(출 38:1-31)	268
52.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출 39:1-43)	273
53. 성막봉헌식(출 40:1-38)	279

1. 민족을 살린 산파의 믿음(출 1:1-22)



시리아와 중이집트까지 지배했던 히크소스(Hyksos, 1750-1580 BC)를 이집트의 바로 아흐모세 1세가 축출하는 모습의 벽화(1550-30 BC). 유대인 역사가 모세투스는 히크소스와 히브리인을 동일민족으로 간주하였다. 보여주는 것 출애굽기 사건이 이 히크소스의 축출에서 연유되었다는 주장들이 많다.

출애굽기 1장 1-5절은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을 상기시켜 창세기가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6절은

이들 주인공들이 애굽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또 7절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압축해서 말해 주고 있다.

창세기가 족장중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술했다면, 출애굽기는 선민중심, 또는 민족중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중심의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의 핵심이라면, 야곱의 열두 아들로 시작된 열 두 부족들의 형성과 또 이들 부족들의 연합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중심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의 핵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 개인에서 출발하여 가족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민족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장차 온 인류에로 확대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개인의 야훼신앙이 가족과 부족의 신앙으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라는 독특한 민족 또는

국가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점차 확대되고 발전되어 기독교라는 전 인류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주후 392년부터는 전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비전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집트 멤피스에서 출토된 그리스 로마시대의 켈족(히브리인) 두상(테라코타, 런던 소재 Petrie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 영국의 법의학자 리처드 네브 전 맨체스터 대학 교수는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3개의 켈족 두개골에 컴퓨터 단층촬영과 디지털 3D기법을 활용해 두상을 재현해 본 결과 이들 켈족은 달걀색 눈에 짙은 곰솔머리와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존하는 석조 부조들과 프레스코 벽화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출애굽기 1장 8-14절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급증하게 되자, 이를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또 이를 시키고 두려워하는 무리로부터 탄압을 당하는 이중적인 면을 보게 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영적인 싸움인지도 모른다. 이런 싸움에 직면하

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승리에서 보듯이 이 싸움의 결국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의 승리로 결판이 나있기 때문이다. 잠시 잠깐의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 또한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될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몸

을 낮춰 불필요한 오해나 고난을 겪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1장 15-2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적인 증가를 막기 위한 가혹한 노동 착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번성하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더욱 악랄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악마의 속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바로는 중노동을 통한 출산억제정책이 실패하자, 산파를 통한 이스라엘 신생 남아들의 살해를 꾀한 것이다(15-16절). 그러나 그 계획마저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산파들의 불복종으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가자(17-21절), 바로는 애굽 전역에 걸친 공개적이고도 무자비한 히브리인 신생 남아 살육정책을 펼친다. 이 같이 악랄한 바로의 학대정치 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좌절하고 낙담하며 고통 중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으며, 오직 한 가닥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만 기대할 뿐이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인도자를 세우셨다. 이 분이 그 위대한 모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아니한 것처럼,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멀지 않다는 사실이다. 고난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도 놀랍도록 큰 법이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이다. 그들은 하늘을 찌르는 준엄한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 신생 남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줬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후손이 끊어지는 민족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으며, 그 산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크게 복을 받을 수 있었다.

1900년대 전반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받을 때 유관순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한민족의 자존심을 높여 놓은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



다. 그 때문에 십브라와 부아인 그들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남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십브라와 부아는 히브리인 산파들을 통솔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이 칭송받을만한 일이었으며, 본받을만한 일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한양심을 소유했다.

히브리인 산파 십브라(Shiphrah)와 부아(Puah)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옳은 판단을 했다. 그들은 정치권에 아부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이다.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인 산파들의 이야기는 기독교윤리학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국가의 준엄한 명령을 어겼고, 바로를 속였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가(可)한가라는 것이다. 이 히브리인 산파들이 옳았는가, 아니면 크게 잘못했는가를 놓고 윤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공리주의자들이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떠했든지 상관 없다는 식이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인 산파들의 거짓말과 행동은 목적이 좋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1,800만 명을 학살한 스탈린의 행위나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의 행위들은 아무리 목적이 좋았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규범이나 법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잣대라고 보는 상황주의자들이다. 본래적으로 선한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한 행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선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인 산파들의 거짓말과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끔찍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안락사나 동반자살과 같은 것이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법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주의자들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인 셈이다. 이런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인 산파들을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악의를 품고 있는 살인자나 잔악한 박해자나 적군에게조차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면, 무고한 생명의 목숨들이 처참하게 아침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상충적 절대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은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덜 나쁜 쪽의 행동을 하되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부득이한 선택이 과연 죄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등적 절대주의라는 것이 있다. 높은 차원의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하면, 낮은 차원의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무란 것이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낮은 차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차등적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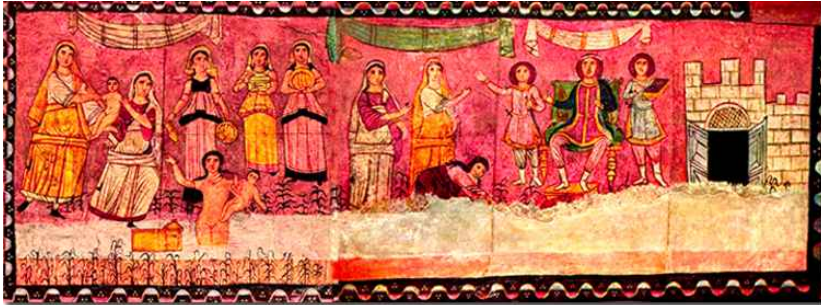
대주의에 입장에서 볼 때, 히브리인 산파들의 행동은 보다 높은 차원의 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고, 20-21절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들의 집이 왕성케 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졌다고 했다.

이 차등적 절대주의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해준 사람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조카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변증서인 <상재상서>(上宰相書)를 작성한 정하상이다. 이 사람이 재상에게 적어 바친 <상재상서>에 다음과 같은 신앙이 고백되고 있다.

지위에는 높낮음이 있고 일에는 중하고 가벼운 것이 있으니 집안의 아버지가 가장 중하나 집안의 아버지보다 높은 이가 나라의 임금이요, 나라 안에서 임금이 가장 중하나 나라의 임금보다 더 높은 이는 천지의 큰 임금입니다. 집안의 아버지의 명을 듣고 나라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아니 하면 그 죄가 무겁습니다. 나라 임금의 명령을 듣고 천지대군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 죄는 더욱 커 비할 데가 없다. 그러므로 천주를 받들어 섬김이 임금의 명령을 일부러 여기려는 것이 아니요 부득이 한데서 오는 것인데 이것을 들어 부모와 임금을 업신여긴다 함이 옳은 말이 됩니까?

정하상의 이 고백에서 보듯이 나라의 임금보다 더 높은 천지의 큰 임금의 명령을 따른 것이 히브리인 산파들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옳은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남녀의 구별을 떠나서,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동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2. 모세의 역전의 삶(출 2:1-25)



어린 모세가 바르의 공주로부터 나일강에서 구출되는 장면
(주후 245년경, 두라 유로포스 회당의 벽화, 다마스쿠스 국립박물관)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파란만장한 역전의 삶을 그리고 있다. 노예의 가정에서 출생했고, 난지 석 달 만에 갈대상자에 넣어져 나일 강에 버려졌으며,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그녀에게 입양되고, 다시 생모에게 보내어져 양육을 받고, 취학연령이 되자 황실학교에 보내어져 귀족의 자녀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며 당대 최고의 학문을 터득하게 되고, 장성하여서는 애굽 군대의 장수가 되어 참전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꾀하는 장래가 총망한 인물이었다.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 따르면, 모세는 애굽을 침략한 에티오피아 군대를 무찔렀다고 한다.

그렇게 잘나가던 그가 어느 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도 노예들의 편을 들어 애굽 사람을 죽이고, 편들었던 노예들의 고발로 살인자로 쫓기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딸 부잣집에 데릴사위가 되어 당대 최고의 학문과 군사훈련을 받았던 모세가 애굽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게 된다. 비록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의 어깨에 놓여있다고 해도, 그가 그렇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한가롭게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는 하

늘을 찌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은 그렇게 무정하게 흘러갔던 것이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한다.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구원자를 조련하고 계셨던 것이다. 훈련 장소는 화려한 궁전도 아니었고, 귀족들의 자녀들과 천재들이 모인 황실 학교도 아니었고, 오히려 삭막하고 모래바람만이 드세게 부는 광야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것들은 말 못하는 양떼와 지팡이뿐이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 때 그가 받았던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은 일찍이 그가 황실에서 받았던 그 어떤 교육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고, 그를 성숙하고 겸손한 신앙인과 민족지도자로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말 못하는 양떼와 모래바람과 삭막한 광야가 그에게 가르친 교훈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그 어떤 영웅호걸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또 그가 쓰시는 자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모세를 입양한 바르의 공주 하트셉트수트(Hatshepsut) 1903년에 발굴되었으나 2007년에 가서야 하트셉트수트로 밝혀졌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건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였다. 그에게 광야 40년이란 긴 수행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살인은 단순한 살인 사건만은 아니다. 유모이자 친모인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의 역사와 신앙을 배운 모세였다. 학대당하는

동포에게 무한한 동정심을 느끼는 자가 확대하는 애굽인에게 견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렇더라도 그가 동족을 위해서 위협을 무릅쓴 행동을 한 것은 순간적인 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고, 늘 보아오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그의 행동은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오랫동안 고민한 것들 가운데는 애굽 황실의 부귀와 명예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다. 나이가 40세였으니까 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가족을 사랑했다면, 부귀나 명예를 버리기보다 더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처자를 버리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힘없고 나약한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은 무언가 그의 속에 위대한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이다. “애굽과 이스라엘,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것이 모세의 고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택한 것은 약한 자들, 학대당하고, 노역에 찌든 불쌍한 자기 동족이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점에 대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히 11:24-25)라고 적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모세의 우발적인 살인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그 자체가 그가 내린 위대한 신앙적 결단 때문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책망하신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왕상 18:21).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은 모세에게 신앙적 인격적 연단과 자기성찰의 시간들이었다. 애굽을 도망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르우엘의 딸들과 만난다. 그리고 그 만남을 계기로 르우엘(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목자로서의 삶을 영위한다. 비록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이긴 했지만, 대제국 애굽의 왕자라는 영화로운 지위를 일시에 버리고 일개 양치는 목자

로 전략한 모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갈등과 외로움은 그 누구도 쉽게 감내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련이 그에게 가져다 준 이익은 무엇이든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있다는 혈기방자한 자만심을 버리게 한 것이다. 자신의 힘만을 믿고 무작정 덤벼들던 결과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피신하여 모래바람과 친구삼아 살아가야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혈기 방자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40대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모세에게는 오히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일군이 되는 합격선에 도달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일컬어 믿음의 역설이라고 한다. 믿음의 역설이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아무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게 하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을 가능하게 이뤄주시는 것을 말한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뤄지는 것이다.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면 잘 해낼 것으로 생각했던 목회자의 자신감이 수년 이내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심정이 모세의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모세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믿음이 되살아난다면, 모세가 자신없어하고 앞장서기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역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성취된 것처럼, 개척목회도 그렇게 성취되리라 믿는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40년의 노역과 신음과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멀기만 하고 침묵의 시간은 길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그들은 1878년간을 기다려 국가를 창립했고, 그 사이에 그들은

1200만 명이나 희생되었다. 그들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품었던 이스라엘 국가 창립의 비전을 애굽에서 머문 최소 215년에서 최고 430년의 오랜 시련과 애굽을 탈출해서 보낸 광야에서의 40년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이를 수가 있었다. 그들은 애굽의 탈출을 일컬어 영광의 탈출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다에서 건진 사건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 바다를 건너게 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또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을 가까이 하고 있을 주전 605년부터 주전 586년 사이에 바벨론 제국의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모두가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짧게는 70년, 길게는 173년, 더 길게는 아예 그곳에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을 이어 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깨달았다. 깨달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깊이 뉘우치며 회개운동을 펼쳤고, 메시아운동을 펼쳤다. 그들의 이 불굴의 믿음은 그들을 결국 고국에 돌아가 무너진 국가를 일으켜 세우게 하였고, 그들이 제일 먼저 일으켜 세운 것이 성전이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는 시간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실을 안 유대인들은 몇 백 년이고 몇 천 년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한 힘이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역전의 역사이다.

3. 모세의 소명과 사명(출 3:1-22)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떨기나무 불꽃은 유대교회당에서 종종 법궤와 토라를 덮는 커버에 장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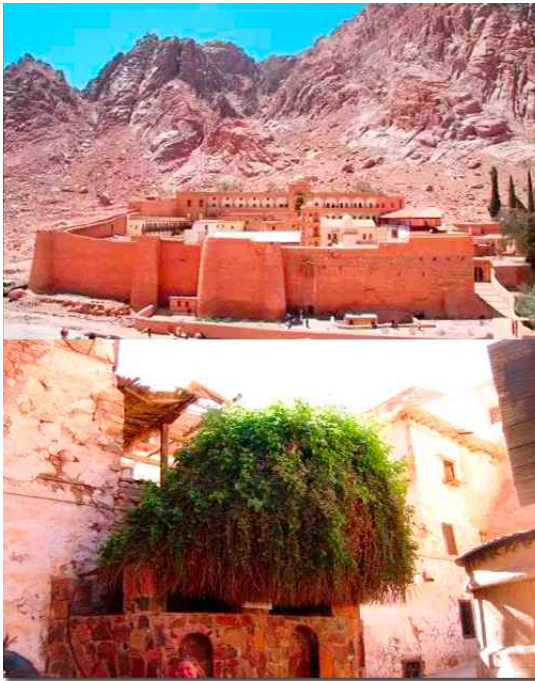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시내산은 ‘수풀 산’이라는 뜻이고 호렙산은 ‘건조한 산’이란 의미로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갖는다. 이 산은 시나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해발 2,291미터에 달하는 높은 산으로써 ‘예벨 무사’(Jebel Musa) 곧 ‘모세의 산’이라 불리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내산과 호렙산에 견해는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산을 부를 때는 ‘호렙’이라 하지만, 정상을 가리킬 때는 ‘시내’라고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산 정상에 있는 두 봉우리 중 하나는 ‘호렙’이고, 다른 하나는 ‘시내’라는 것이다. 셋째는 두 산이 같은 산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호렙’은 양떼를 몰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고, ‘시내’는 지형이 험악해서 노약자나 짐승의 떼가 올라갈 수 없는 곳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호렙’과 ‘시내’는 같은 산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아무튼 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으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과 사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 나무의

며,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띠고, 40년 전 도망 나온 애굽으로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후에는 이 산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토라, 곧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다(출 20:1-17). 그러니까 시내산 혹은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소명과 사명을 받은 곳이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언약식을 가졌던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으로 여겨진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 언약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해 없이 구약성서에 대한 이해도 없다.



이집트 모세산 기슭의 성가타리나 수도원(위)과 수도원에서 키우고 있는 가시덤불(sinai, 하).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내산 곧 호렙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에 있는 알-라오즈(Al Lawz) 산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이곳 산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핀 불꽃으로 나타나셨다.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눈여겨보게 된 것은 불꽃이 피어오르는데도 나무는 타지 않는 신기한 현상 때문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불꽃을 하나님의 계시라 부를 수 있다. 피조물은 인간이든 천사든 마귀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는 언제나 이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처럼 어떤 변신의 모습뿐이다.

그리고 이 변신의 모습은 얼마든지 그 모습이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그 어느 것도 참 하나님의 모습이 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한다. 이때의 계시는 예수라 불리던 한 인간의 모습이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곧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긍휼과 가르침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는 불꽃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본 것이고, 만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듣는 하나님, 곧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감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 듣는 하나님이란 점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꽃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최근 논쟁
홍해의 아카바만 좌측 무사산(Mt. Musa, 이집트령)이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알려진 산이고, 최근에는 아카바만 우측의 알라오르산
(Mt. Al-Lawz, 사우디아라비아령)이 시내산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전통적인 주장에 맞서고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면 어디나 다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의 신, 허물의 신, 가식의 신, 허영의 신, 불신의 신, 의심의 신, 패배의 신, 절망의 신, 좌절의 신, 벗어던져

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벗은 몸으로 서야하는 것이다.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모세가 신고 있던 썸들이 바로 죄악의 신, 허물의 신, 가식의 신, 허영의 신, 불신의 신, 의심의 신, 패배의 신, 절망의 신, 좌절의 신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도록 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러한 신들을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한다.

80년 세월을 무상한 인생살이와 패배의식에 지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때에 비로소 모세는 과거의 절망의 신을 벗어버리고, 희망의 새신으로 갈아신고, 새롭고 의미 있는 일에 뛰어들 수가 있었다.

야곱과 요셉이후 오랜 세월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결코 자기 백성을 잊고 지내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단련하시고 키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제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온 후 40년 동안을 말 못하는 짐승을 먹이는 목자로서 훈련을 쌓았다. 그가 무지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목자가 될 수 있었던 지도력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바로 이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을 먹인데서 나왔다고 본다. 비록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고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인고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경륜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이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영존하는 분이시요, 이전 세대에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오, 지금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본문 7-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다.

[7]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9]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재 하시어 모세를 부르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어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셨다. 본문 10-12절을 읽어보자.

[10]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자 모세는 13절에서 하나님께 이름은 묻는다. 그 물음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다. 본문 13-15절을 읽어보자.

[13]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 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신원하사 쯧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기를 원하셨다. 빈손으로 이끌어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애굽인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여 은금의 패물들과 의복을 지니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다. 본문 21-22절을 읽어보자.

[21]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와 경륜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금은패물과 의복까지 넉넉하게 지참하여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코 궁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큰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광야에서 고통스런 나날들이 지속된다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들을 쯧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여주실 것이다.

4. 모세의 애굽 귀환(출 4: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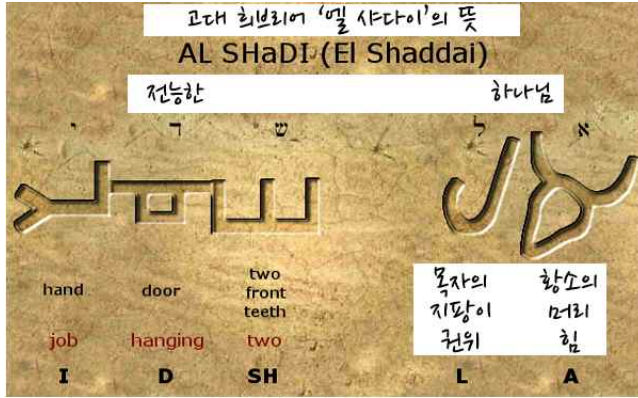
모세와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불꽃(Edward Knippers)

출애굽기 4장 1-17절은 모세가 자신의 무능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거둬 거절하는 인간적인 나약함과 무지를 보여주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표적을 보이시면서 까지 끝내는 당신의 일군으로 삼으시는 장면이다.

환자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자기 자신이 마치 의사인 것처럼 스스로 자기 병을 비관적으로 진단하는 일

이다. 의사의 처방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병은 못 고칠 병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은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극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모세는 40년 전 자신의 실패와 그동안 목동으로 살아온 자신의

무능함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부정과 절망에 쌓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실망치 않으시고, 그에게 소망을 심어주셨다. 세 가지 표적을 보여 주시며, 일러 주시고, 그래도 주저하는

모세에게 협력자로 아론을 붙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다. 그러자 모세의 마음에 소망의 불씨가 살아났다. 하나님은 그 증표로 지팡이를 이적의 도구로 지참하라고 일러주셨다. 이 처방은 확실했고 적절했다. 마침내 모세는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성훈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위로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

출애굽기 4장 1-17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부여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느끼는 절망과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덧입

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은 미약하고 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임하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승리자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4장 18-26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과 여러 가지 이적에 크게 고무 받은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고난당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채 위험과 불확실성에 내던지는 모세의 위대한 신앙적 결단을 살펴볼 수 있다.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위험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든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실한 미래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 없이 좀처럼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보살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온 가족을 모험에 내맡겨야 한다면 더더욱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당사자인 자신에게는 보람되고 뜻깊은 일일는지 몰라도, 그래서 얼마든지 고난을 감내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만일 가족이 그와 뜻을 달리한다면, 그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일단 결심을 마친 모세는 지체 없이 행동에 옮겼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했다.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결심이였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재차 여러 가지로 확신과 다짐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결심을 행동에 옮기기에 앞서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낸다. 또 가족과 함께 떠나는 모습에서 우리는 모세가 아내와 자녀들을 설득하는데도 성공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모세를 따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모세의 두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고, 아내인 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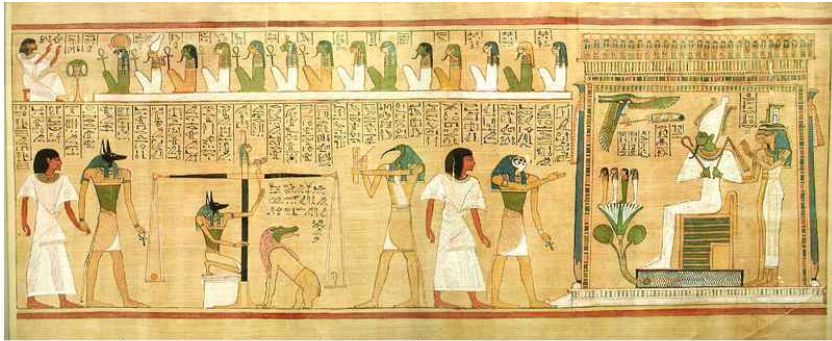
보라도 언약백성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신앙자세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고 미디안으로 돌려보내셨다(18:1-5). 그 결과 모세만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이처럼 온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기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힘썼던 고넬료의 가정(행 10:1-2)과 그리스보의 가정(행 18:8)은 온 가족이 헌신하는 가정의 귀감으로써 수십 세기를 걸쳐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출애굽기 4장 27-31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을 위해 홀로 애굽에 도착한 모세를 그의 형 아론과 장로들 및 온 백성이 환대하고 자기들의 지도자로 맞아들이는 장면이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빈 손, 빈 몸, 빈주먹으로 애굽을 향해 가던 모세는 앞으로 얼마나 더 험한 여정이 놓여 있을까를 염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염려와 두려움과는 반대로 그를 환대하는 장로들과 형 아론을 대기시켜놓고 계셨다. 외롭고 언변에 능치 못했던 모세가 구변이 뛰어난 형 아론을 만나게 된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또 지리멸렬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결속된 모습은 얼마나 모세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구속역사를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주도면밀함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달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시내산 기슭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에도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겔 48:35)로서 거기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여호와 이레’(창 22:14)로 예비하셨던 것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인 거기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다.

5. 모세가 난관을 헤쳐나간 방법(출 5:1-23)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받았을 때 자신없어하며 극구 사양하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애굽으로 달려간 모세는 용기를 내어 바로를 찾아갔다. 찾아가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지 않겠노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대제국의 바로는 노예즉속에 불과한 모세의 존재를 무시해 버린 것이다. 바로의 판단으로는 하잘것없는 히브리 노예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모세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바로는 과연 완악했다. 여기서 모세는 대제국 애굽의 바로의 벽에 막히게 되고 만다. 세상을 살다보면 때때로 이런 커다란 장벽에 막힐 때가 자주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모세의 정당한 요구가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찮은 것이고, 귀담아 들어줘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모세의 요구는 천지대군이신 하나님, 바로보다 높고 강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바로라는 거대한 벽은, 그 벽이 아무리 높고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여리고 성벽 처럼 결국 무너져 내릴 운명이란 점이다.

모세의 당당한 요구는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매우 위험하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설사 바로가 모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고, 자신보다 혹은 애굽의 여러 신(神)들보다 더 위대한 신(神)의 명령이었다는 점을 알았다 해도 바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거나 해방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공사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고, 더욱이 노예들인 주제에 자기들의 신(神)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기관 후네페르(Hunefer)의 '사자의 서' 파피루스(1275BC, British Museum)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맡는 아누비스(Anubis)가 사자(후네페르 자신)의 심정무게를 저울질한다. 파오기 머리를 가진 지혜와 학문, 마법의 신 제후티(Thoth)가 재판결과를 기록한다. 통과하지 못한 심장은 괴물 암무트(Ammut)에게 먹히게 되고, 통과한 자는 머의 머리를 가진 호루스(Horus)가 음부의 신 오시리스(Osiris)에게 인도 하면, 호루스의 네 아들이 연꽃 위에서 사자를 맞이한다. 이때부터 사자는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와 동일시 된다. 오시리스는 음부로 상징하는 물 위에 놓인 보좌에 앉아 있고 손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홀(지팡이)과 채찍을 들고 있다. 한쪽은 미라(죽음)를 상징하고, 녹색피부는 생명(부활)을 상징한다. 오시리스의 누이인 이시스(ISIS)와 네프티스(Nephthys)가 오시리스를 보좌하고 있다. 연꽃 위쪽의 흰 독수리는 신격화된 파라오의 왕권수호를 상징한다.

고 하니, 이것 또한 애굽사람들이 믿는 신들에 대한 모독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멸시해버린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그의 부친 투트모세 3세에 이어 왕이 된 아멘호텝 2세로 추정되는데 그는 선왕 못지않게 히브리인들에게 강경책을 썼던 것이다. 바로는 대제국 애굽의 신들, 곧 태양신 라(Ra)나 생명의 신 오시리스(Osiris)와 비교해서 히브리인들의 신은 하찮고 열등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로 생각했을 바로로서는 히브리 노예들의 신(神)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상당수의 현대인들이 바로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그들에게 신(神)이 있다면, 재물의 신 또는 부의 신일 것이고, 그들에게 정신이 있다면, 배금주의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아무튼 바로는 모세를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로

지 바로가 우려한 것은 지금까지 고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던 히브리인들이 도망할 경우 애굽 사회에 미칠 영향이었다. 그는 제국의 황제로서 애굽의 노동력을 생각할 때 도저히 모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앞길을 가로막는 넘기 힘든 장벽이었다. 이 벽에 막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렸다. 모세는 인간인 바로에게 매달리기보다는 천지대군이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것이 모세가 어려움을 헤쳐나간 유익한 방법이었다.

모세가 부딪힌 또 다른 장벽은 자신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가중된 고통을 겪는 것이었다. 모세의 요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엄청난 것이었다. 재료를 제공받고서도 하루에 끝내야 할 할당이 너무 가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재료를 스스로 구해서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니,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족이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는가? 율리우스 시저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 내버려뒀으면 그럭저럭 견딜만했을 텐데, 모세란 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시킨다고 하면서 바로를 만난 이후 오히려 더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으니, 모세를 향한 사람들의 원성은 대단했을 것이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야 했고, 민족정신으로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줘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여기에 모세의 고충이 있었다. 모세는 바로에게 무시를 당한데다가 자기를 믿고 따라줘야 할 백성들조차도 원망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21절에서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질타했다. 실로 사면초가였다. 이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이 큰 시련을 극

복했는가?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는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이 단순한 믿음의 행위가 쉬워보여도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나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다. 모세가 행한 기도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 특성이 드러난다.

첫째, 모세의 기도는 고난당하는 백성을 위한 사랑의 기도였다. 바로가 백성을 호되게 다룬 것은 모세와 백성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정략적인 술책이었다. 바로의 이 술책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원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바로의 이간책에 넘어간 히브리인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세의 기도는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22절)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모세가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왜곡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는 아린 아픔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동족의 고통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렸던 것이다.

둘째,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기도였다. 모세는 22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라고 탄원한다. 이 탄원은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평이 아니다. 오히려 이 탄원은 무력한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절규였던 것이다.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였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치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셋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시간, 곧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가 속히 임하도록 간구하는 기도였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23절)라고 한 기도는 강한 부정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항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 혹독한 확대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인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 시간과 공간의 감옥에 갇혀 사는 피조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복을 주신다.

누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한 박해와 시련을 기도로써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도에 전념하신 분으로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5장에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동일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난관에 봉착한 모세는 기도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모세를 염두에 둔 말이라고 본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자.

6. 인간의 약함과 용사 하나님의 강함(출 6:1-30)



렉미어 비지어른 고분 벽화의 흙벽돌 작업과정(투트모세 3세, 1481 ~ 1425BC)
Tomb of Rekhmire Vízier in Thebes(Luxor: tomb TT100)

출이굽 당시의 벽화로써 좌측 상단에 물을 길고 나르며 진흙을 이기는 과정, 좌측 하단에 밭에서 진흙을 파내어 나르는 과정, 우측에 흙벽돌을 굽고 나르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11절과 29절이 보여주듯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외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2절과 30절이 보여주듯이 이에 대한 모세의 고백은 “나는 입이 둔한 자” 곧 말더듬이라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언변이 시원치 않고, 몸으로 대했을 때 사람들을 압도할만한 카리스마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무능하고 보잘 것 없는 인간들을 통해서 큰일을 성취해 가신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도 있지만,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켜 가는 핵심은 오직 한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상의 일들에는 인간이 하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비상한 두뇌와 절출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과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겸손히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

의 사람이다. 출애굽기 6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굳이 그 부족함을 매워줄 재능 있는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도 다른 평범한 신앙인들과 마찬가지로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다. 출애굽기 6장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한 심리상태를 가진 모세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로를 찾아가 히브리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사흘 길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는 요구를 당당하게 했던 모세는 바로의 간교한 이간책으로 인해서 동족에게마저 배척을 당하는 입장에 서고 만다(1-9절; 5:21). 바로는 바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믿고 따라 줘야할 백성마저 심하게 배척을 하니, 모세의 입장은 난처해졌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으며 크게 낙심되었다. 이런 형편에서 모세는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아마도 모세는 이쯤해서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할 만큼 해봤고, 해봤더니 불가능하더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을 것이다. 어차피 자신이 원해서 택한 일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억지로 했던 일인 만큼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할 하나님이 아니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성공을 위한 통과 의례일 뿐이다. 모세는 포기할 망정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시면, 저 불쌍한 민중은 누가 구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여전한 말씀으로 모세에게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고 지시하신다. 2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명령하신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고 명령하신다. 29절에 기록된 ‘고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대변자가 되다,’ ‘선포하다,’ ‘정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모세가 바로에게 간청하거나 타협하는 낮은 위치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동등한 위치에서 혹은 그보다 우위에 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라

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자가 하나님의 대언자요, 지도자의 권위를 갖는다는 강한 의미도 갖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수행하기에는 함량미달이고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는 12절과 30절의 말씀이 모세의 진솔한 생각이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아랄 세파타임’인데 이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 ‘할레 받지 못한 입술’이란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에는 그의 입술이 변화되지 못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모세는 자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무력한 입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그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때는 그저 자신에게 그런 큰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었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그런 일관된 생각이 이미 증명되었지 않았느냐는 항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12절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 동족도 설득하지 못하는 우둔한 입술의 소유자인데, 하물며 어떻게 그 완악한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는 생각인 것이다. 여기에는 한번 시도를 해본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좌절감이 배여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미 앞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상식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위대한 자처럼 큰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상식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이 무능하다고해서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무능하지,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는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고 또 그 생각이 'No'일지라도, 모세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이 'Yes'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비록 모세가 말을 더듬는 자(faltering lips)일 뿐 아니라, 매사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종이었던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6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너자 이름, “야훼” 혹은 “야웨”라고 발음한다. 기록 당시 자음만 있었고 모음이 없었으며,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후 랍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과 뜻을 금하였다. 그 결과 정확한 발음이 잊혀졌고 그 대신에 ‘하-셀’, ‘아모나이’, ‘멜 사다이’, ‘여호와’ 등 다양하게 발음하였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곧잘 ‘용사’로 묘사된다. 용사 야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대자들이나 적국과 싸우신다. 그러나 때로는 무지몽매한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적대자들이나 적국의 용사로 싸우신다.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다. 따라서 출애굽기 6장에서 야훼 용사는 거짓 신 바로에게 행하실 큰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야훼이다”는 말씀을 네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하셨다.

야훼 용사는 “강한 손”과 “편팔”과 “강력한 행동” 곧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고 계신다. 야훼 용사는 모세에게 거짓 신 바로에게 당신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할 것을 지시하신다. 야훼 용사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도록 강제하겠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훼” 용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자기 나라와 땅도 없이 외국

에서 유랑하는 그들에게 가나안땅을 소유로 주어 자손대대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swore with uplifted hand)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야훼 용사는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처음부터 쭉 듣고 있었고(have heard), 쭉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have remembered)고 말씀하신다. 야훼 용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나는 야훼이다.” 이제 야훼 용사인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나는 야훼이다.” 이제 야훼 용사인 나는 바로의 압제에서 빼낸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야훼이다.” 모세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네게 이른 말들을 그대로 다 전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한다. 저는 언변이 없는 말더듬이입니다. 동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이집트의 살아있는 신인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동족도 설득시키지 못했는데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편,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가혹해진 노역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절망에 빠졌다. 그것이 다 모세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기는 고사하고,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였다.

다른 한편, 바로는 자기가 이집트 신의 아들이고 현시이자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부리는 패권자이므로 모세가 주장하는 야훼라는 신도 자기 발밑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포기라는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 패배를 모르시는 하나님은 거듭 반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나는 야훼이다.” 나는 바로가 거짓 신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겠다.

7. 피 재앙(출 7:1-25)

1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는 뜻은 바로의 신성 참칭에 대응차원에서 나온 하나님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신(人神) 대(對) 인신(人神)이 맞서게 되는 것이



이집트의 태양신 라(Ra)

라(Ra)는 매의 머리에 코브라에 감긴 태양을 이고 있다. 밤에는 지하세계(오시리스)에서 머물다가 아침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최고신으로 여겨졌다. 바로(파라오)는 라의 아들이자,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의 환생이라고 여겨졌으며, 매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코브라는 흰 독수리와 함께 고대 이집트 왕권의 상징이다. 상단의 눈은 호루스의 눈으로 불리는 코브라(Udjat)의 눈으로서 신격화된 파라오의 왕권을 보호하는 상징이다. 오른쪽 눈은 라(태양)를 상징하고, 왼쪽 눈은 달(토틸)을 상징한다.

므로 바로가 모세를 내려다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론이 대언자가 된다는 뜻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관계에서처럼, 모세는 제우스에, 아론은 응변의 신 헤르메스에 비교시키는 것이었다.

9절의 지팡이는 신권 혹은 왕권의 상징인 홀(scepter)로써 바로나 오시리스를 묘사한 그림들에서 볼 수 있다. 출애굽기 7장에서는 지팡이 대(對) 지팡이의 대결, 곧 신권 대 신권, 왕권 대 왕권이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세의 지팡이는 용사 야훼이신 하나님의

위임권위의 상징이었다. 그 때문에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의 대언자 아론과 바로의 박사들과 박수들이 지팡이로 대결한 것은 용사 야훼 대 거짓 신, 모세 대 바로의 권위의 대결이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가진 지팡이에 참신이요 용사이신 야훼의 신적 권위가 아무리 크게 부여되었다 해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는 개역개정판 출애굽기에서 총 26번, 본문 7장에서만 세 차례나 언급될 만큼 출애굽기의 핵심 강조점이고,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히브리인들은 물론이고, 아론과 모세조차도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는 율법(토라)대로 하지 않은데 있다는 것이 민수기의 설명이다. 이는 유대민족이 떠돌이와 노예로 살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이 불행과 위기에서 벗어나 가나안땅을 되찾고 안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함이다.

9-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의 박사들과 박수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졌고 뱀이 되었지만, 12절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을까? 그 많고 많은 것들 가운데 왜 하필 뱀이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가운데서 뱀이 가장 간교했다는 말씀에서처럼(창 3:1) 뱀은 고대 근동세계, 곧 메소포타미아에서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치유와 예언의 신으로 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의 뱀 곧 여신 우제트(Udjat)로 불린 코브라는 이집트 왕권의 수호신이었던데 있다. 야훼께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했고, 또 박수들이 만든 뱀을 집어삼켰다는 것은 모세에게 위임된 야훼 용사의 권위에 바로에게 위임된 거짓 신의 권위가 또 아론에게 위임된 신적 권위에 박사들과 박수들에게 위임된 거짓 신의 신적 권능이 필적할 수 없다는 것과 이 거짓 신의 신적 권능으로는 결단코 이집트



투탕카문(Tutankhmun)의 황금마스크

수염과 정수리 부분에 코브라 뱀(여신 우제트)과 흰 독수리 머리 뱀(우제트의 자매 네크베트)이 이집트 왕권의 수호신으로 장식되어 있다. 상체를 세운 코브라는 우라에우스(uraeus)라 불리며, 우제트의 상징이다. 이 황금마스크는 상체를 세운 코브라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의 환생이라고 여겨졌으며, 매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코브라는 흰 독수리와 함께 고대 이집트 왕권의 상징이었다. 특히 코브라의 눈은 호루스의 눈으로 불리며, 코브라 곧 여신 우제트의 눈으로써 신격화된 바로의 왕권을 보호하는 상징이었다. 오른쪽 눈은 라(태양)를 상징하고, 왼쪽

의 왕권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라(Ra)를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 라가 매의 머리에 코브라에 감긴 태양을 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라는 밤에는 오시리스로서 지하세계에 머물다가 아침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최고신으로 여겨졌다. 바

로는 라의 아들이자, 오시리스와 이시

눈은 달(토티)을 상징하였다.

투탕카문(Tutankhamun)의 황금마스크를 보면, 수염과 정수리 부분에 코브라 뱀(여신 우제트)과 흰 독수리 머리 뱀(우제트의 자매 네크베트)이 이집트 왕권의 수호신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체를 세운 코브라는 우라에우스(uraeus)라 불리며 우제트의 상징이다. 이 황금마스크는 상체를 세운 코브라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보건데 야훼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뱀이 거짓 신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뱀들을 삼켰다는 것은 바로의 신권이 거짓이고, 그의 왕권이 허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4절부터 그 유명한 열 가지 재앙이 기록되고 있다. 출애굽기



야훼와 이집트 신들과의 결전-피재앙
 좌: 크눔(Khnum)-나일강의 수호신(변영)
 우: 하피(Hapi)-나일강 범람(독토)의 신

7장에서는 첫 번째인 피 재앙이 기록되고 있다. 나일강은 고대문명의 발상지이자 생명의 젖줄이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오시리스(Osiris) 신이 부여해 준 생명수로 여겨졌다. 따라서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꿔놓은 것은 나일강 문명의 파멸을 상징하는 것이요,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과 나일강의 범람의 신인 '하피'의 죽음을 의미한

다.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다.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이 신적 권위가 야훼 용사께 있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각인시킨 강력한 메시지였다면, 피 재앙은 인간의 생사여탈과 생사화복의 권한이 오직 야훼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한 사건이었다.

이 첫 번째인 피 재앙과 관련해서, 신약은 구약과의 차별성을 보이는데, 율법이 복음과 다른 점, 모세와 예수님이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이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복음의 진수가 부활신앙과 살림의 정신에 있음을 보여주셨다. 모세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박해자들이 재앙이란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7장의 피 재앙이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친히 희생을 당하신다. 이 죽음은 모세가 행한 재앙으로 인한 죽음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희생의 죽음이요, 부활과 살림을 전제로 한 죽음이기 때문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 어둠이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살림의 과정이다.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적 권위와 인간의 생사여탈과 생사화복의 권한이 오직 야훼 용사께 있고,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극난극복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한 구약역사가들의 위기진단과 극복처방을 배워야 한다.

8. 개구리, 이, 파리 재앙(출 8:1-32)

열 가지 재앙은 신 대(對) 신의 대결, 곧 야훼 대 거짓 신 라(혹은 오시리스)와의 대결, 인신 대 인신 곧 모세 대 바로의 대결을 상징한다. 바로는 신성을 참칭한 거짓 신이었다.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의 환생으로 여겨졌다.

첫 번째 피 재앙에서 피는 죽음을 상징한다. 피 재앙은 나일강의 수호신(변영) 크눔과 나일강의 범람(옥토)의 신 하피가 나일강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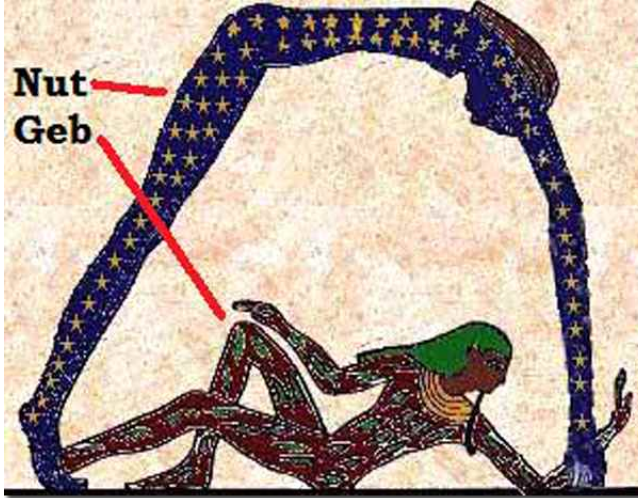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크눔은 나일강을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인 헤케트가 재앙으로 돌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헤케트(Hehet,

Heqet, Hekit, Heket, Hegit, Heget)는 개구리 모습으로 묘사되는 생명과 다산의 여신이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한 후 수백 마리의 개

고대 이집트에서 개구리로 묘사되는 다산의 여신 헤케트(Heqet). 종종 나일강의 수호신(변영) 크눔(Khnum)의 부인으로 묘사된다.

구리가 태어나는데, 그 때문에 이집트인은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보았다. 헤케트는 종종 나일강의 신 크눔의 부인으로 묘사된다.



고대 이집트의 땅(Geb)과 하늘(Nut) 신 부부.
 땅(대지, 흙) 신 게브는 하늘 신 누트의 남편이자 이란성 쌍둥이이다.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는 이들 부부의 자녀들이다.

땅의 티끌이 이(모기)로 돌변한 세 번째 이(모기) 재앙은 대지 혹은 흙의 신 게브가 자신의 분신인 티끌이 재앙으로 돌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게브가 이 또는

모기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게브(Geb, Seb, Keb)는 대지 혹은 흙의 신이다. 게브는 대기의 신인 슈(Shu)와 습기의 여신인 테프누트의 아들이었다. 오시리스(Osiris), 세트(Set), 이시스(Isis), 네프티스(Nephthys)는 게브와 누트(Nut)의 자녀들이다. 누트는 여신 하늘이자 게브의 부인이며 게브와는 이란성 쌍둥이 자매간이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쇠똥구리 신들의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케프리(Khepri)는 아침 태양을 굴러 떠오르게 하는 쇠똥구리(Scarab, dung beetle) 신이다. 쇠똥을 땅에 묻는 쇠똥구리의 작업은 파리들이 쇠똥 속에서 자라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파리 재앙은 쇠똥구리 신들의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베푼 재앙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갖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쇠똥구리 신 케프리(Khepri, 떠오르는 태양). 쇠똥구리처럼 케프리가 태양을 굴러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 믿었다.

첫째, 야훼 용사만이 참 신이시오 구원자이시다.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은 모두 거짓 신이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재앙은 거짓 신 숭배가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일인가를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재앙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연단을 위해서 짧은 박해와 환난은 허용하시지만, 재앙은 허용치 않으신다. 재앙은 거짓 신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짓 신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내리는 응징(네메시스)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은 요한복음에 실린 예수님이 행하신 일곱 가지 표적과 모형적으로 비교가 되고,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가지 재앙들과도 비교가 된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과 관련된 언급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계시록에는 16장 13-14절에서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

라.”는 말씀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개구리, 이, 파리가 계시록에서는 용(마귀)과 짐승(적그리스도)과 거짓선지자(666)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들로 묘사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더러운 영들이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반복해서 속이고 회유하는 귀신의 영을 말한다. 그들의 행위가 개구리, 이, 파리처럼 더러워 피하고 싶은 것들이다. 바로의 거듭되는 거짓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은 속이는 자들이요 기소하고 탄압하는 자들이다.

출애굽기 8장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드러나 있다.

첫째, 재앙들이 이집트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대상이지 재앙의 대상이 아니다. 히브리인들은 고센 땅에 따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 이라”(22절)고한 말씀대로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 계시록에서도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계시록은 일곱 개의 천상과 지상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과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의 백성을 구별 짓기 위한 것이다. 천상과 지상의 백성으로 구별 짓는 가장 큰 목적은 천상의 백성은 구원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기 위함이고, 지상의 백성은 재앙으로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하나님이 재앙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이신다는 점이다. 계시록에서의 재앙들도 마찬가지로이다. 먼저 것보다는 나중 것의 강도가 더 세다. 재앙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모세와 아론이 강팍하고 완강한 바로의 거듭되는 거부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점이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실린 비유들에서 끈질긴

기도와 강청의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하였다.

넷째, 모세와 아론의 강청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이었다. 27절에서 “우리가 사흘 길쭉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간구는 끝내 응답된다.

다섯째,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도 그들의 수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고 흉내 낸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유희와 연기와 불에 타는 연못에 들어갈 멸망의 피조물들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분이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 한분 이외에 그 누구도 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배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한분이외에 모든 피조물은 그들이 천사와 마귀라 할지라도 혹은 정치 경제 군사를 손에 쥔 권세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동등한 피조물이요, 결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8장에 연관된 계시록의 내용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악한 자들의 권세아래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 결정적인 승리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날에는 승리의 함성으로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9. 가축, 악성종기, 우박 재앙(출 9:1-35)

출애굽기 9장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구별”이다. 이 “구별”이란 단어가 출애굽기에 처음 쓰인 것은 파리재앙과 관련하여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8:22)와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I will make a distinction between my people and your people. 8:23)고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였다. 같은 맥락에서 가축재앙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다”(9: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히 구별하신 목적은 세 가지였다. 첫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만천하에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그 하나님, 곧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려데 있었다(11:7). 셋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게 하려는데 있었다(33:16).

이 “구별”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9장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거의 모든 동물들을 신격화하여 섬겼다. 따라서 가축재앙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동물 신들을 무력화시킨, 그것들이 거짓 신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집트 천하에 공포한 사건이었다. 본문 1-7절에 실린 다섯 번째 가축재앙은 황소들에게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떠나보내 광야에서 야훼 용사께 제사하도록 허락하겠다고 한



아피스(Apis) 황소상.

양뿔 사이에 코브라에 감긴 태양을 이고 있다. 아피스 황소 신은 프타(Ptah, 공예와 기술의 신으로서 미라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멤피스의 수호신)라는 신의 성스러운 동물로 간주되었다. 또 고대 이집트에는 사랑과 아름다움과 기쁨의 여신 하토르(Hathor)가 암소로 형상화되었다. 하토르는 바로에게 신성한 젖 곧 영양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말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황소와 암소들이 성스러운 동물로 간주되었다. 이집트 멤피스에서 고대 신전이 발굴되었는데 이곳은 아피스(Apis)라는 황소 신을 모신 신전이였다. 이 아피스 황소 신은 프타(Ptah, 공예와 기술의 신으로서 미라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멤피스의 수

호신)라는 신의 성스러운 동물로 간주되었다. 그에게는 맛난 음식과 많은 암소들이 제공되었다. 또 64개의 묘실(墓室)이 발견되었는데, 각 방마다 아피스 황소의 미라가 안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 사랑과 아름다움과 기쁨의 여신 하토르(Hathor)가 있었는데 암소로 형상화되었다. 하토르는 종종 바로에게 젖을 먹임으로써 신성한 영양물을 공급하는 암소로 묘사되었다.

가축재앙 곧 돌림병재앙은 아피스와 하토르는 물론이고, 그 밖의 동물 신들 암몬(Ammon, 산양)과 므네비스(Mnevis, 황소) 등을 무력화시킨 그것들의 허무함을 공포한 사건이었고, 바로의 소유권과 재산권에 심대하게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다.

본문 8-12절에 실린 여섯 번째 악성종기재앙에서 언급된 화덕은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압제와 강요를 받아 빚은 벽돌을 구울 때 사용했던 화덕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노동조건이 최악인 상태에서 벽돌을 빚고 구워야했던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하였다. 이제 야훼 용사께서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의 산물인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적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림”(8절)으로써 이집트인들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겨”(9절) 극심한 고통을 받게 하셨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암사자 머리에 코브라에 감긴 태양을 이고 있는 여신 세크메트(Sekhmet)가 각종 질병과 재앙과 파괴를 주관할 뿐 아니라,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재생을 준다고 믿었다. 따라서 세크메트의 사제인 수누

질병과 치유의 여신 세크메트(Sekhmet) 앞에서 의식을 펼치는 수누(Sunu)를 묘사한 의식용 목걸이 부적(추진 870년경, 테베). 수누(세크메트 사제)는 질병 치유자이다. 고대 이집트인들 중에는 질병과 재앙을 막기 위해서 세크메트 부적을 착용하곤 하였다. 세크메트는 암사자 머리에 코브라에 감긴 태양을 이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본 부적에는 바로 왕권의 수호여신들인 코브라(우제트, 하 이집트의 상징)와 흰 독수리(상 이집트의 상징)가 상감되었다. 세크메트는 파리의 신으로서 창조신 프타(Ptah)의 부인이다. 사제인 수누(Sunu)는 오늘날의 의사에 해당되는 질병 치유자였다. 고대 이

집트인들 중에는 질병과 재앙을 막기 위해서 세크메트 부적을 착용하곤 하였다. 또 고대 이집트인들은 창조신 아툼(Atum, Atem, Tem)의 아들로 태어나 땅(Geb) 위에서 하늘(Nut)을 떠받치고 있는 슈(Shu)를 공기와 공간의 신으로 믿고 있었다. 따라서 본 재앙은 바로와 이집트의 세크메트나 슈와 같은 신들이 그들의 난 악성종기를 막아줄 수 없는 허무한 거짓 신들임을 공포한 사건이었다.



땅(Geb) 위에서 하늘(Nut)을 떠받치고 있는 공기와 공간의 신 슈(Shu). 슈는 창조신 아툼에게서 태어나 습기의 여신인 누이 테프누트와 결혼하여 대지의 신 게브(Geb)와 하늘의 여신 누트(Nut)를 낳았다.

본문 13-35절에 실린 불덩이가 섞인 일곱 번째 우박재앙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삼킨 하늘 여신 누트(Nut)를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재앙은 거짓

신 누트는 하늘로부터 맹렬히 내린 우박과 불덩이를 막을 수 없음을 공포한 사건이었다. 또 누트는 오시리스, 하토르,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의 어머니요, 땅의 신 게브(Geb)의 부인이다. 우박과 불덩이 재앙은 하늘의 신 누트도, 땅의 신 게브도, 그들의 아들과 딸이자 곡물의 수호신들인 세트(Seth)와 이시스(Isis)조차도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는”(25절) 우박과 불덩이 재앙을 막아줄 아무 짓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공포한 사건이었다.

재앙에서 드러난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앞선 재앙보다 뒤따르는 재앙의 강도가 더욱 강력해진다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바로의 요술사들조차 셋째 재앙인 이(모기)재앙 때부터는 더 이상 모방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재앙에 당하게 된다. 8장의 개구

리, 이, 파리재앙은 더럽고 성가신 것에 불과했지만, 9장의 재앙들은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이 죽고, 사람의 몸에 악성종기가 발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섞인 우박이 맹렬하게 내려서 들에 있던 이집트인과 짐승과 밭의 모든 곡식과 채소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아직은 전멸수준의 재앙은 아니다. 31-32절에 설명되었듯이, 불이 섞인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삼과 보리는 상했지만,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있다.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재앙이 삼분의 일의 재앙인 것을 보면, 출애굽기 9장의 재앙들이 계시록의 나팔재앙의 수준에 머문다고 볼 수 있다. 계시록 8장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는 말씀이 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식물의 삼분의 일을 상하게 했다는 계시록의 우박재앙과 출애굽기 9장의 우박재앙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앙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멸시하는 바로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14절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또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또 34-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적대세력들의 마음이 재앙을 만날수록 더욱 강박하여지기 때문이다.

10. 메뚜기와 흑암재앙(출 10:1-29)

출애굽기 10장은 여덟 번째 메뚜기재앙(1-20절)과 아홉 번째 흑암재앙(21-29절)에 관한 말씀이다. 메뚜기재앙은 인간의 먹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흑암재앙은 빛과 어둠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그리고 11장에 실린 열 번째 재앙은 계시록의 재앙들과 연관해서 볼 때, 그 강도와 세기가 최대치에 이른 대접재앙에 해당된다.

10장의 재앙들은 이집트의 곡물수호신인 세트(Seth)와 창조신이자 태양신인 아툼(Atum)의 허구성을 드러내어 천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선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이은 재앙들로 고센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이 초토화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해졌다.



오시리스(좌)와 아툼(우)

네페르타리(Nefertari) 묘실의 벽화(테베, c. 1297-1185 BC)
 고대 이집트인들은 밤 태양(음부의 신)을 오시리스 떠오르는 태양을 케프리, 한낮의 태양을 라, 저무는 태양을 아툼이라고 불렀다.
 특히 이집트인들은 이들 가운데 아툼(Atum)을 창조신으로 불렀다.

음도 황폐해졌다. 절대군주인 바로에게 신하들이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것

을 알지 못하십니까?”라고 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포기하지 못한 것은 노동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밝은 빛이 없다면, 노동력이 아무리 많이 확보된다 무슨 소용이 있겠고, 메뚜기 떼와 같은 해충을 막지 못한다면, 밀 보리 채소를 아무리 많이 심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점에서 메뚜기재앙과 흑암재앙은 그들이 의지하던 곡물수호신 세트와 태양신 아툼을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아툼은 고대 이집트 신화의 창조신이자 태양신의 이름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밤 태양 곧 음부의 신을 오시리스, 떠오르는 태양을 케프리, 한낮의 태양을 라, 저무는 태양을 아툼이라고 불렀다. 특히 이집트인들은 이들 가운데 아툼을 창조신으로 믿었다. 세트는 게브(대지)와 누트(하늘)에게서 태어난 자로서 형인 오시리스를 살해한 어둠의 신이요,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이



세트(좌)와 호루스(우)가 람세스 2세를 축복하는 장면(하트르 신전, Abu Simbel, Egypt, c. 1264-24 BC). 양숙관계인 세트(하 이집트)와 호루스(상 이집트)가 일치하여 파라오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파라오가 이집트 전 지역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내세웠다.

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세트가 밤을 지배하고 사막을 지배하며 모래폭풍을 일으키는 하 이집트의 지배자라고 믿었다. 또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인 호루스를 하늘과 빛의 신이요 상 이집트의 지배자

라고 믿었다. 이에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이 두 신의 계승자임을 자처하였고, 특히 람세스 2·3세와 같은 파라오들은 피차양숙관계인 세트와 호루스가 자신들을 지지하고 축복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파라오가 이집트 전 지역의 신성한 통치자임을 내세웠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의 출현은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다. 구름처럼 몰려다니는 메뚜기 떼의 규모는 웬만한 시골 도시보다 커서 인간의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나뭇잎까지 몽땅 먹어치운다. 15절을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14절에서는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메뚜기 떼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재앙이었다. 메뚜기 떼 재



호루스(좌)와 세트(우)가 람세스 3세를 축복하는 장면. 양숙인 세트(하 이집트)와 호루스(상 이집트)가 일치하여 파라오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파라오가 이집트 전 지역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내세웠다.

앙은, 오병이 어의 표적과 비교해서 볼 때, 인간들의 의식주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해준다.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떠맡들어 온 곡물수호신 세트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

리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했다.

아홉 번째 흑암재앙은 이집트의 태양신숭배를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땅 위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게 하라(21절)고 명령하셨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캄캄한 어둠이 삼일 동안 이집트 온 땅에 깔렸다. 중동에서는 흑암재앙이 내렸던 니산월 때쯤이면, '캄신' 혹은 '카마신'이라 불리는 모래폭풍이 50여일 정도 분다고 한다. 아무리 창문과 문을 꼭꼭 닫아도 한 시간만 지나면 책상 위에 쌓인 먼지 층이 생긴다고 한다. 또 이 모래폭풍은 모래와 먼지로 하늘을 덮어 태양빛을 가려 버린다. 그래서 사방은 밤처럼 어둡게 된다. 그렇더라도 흑암재앙은 모래폭풍에 의한 것이 아니다. 흑암이 히브리인들이 거주한 고센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에 미쳤기 때문이다.

흑암재앙은 이집트인이 최고신으로 숭배했던 태양신을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태양신이란 것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허구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었다. 거짓 신들은 우리에게 빛을 주지 못한다. 흑암을 이길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 흑암재앙을, 요한복음 9장에 소개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표적과 비교해 볼 때, 흑암에 가린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란 것을 말해준다. 눈을 뜨고 진리를 보게 하는 것, 눈을 뜨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집트의 바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와 같은 거짓 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속임수로 회유하며 공갈협박 한다는 것이다.

첫째, 대놓고 직접적으로 대적한다. 심지가 약한 사람, 정신력이 강하지 못한 사람,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거짓 신들의 대적을 이기지 못하고 자주 무릎을 꿇게 된다. 일단 무릎을 꿇게 되면 그 때부터는 노예로 살게 된다. 무슨 일에서든 마음에

두려움을 품게 되면 그 게임은 진거나 다름없다. 사람들이 기(氣)싸움이나 몸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악한 자들과의 싸움도 첫 싸움이 중요하다. 싸울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휘둘리게 된다. 한번 휘둘리면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둘째, 속임수로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다. 악한 자들은 불리하면 속임수를 쓴다. 거짓 타협안을 내놓는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28절)고 했다. 모세와 아론의 손에는 지팡이 한 개밖에 없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발칙하기 그지없는 늙은 히브리인들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대제국의 황제인 바로의 직접적인 대적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바로의 거짓타협과 회유에도 속지 않았다. 공갈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완강한 뜻을 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하버드대학교의 하비 콕스 교수는 <세속도시>란 책에서 출애굽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 한분 이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고 숭배의 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했다. 바로를 포함하여 거짓 신들은 두려움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했다.

11.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출 11:1-10)

출애굽기 11장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장이다. 열절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글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재앙에는 반드시 사전경고가 있다는 것이다. 빨강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랑불이 먼저 들어오듯이 재앙에는 반드시 사전경고가 있다.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이 경고를 무시해 버리기 때문이다. 바로는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하나님의 경고를 열 번이나 무시해버렸다.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는 우리가 이미 아홉 번이나 살펴본바 있다.

둘째, 하나님의 경고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항상 당신의 종들에게 미리 알게 하였고 세상에 선포토록 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창 18:17)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종들에게 사전에 밝히신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사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로 회개하여 탈출할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전경고의 대표적인 경우가 홍수심판일 것이다. 노아는 홍수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그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메시지를 선포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전경고 없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이 당하는 많은 재앙들이 사전경고에 대한 대비부족과 무시에서 비롯된 것들인 것이다.

성경말씀은 전체가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성경은, 회개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일어난 혹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메시지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죄로 관영한 세상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메시지를 선포토록 하셨다. 특히 우리 인류에게는 최후심판이 남아 있다는 경고를 이미 오래 전부터 듣고 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아홉 번이나 무시했고, 열 번째도 무시했기 때문에 장자들의 죽음이란 무서운 재앙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간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실인즉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꾀에 넘어가 피할 수 있었던 재앙조차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사전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자. 깨어 기도하지 않거나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에 재앙을 겪게 될지 모른다.



약자인 다윗의 구별의식 대 강자인 골리앗의 멜리트의식. 창칼방패에 맞선 돌멩이를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셋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계시록은 철저하게 성도들과 악인들을 구별하여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으로 갚

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수고한대로 포상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와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임금 지불도 하지 않은 채 학대를 일삼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2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하여 남너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는데, 자기 백성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집트인들의 은혜를 입도록 마음을 움직여놓고 계셨고, 또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모세를 우러러 보게 만들어 놓으셨다. 계시록 7장 16-17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를 어떻게 보상하고 계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한다.

넷째,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다. 7절, “여호와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신다.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들을 내리셨지만,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 한 가지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셨다. 마지막 남은 열 번째의 무서운 장자들의 죽음재앙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구별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구별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별능력은 백점 만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는 그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출애굽기나 계시록에서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구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는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따로 구

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별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나 따로 구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출애굽기와 계시록에서 말하는 재앙이란 것들은 전술에서 말하는 '공격개시전포격'과 같은 것이다. '공격개시전포격'이란 아군과 적군이 대치한 상태에서 혹은 적군의 진지 또는 고지를 점령코자 할 때, 보병들의 공격에 앞서 적군의 진지와 고지를 포탄세례로 초토화시키는 것을 말

약자인 조선훈의 구별의식 대 강자인 일본군의 멜리트의식. 330척에 맞선 12척의 배,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한다. 적군의 항복을 받아내려면 여간한 포격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포탄을 물붓듯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보병이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삼분의 일 수준의 포격으로는 적군을 섬멸할 수 없다. 따라서 삼분의 일 수준의 재앙으로는 이집트의 바로든, 계시록의 적그리스도든 싸움을 포기시킬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만 더욱 강박하게 만들고 만다. 그래서 재앙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박케 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는 회개할 때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은 징계수위를 조절하셨다는 뜻이 된다. <하나님은 징계수위를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점차 높이셨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었고, 대신에 하나님은 야훼이신 것을 확실히 각인시킬 많은 표적들을 펼쳐

보이실 수 있었다.>

그러나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보호된다. 그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8장 23절, 9장 4절(가축재앙), 11절(악성종기), 26절(우박재앙), 11장 7절에서도 보았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은 철저히 분리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의 무리들에게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재앙을 당하지는 않는다. 재앙은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의 무리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한 포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겪게 되지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영구히 악의 세력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두 번째로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은 영원토록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은 고센 땅으로 상징되는 신천신지에서 사단의 무리들은 홍해로 상징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겪을지언정 이런 무서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격려하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2. 유월절 예식과 마지막 재앙(출 12:1-51)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18단계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 세 덩어리의 무교병, 네 잔의 포도주, 구운 계란, 양의 정강이뼈, 소금물, 하로셋 제ם, 쏘나물, 채소, 손 씻을 물 및 예식서를 준비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우리 민족의 8.15와 같다.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자기 나라가 아닌 이집트에서 해방을 맞았고, 해방을 맞이할 당시 자기 나라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주권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고도 나라가 한 동안 없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도 아주 오랜 기간 유배생활을 했으며, 주후 70년 이후에는 1878년간이나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남의 나라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가 갖는 의미가 단순히 해방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고, 희망

을 노래하는 예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때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현재의 유배생활이 머지않은

장래에 끝나고 자기 나라에서 유월절을 먹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희망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유월절 밤이면,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이렇게 희망을 노래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여기 타향에 살아도 내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노예이지만 내년에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멀리 남의 나라에 살지만 언제나 그들의 눈을 동쪽 끝자락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유대인들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될 것이라는 하티크바(Ha-Tikvah) 곧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축복받은 민족이다. 비록 우리가 해방이후 남북으로 갈라졌고, 마음대로 서로 왕래조차 할 수 없는 단절의 아픔을 겪고는 있지만, 중동에서와 같은 전쟁과 민족 간 혹은 종교 간의 갈등을 겪지는 않는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이 있고, 재앙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탈출이 있게 된 것을 계기로 유월절 명절이 제정되고 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서 뿐 아니라, 신구약성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성서는
 흑암과 혼
 돈과 죽음
 에서 시작
 되듯이 그
 흑암이 빛
 이 되고,
 그 혼돈이
 질서가 되
 고, 그 죽
 음이 생명
 이 되는
 이야기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믿고 있다. 왕관과 사자는 메시아의 상징이다. 화살표는 조상 아브라함과 히브리인들이 발로 밟았던 땅의 크기로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있다.

66권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옛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연관된 사건 가운데 출애굽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사건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형성한 사건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건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흑암이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약성서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사건이다. 또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예표적(豫表的)인 사건이다. 유월절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의 저자와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유월절 사건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模型)과 예표(豫表)로써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다.

3절의 유월절의 어린양은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이며, 3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유월절 어린양을 사흘 전인 아빏월 곧 니산월 10일에 미리 지정해 두게 하신 것은 창세전에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지정해 두신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이며, 5절에서 어린양에게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흠이 있을 경우 하나님이 받지 않아(레 22:17-25) 대속적인 구속사역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인류속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실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이며, 6절에서 어린 숫양이 죽임을 당한 것은 유월절 어린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음에서 건지고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이다.

또 46절에서 뼈를 꺾지 않게 하신 것은 유월절 어린양이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한 것인데,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상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 대신에 창 찔림을 당하셨다. 7절에서 피가 뿌려져야 한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이 이뤄질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이다. 또 8절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한 것을 유대교인들은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불을 고난의 상징으로 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될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 이해한다.

7절, 8절, 13절에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고 집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장자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교회 안에 머물 때 죄를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8절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주의 만찬을 통해서 먹어야 영적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는 불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뜻이며, 죄악의 상징인 누룩이 들지 아니한 빵을 먹는 것은 죄의 청산을,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지난날의 사단의 권세아래 놓여 살았던 쓰디쓴 죄악의 삶을 청산하라는 뜻이다.

11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신 것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들의 신앙순례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정붙이고 오래오래 살려는 태도가 아니라, 늘 떠날 채비를 갖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유월절은 춘분이 지난 보름날부터 8일간 진행되는 봄의 축제이다. 봄은 만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희망의 계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해방을 맞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때만 되면 해방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고, 무언가 모를 힘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연중 혁명이 발생할 가장 위험한 시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발생한 유월절혁명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참혹했던 것이 주후 66-70(73)년에 있었던 유대전쟁이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유월절 때 성문을 걸어 닫고 혁명

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명피해도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의 전쟁패배로 성전이 붕괴되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와 금고가 약탈되고,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었으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시기에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것도 유대인들의 하티크바(Ha-Tikvah) 곧 그들의 희망과 무관하지 않다.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에게서 잔뜩 기대했던 열심당원들은 그 실망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으로 화풀이를 했고,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지목했던 통치자들은 예기치 않았던 열심당원들의 협조까지 얻어 손쉽게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었다.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낸 것이다. 비록 모세가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지만, 많은 인명의 피해를 피하지는 못하였다. 누군가가 희생되고서야 자기를 보존하는 율법적인 구원이었던 것이다. 모세의 열 가지 재앙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한 부득이한 징계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에 비교해 볼 때, 굳이 비교하자면, 모세는 죽임과 파괴의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살림과 건설의 일을 하셨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이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고,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율법이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이라면, 복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것이다. 따라서 모세로 인해 주어진 옛 것은 흠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것은 온전하다. 그래서 옛 것은 모형이고 예표이지만, 새 것은 참 된 것이고 원형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길이다.

13. 무교절과 처음 난 것의 구별(출 13:1-22)

유대인들에게도 꽤 많은 절기와 명절들이 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절기와 명절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유대민족의 뿌리, 이동, 사상, 자녀교육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본문에 등장하는 무교절이다. 무교절은 춘분이 지난 보름 곧 니산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일간 지키는 축제이다. 본문에는 아빍월로 되어 있는데 니산월하고 같은 달이다. '니산'은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월 명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주전 1446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때의 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첫째, 만물 가운데 수컷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다(14-15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축일들은 민족교육기간이자, 노예와 떠돌이의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제이며, 현재 겪고 있는 노예와 떠돌이의 상태에서 건져주실 것을 희망하는 기원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유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야훼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갖는 놀라운 능력은 이 교육에서 비롯된다. 14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이란 지시가 나오는데 이는 유대인 특유의 문답식 자녀교육을 반영한 말씀이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축일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문답교육이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축일 때마다 문답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민족의 신앙과 뿌리와 이동과 사상과 사명을 교육한다. 구약성서가 유대인들이 축일들

을 지킬 때마다 자녀교육에 심혈을 쏟도록 지시한 이유는 그 같은 말씀들이 기록된 때에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었고, 민족이 살아남는 길이 야훼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야훼신앙이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3천 8여년이 넘는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이유, 유대인들이 3천여년 겪어왔던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노예와 떠돌이의 삶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 문답식 자녀교육에 있다.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대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장자 대속(pidyon ha-ben) 의식을 받고 있는 유대인 아기. 이 의식은 출생한지 31일 된 장자의 대속을 위한 것으로서 의식을 집례하는 자에게 속전을 준다. 성서시대에는 은전 세겔 다섯 냥(노동자 20일 품삯)이었으나 요즘엔 그림에서처럼 의식용 주화를 사용한다.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때에 목숨을 살려주셨으므로 그 목숨 값으로 태에서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운송수단과 이동수단에 쓰이는 나귀새끼 수컷 말뚝의 경우는 어린양으로 속전하고, 장자라 해서 죽일 수 없으므로 은전 세겔 다섯 냥(노동자 20일 품삯)으로 속전하게 하였다. 오늘날에는 은전 달러 다섯 냥(5달러)을 제사장이나 절차에 익숙한 경건한 자에게 주고 간략한 의식을 행한다. 유대인들은 장자대속을 ‘피돈 하벤’(pidyon ha-ben)이라 부르는데 이 대속의식을 출생한지 31일이 되는 날에 행한다. 만일 이 날이 안식일이면 다음날에 행한다.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행하셨던 대 역사를 자기 시대에도 재현시켜 주

시기를 희망하고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축일들을 지키는 진짜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면한 위기에서 거듭 건져주실 것을 희망하는 기원에 있는지 모른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지키는 축일들은 민족교육기간이자, 노예와 떠돌이의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제이며,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기원제이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연중 많은 축일행사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연대, 가족간의 연대, 더 나아가 유대민족이 하나가 되는 은총을 입는다.



둘째, 16절 말씀에 있듯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쉐마’라 불리는 신명기 말씀을 담은 작은 말씀상자를 만들고 긴 가죽 끈을 매달아 그것을 팔과 이마에 붙들어 매는 ‘트필린’을 말한다.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는 행동이 자녀들에게 민족의 신앙과 뿌

리와 이동과 사상과 사명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가는 효과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면, ‘트필린’을 팔과 이마에 붙들어 매는 행동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며 삶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려는 특징이 있다.

셋째, 3절 말씀에 있듯이, “너희는 애굽 곧 중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유교병

을 먹지 말라는 것은 노예생활을 했던 때의 비참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일체의 누룩을 집안에 뒤셔도 안 되고 보이게 해서도 안 된다. 이것 역시 자녀교육의 측면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본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도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해야 할 이유와 동일하다. 8-10절에서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 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예물을 바치고,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할 이유가 버트란트 러셀의 말처럼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히 복을 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을 뿐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21-2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현현, 곧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참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또는 존재를 나타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변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

죽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행동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든, 형통할 때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슬플 때든, 기쁠 때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승승장구하여 은근히 사랑하고 싶어질 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사실을 의식하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처럼 고백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불신으로 원망하고 후회하며 통곡하던 바로 그 때의 일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불신으로 원망하고 후회하며 통곡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14.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가다(출 14:1-31)



우측부터 히브리인들이 첫 유월절을 지킨 모습, 이집트 군대에 추격당하는 모습,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는 모습. (AD 245년경, 두라 유르포스 회당의 벽화, 다마스쿠스 국립박물관)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한 홍해사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게 한 사건이

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 용사가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노예였던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셨고, 떠돌이였던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위대한 신앙을 자손대대로 고백하게 되었다.

본문 말씀 1-4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이유를 설명한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와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이리 저리 헤매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다신들은 인간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5-9절은 바로의 추격과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을 보여준다. 바로의 특수전차부대가 추격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담대히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탈출자들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인원도 많고 짐도 많았으며, 끌고 가야할 가축들도 있었다. 그러나 추격자들의 속도는 신속하고 빨랐다. 이집트의 특수부대가 쌍두마차를 타고 추격하였기 때문이다.

8, 10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추격에 기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고 했고, 10절에서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분의 강한 팔에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강풍 때에도 순풍 때처럼 한 점 흠뜨려지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무도 당당하게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군대 앞에서 혼비백산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이다.



전차 경주 장면을 그린 저장용기
바로의 군사들이 이런 전차들을 몰고 모세와 히브리인들을 추격하였다.

10-14절은 위기에 노출된 이스라엘 민족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나 시련 앞에서 본래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때에 민

음의 깊고 얇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사람은 난관에 부딪힐 때와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감춰뒀던 속내를 드러낸다. 영화나 소설에서도 이 점을 잘 묘사하고 있다. 고미가와 준베이의 소설 <인간의 조건>에서도 그렇고, 한국영화 <남극일기>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사람은 용광로로 표현되는 시련이나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이 금인지, 은인지, 철인지, 나무인지, 풀인지가 드러난다. 순교자들의 관한 글을 읽을 때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 악랄한 수법의 고문을 당한다면, 과연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를 자문하게 된다. 극한 상황에 처한 나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순간, 배교자를 향한 분노나 치켜세웠던 손가락은 어느새 꼬리를 내렸음을 깨닫게 된다. 순탄한 때에 목에 핏줄을 곧추세우는 사람일수록 곧잘 위기 때에 변절자가 되거나 더욱 악랄한 박해자가 된다는 풍성한 사례들이 역사기록에 담겨있다.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읍의 고백처럼, 시련으로 단련한 후에는 찬란한 정금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다(욥 23:10).

본문은 모세가 가진 믿음의 크기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믿음의 크기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애굽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자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만다. 그것이 10-12절의 말씀이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나 모세는 어떠했는가? 모세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백성의 우겨다짐에도 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세는 13-14절에서 이렇게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내산의 위치와 출애굽 루트 가설
 홍해의 아카바만 좌측 무사산이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알려진 산이고 아카바만 우측의 알 라오즈산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시내산이다. 출애굽 루트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1번 루트에 맞서 2, 3번 루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3번이 가장 최근의 주장이다.

15-30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의 역할이 구분되고 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국 사람의 일이 개입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써 드러난다고 본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인협력 곧 신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시너지라고 말한다.

15-16절을 보면, 모세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었으며, 21-28절을 보면, 모세의 믿음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은 큰 동풍을 동원하여 홍해를 갈라놓으셨다.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였고, 그 전차바퀴를 벗겨서 달릴 수 없게 하셨다. 또 모세의 믿음의 행동,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갈라졌던 바닷물이 세력을 회복하여 도망하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가운데 앉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다. 29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19-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인들을 갈라놓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넉넉하게 건널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위치이동을 하였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의 진영에 구름기둥이 가려 흑암이 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는 불기둥이 덮어 광명처럼 밝게 하셨다.

모세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도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런 엄청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31절은 기적의 목적을 설명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하였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15.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의 노래(출 15:1-27)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두 개의 대조적인 춤추는 장면을 보여준다. 하나는 붉은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림의 춤을 추며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집트 군사들의 모습이고, 다른 장면은 죽음과 공포의 바다인 붉은 바다를 건너 해변에 서서 소고 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은 계시록 15장 2-4절에도 있다.

[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홍해를 생각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홍해’는 붉은 바다인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란 붉은 바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이 섞였다는 것은 이 바다가 지옥의 바다란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 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은, 홍해상황에서 설명한다면, 이집트의 바로이고, ‘그의 이름의 수’는 666으로써 바로의 신하들이다. 출애굽기 14장 5-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는



라마수(Lamassu) 석상(넬슨드 출토)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주전 721-705) 궁전 코르사바드
 (Khorsabad)의 수호신, 대영박물관 소장.
 라마수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자들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라고 하였고, 그들이 예비한 군대가 '선발된 병거 육백 대'라고 하였다. 황제를 짐승으로 묘사한 이유는 바로의 경우 매로 상징되는 호루스의 현신으로 묘사되었고, 코브라와 흰머리 독수리가 바로왕권의 수호신이었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 산양으로 상징되는 아몬의 현신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또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아시리아의 수호신들은 성서 속의 케루빔처럼 날개를 가진 생물들이었다. 그

들 가운데 이집트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수호신 스팅크스, 아시리아 및 페르시아의 수호신 라마수,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두크, 아시리아의 수호신 니스로크 등이 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수호신 라마수, 마르두크, 스팅크스는 현신인 황제들의 두상이다. 머리에 황소 뿔 세 쌍이 좌우에 새겨져 있다.

또 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섰다고 했는데, 홍해상황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홍해 해변에 모여 선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곳 홍해 해변은 안전한 죽음의 바다 건너편이요, 안전지대요, 피안이다. 복음서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 피안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

일 수 있다. 갈릴리 호수가 폭풍이 몰아치는 악한 세상의 상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리오스 대왕의 수사 궁전의 스템프스(주전 480년, 루브르)은 함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계시록에는 이 노래가 두절의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무려 21절이나 된다. 여기서 사용된 약기는 계시록에서는 거문고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소고이다.

노래의 내용은 한 마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며 의롭고 참되다고 했고, 하나님은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양의 노래와 동일시되고 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종 어린양의 노래와 같다는 뜻이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 해변에 선 자들이다. 수백만이 한꺼번에 부르기 때문에 또 구원받아 기뻐서 외치는 노래이기 때문에 웅장하고 장엄할 뿐 아니라 우레와 같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경배 받으실 자라고 했다.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사단과 악한 짐승 같은 무리의 꾀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산양뿔이 달린 암몬 제우스



암몬뿔이 달린 알렉산더 대왕

출애굽기 15장 1-18의 노래 내용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

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들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특별 병거와 그것을 타고 있는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구원이시고, 조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우리의 심령에 담력을 주시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주시며, 원수의 칼날에 날아갈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하나님을 높여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들고 있다. 첫째는 야훼 용사께서 바로의 군대와 싸워 그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둘째는 야훼 용사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쳐부수자, 그들이 무거운 돌처럼 혹은 납덩이처럼 바다 깊숙이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5장 11-18절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이다.

[11]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2] 주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 버렸습니다. [13] 주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14]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

서 떨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15]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16]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17] 주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의 소유인 주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18]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출애굽기 19-21절의 말씀은 매우 대조적인 두 장면을 보여 준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으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에 나타난 두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은 홍해의 깊은 바다에 휩쓸려 절망적인 아우성으로 허우적이며 죽어가는 이집트 군사들의 모습이고,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해변에 도착하여 손에 손을 잡고, 소고를 들고 춤추며 노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이런 대조적인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 곳이 계시록이다.

계시록에는 7개의 중요한 대조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계시록 7-9장과 14-16장에 나오는 두 개의 장면들은 출애굽기 15장의 장면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계시록 7장과 14장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큰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

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8-9장과 15-16장은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불과 연기와 유험의 고통을 받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받게 된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 것이다.

16. 만나와 메추라기(출 16:1-36)



히브리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만 30일만인 5월초에 신광야에 도착하였는데, 이때부터 만나("뭐지?"의 뜻)를 먹기 시작하였다. 1947년에 히브리대학의 식물학 교수팀이 시나이반도 중앙 계곡에서 5월경에 위성류(tamarisk tree) 나뭇가지 끝에 기생하는 주머니박지벌레과의 벌레들이 배설한 분비액이 밤중의 건조하고 찬 공기 속에서 끈끈한 고체 방울로 변했으며 나중에는 희고 누런 빛 또는 갈색 빛을 띤 달콤한 만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먹었던 그 만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만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특색은 달콤하다는 것과 재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만나는 건조된 식물 수액이거나 수액을 먹은 벌레들이 분비한 단물이다. 위

성류(tamarisk tree, 에셀나무) 나뭇가지 끝에 기생하는 주머니박지벌레과의 벌레들이 배설한 분비액이 출애굽기의 만나와 가장 근접하다. 이밖에 딱정벌레류의 곤충이 분비하는 식용 꿀인 '트레할라'(Trehala) 만나, 석이(manna-lichen) 만나, 낙타가시나무의 마른 수액인 황기(Hedysarum) 만나, 코토네아스터 떨기나무의 마른 수액인 '쉬르 케시트'(Shir-Khesht, 페르시아어로 '마른 우유'란 뜻) 만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만나들은 매일 비같이 내린 하늘양식(bread from heaven)(4절)에 대한 설명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메추라기가 많았다는 증거가 있다. 대영박물관 네바문 묘실(the tomb-chapel of Nebamun) 전시실에 11개의 벽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개는 <그물을

쳐서 메추라기를 잡는 사람들>을 그린 벽화이다. 이 묘실의 주인공은 네바문(Nebamun)이라 불린 이집트 관리로서 주전 1400-1300년경의 인물이었다.



그물을 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이집트인들
이집트인 관리 네바문의 묘실에서 발견된 주전 1350년경의 벽화
<대영박물관 네바문 묘실(tomb-chapel of Nebamun)>.
이 벽화는 출애굽당대의 것으로서 메추라기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16장에 실린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애굽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이 지난 두 번째 달(Iyar, 이아르) 십오일에 생긴 일이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첫 번째 달 니산 16일이

였다. 여기서 16일은 음력 보름 다음 날을 말한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가던 때의 일로 생각이 된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면서 이스라엘 회중의 그 특유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 것 같다. 이스라엘 회중의 원망과 불평은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이 광야에서 자유인생활보다 더 좋았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2-3절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탓할 것이 못되지만, 믿음여부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거

론하지 않을 수 없다.



좌측: 쉬르-케시트(Shir-khesht) 만나
 중앙: 향기 만나(hedysarum)
 오른쪽: 키오스 매스티크(chios Mastic, 만나 아넌)

믿음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자주 드러나는 곳이 의식주문제이다. 허름한 옷에 떠돌이 텐트생활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렇다 쳐도, 당장에 먹고 마실 것이

없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 아브라함 이후 이미 최소 430년에서 최고 645년이나 오래된 피맺힌 한의 희망을 찾아 길을 떠난 히브리인이라면 모진 모래바람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싸워야하지 않겠는가, 금양모피를 찾아 모험의 길을 떠난 이아손이라면 거친 풍랑과 금양모피를 지키고 있는 용과 싸워야하지 않겠는가, 반인반수의 괴물인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기 위해 미궁에 들어가기를 자청한 테세우스라면 아리아드네가 건네준 실타래의 끈, 희망의 끈,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하지 않겠는가, 좁은 길, 험한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로 알려진 천로역정에 나선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심과 유혹의 마귀와 싸워야하지 않겠는가, 빛나는 월계관을 받아 쓸 최후승리자(nikomen)가 되고자 한다면 신실한 믿음과 끈질긴 인내를 보여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희망을 찾아 길을 떠난 용사에게 필요한 무기는 당장의 먹을 것과 마실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에 찬 믿음일 것이다. 만일 그에게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불평과 원망이 앞서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먼저 나올 것이다. 만일 그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언제나 감사와 기쁨을 지배하고 억누른다면 그의 희망과 믿음은 무디고 녹 쓴 칼처럼 쓸모가 없게 되고, 그의 피나는 노력은 허무하고 허탈한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희망을 성취하려면 적당한 대가를 치러야한다. 얻고자하는 것

을 손에 넣으려면 정당한 값을 치러야한다. 값을 치르는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는 선물로 받거나 강탈하거나 훔치는 방법밖에 없다. 선물로 받으려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살만한 응당한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얻고자 하는 것을 가장 손쉽게 아무 탈 없이 얻는 방법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을 기업으로 얻고자 했는데, 진실로 그 희망은 4천년이나 오래된 유대인들의 집단무의식이지만, 그 대가가 3천년에 달하는 혹독한 광야생활이었고 떠돌이와 노예의 삶이었다. 가나안땅을 찾아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힘들어한 것이 바로 그 혹독한 떠돌이 광야생활이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결과가 믿음이 없고 참혹하고 원망이 가득한 배신행위였지만,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 울부짖기라도 했다.

용사를 무너뜨리는 적은 용사 안에 있다. 영광의 탈출을 감행한 히브리인들을 무너뜨린 적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있었다. 외부의 적은 용사이신 야훼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을 넘보지 못했다. 오히려 타민족들은 하나님이 히브리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이란 책을 쓴 존 M. 오브라이언은 책의 부제로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천하의 젊은 장수 알렉산더 대왕을 쓰러뜨린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알렉산더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던 것이다. 외부의 칼날에 목숨을 잃지 않는 영웅은 반드시 '자기 안의 적'의 손에 쓰러지게 되어 있다. 알렉산더도 그랬다. 오브라이언은 알렉산더를 쓰러뜨린 내부의 적은 다름 아닌 미친 술 파티와 힌두교적 허무주의였다고 했다.

역사가 토인비도 지구상에서 한 때 찬란한 꽃을 피웠지만, 시들고 멸망해 버린 21개의 문명들을 연구한 끝에 결론내리기를, 21개의 문명들 가운데 19개 문명이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 곧 내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멸망했다고 하였다. 이 '내부의 적'이 바로 '오만'이다. 토인비는 '오만'을 '자기우상'이란 말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문명이 쇠퇴되고 해체되는 것을 토인비는 '네메시스' 곧 '응보'라고 불렀다. 그는 조직이 붕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그 조직이나 국가의 내부의 적인 사회적 병폐에서 찾았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힘센 사람에게 맞아 죽거나 차에 치어 죽기보다는 몸이 병들고 속이 썩어서 죽는 경우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오만하기 때문이고, 자기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오만하기 때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남이나를 괴롭히거나 헐뜯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내 형편과 내 처지에 관계없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 믿음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찌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평강과 행복은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배불리 먹고도 불평과 원망 속에 살 수 있고, 헐벗고 굶주리고도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몫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다. 이스라엘 회중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도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들 모두는 결국 불평과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다.

마음의 평강과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과 성공과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동행에서 오는 것이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17. 광야는 믿음을 키우는 훈련장소(출 17:1-16)



본문 17장에서 이스라엘 회중은 사막에서 흔히 겪는 일이지만 물 문제에 부딪혔다(1-3절). 물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8-16절).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회중은 그들을 사막으로 이끌어 내어 죽게 만

금양모피를 찾아 먼 길을 떠난 이아손(Jason)의 용기와 믿음. 금양모피(좌상)를 지키는 용(좌)과 싸우다가 용에게 먹히는 이아손. 위기에 봉착한 이아손을 구해주고 있는 지혜와 용기의 여신 아테나(우). 히브리서 저자는 영원한 하늘 안식처 가나안을 향해 고난의 행군을 나선 그리스도의 이아손들에게 큰 상을 얻기까지 새로운 산 길을 여신 믿음(희망)의 실상과 증거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것과 믿음과 인내의 끈을 놓치 말 것과 담대함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다(16:3; 17:3). 그러나 실상은 맞닥뜨리는 위기들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위기들을 조성하신 것은 아니다. 위기란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들

을 피해가게 하시거나 위기들을 만나지 않도록 돕지 않으시고 자주 그 위기들을 겪게 하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라고 했고,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벧전 1:7)고 하였다. 둘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12:7)고 했다. 위기나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요 ‘사탄의 사자’일 수 있다. 시험을 치른 후나 시험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제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다. 시험에 불합격했거나 시험에서 졌을 때 겪는 아픔이 꼭 가시에 찢린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서 분발하게 하고, 더 노력하여 발전시키는 채찍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위기나 시



중앙 상단에 성막과 메노라, 하단에 모세와 반석의 섬, 좌우에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받고 있는 열 두 부족의 장막을 그렸다. (주후 245년경, 두라 유르포스 회당의 벽화, 다마스쿠스 국립박물관)

련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게 만드는 가시요 채찍이다.

하나님은 위기나 시련을 만들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같은 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고 막으실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기지 못할 시련을 허락하지는 않으신다.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전 10:13)고 말씀하셨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위기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쓴 물을 달게 하셨고(15:25),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으며(16:13-15),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17:6).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기도록 도우셨다(17:11-16). 다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셨다(17:11).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회중도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교회에 입문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광야는 이스라엘 회중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훈련장이자 약속성취를 위한 준비 장소였다. 공생애 시작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듯이(마 4장),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을 연단 받는 장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다. 뽑힌 사람만 받는 것이다. 선수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발전에 나가 뽑혀야 한다. 선수촌에 들어가면 이전보다 훨씬 고된 훈련을 감내해야 한다. 훈련을 잘 소화한 사람만이 시합에 나가 메달을 딸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켜 굳건히 세우려는 데 있었다.

또 광야는 희망과 약속과 보증이 있는 장소이자 믿음이 있고

없음을 증명하는 시험장이었다. 광야 건너편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 이스라엘 회중은 언제나 현실에 통하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놓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에 집착하여 유용성과 실용성에만 매달리게 되면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여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충만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는 믿음생활이다.



모세와 히브리인들의 홍해도하 장면

바울은 이 장면을 그리스도인들의 침례의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였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믿음과 인내로써 요단강 넘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행군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광야생활은 신앙생활을 상징한다. 광야가 삭막하고 척박하며 배고프고 고달프고 모래바람을 견뎌야 하는 장소이듯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도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다. 고난과 시련을 잘 참고 견딘 다음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가나안 복지란 금메달이요 금빛 찬란한 월계관이요 금양모피이다.

이스라엘 회중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 받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원망과 불평을 털어냈다(16:3; 17:3). 모세가 지적했듯이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털어놓은 원망과 불

광야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언급되었듯이 이집트란 세상에서 구별되어 흥해라는 침례를 받고 광야

라는 교회에서

평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다(16:8; 17:2).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셨고, 그들의 잘못을 수수방관하지도 않으셨지만, 또한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다.

이스라엘 회중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는 언제나 보채고 때를 쓰고 씹씩거린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회중은 내버려뒀으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사막에 끌어내어 개죽음시키려 하느냐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마실 물을 달라, 먹을 양식을 달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바꿔 말하면, 헬리콥터 부모처럼 알아서 척척 해주지 않고, 꼭 보채야 주시고 믿음을 시험하느냐며 오만 불손한 자식이 부모에게 대드는 꼴이었다. 그러나 자식이 빠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자식을 엄하게 교육할 것이다. 자식의 기를 꺾지 않겠다고 자식을 통제 불능으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자식을 망치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없이 돌보시는 헬리콥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는 새 출애굽기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모든 악조건을 물리치고 영웅적으로 가나안 복지를 쟁취한 여호수아를 본받자. 험난한 원정길에 나서 기필코 금양모피를 손에 넣은 이아손을 본받자, 지상의 모든 고뇌와 지상의 모든 수고를 짊어진 채 운명의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가 끝내는 자신을 그토록 증오했던 헤라로부터 영광을 쟁취한 헤라클레스를 본받자, 절망의 미궁에 갇혔으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테세우스를 본받자. 십자가에 처형당하기까지 순교의 길을 걸었으나 끝내는 이기고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받자.

18. 광야 연단과 원시 국가체제(1)(출 18:1-12)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의 청동 작품
 '방향성을 가리키는 남자'(1947년). 왼손으로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고, 시선과 오른손가락은
 자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향하고 있다.
 "당신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배치철권,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초보자
 였던 히브리민족은 출애굽사건과
 광야생활을 통해서 야훼에 대해
 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이
 집트에서 있었던 열 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야훼가 유
 일신이신 것을 알았고, 홍해사건
 을 통해서 그 유일신 야훼께 자
 기 민족이 선택된 것을 의식했으
 며, 쓴물을 단물로 바꾼 마라에
 서는 야훼가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다(15장). 신 광야에서
 시작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16장)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므
 리바 사건을(17장) 통해서 인간
 의 생사문제가 야훼께 달려있음
 을 알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야훼가 구원의 성체이시
 요 승리의 깃발이신 것을 깨달았
 다. 야훼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끈질긴 인내만이 살길임을 점차

알아나갔다. 히브리인들은, 비록 육체로는 노예상태에서 벗어났
 지만, 정신으로는 여전히 노예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홍
 해를 걸어서 건넌 사건이 족쇄를 풀고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자
 유인이 된다는 출발신호였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펼친 기나긴
 고난의 행군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보듯이, 동굴 속 흑

암에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 점점 밝아오는 동굴 바깥 빛의 세계를 향해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는 영적 순례였다.

회고해보면, 우리 자신의 살아온 삶이 거의 이와 같았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양과 속 같은 무명(無明)의 비늘을 한 꺼풀씩 양과 벗기듯이 벗겨나가는 순례과정이다. 영의 눈을 뜨는 과정이다. 영의 귀를 여는 과정이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 통하는 것, 세상에서 통하는 것, 유용성과 실용성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구미가 당기는 것만 보기를 원하고 귀에 솔깃한 것만 듣기를 원한다. 우리는 여전히 공리주의 실용주의 성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둠의 족쇄에서 풀려나 빛의 세계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는 있지만, 그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어둠에 익숙해진 눈은 강렬한 빛이 주는 아픔이 너무 싫고, 달콤함에 익숙해진 귀는 쓴 소리가 듣기 싫고, 취향에 익숙해진 혀바닥은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을 거부한다. 이런 우리의 태도 때문에 아픔과 고통은 우리 걸을 맴돌며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듯 우리 걸을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행군은 더디기만 하고, 우리가 풋대삼은 가나안땅이 아득히 멀기만 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민족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 잡아 2-3개월이면 도달할 오랜 희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땅을 40년이나 걸려 도달하였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대략 370킬로미터이고, 히브리인들이 실제로 행군한 거리는 대략 640킬로미터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의 현주소일는지 모른다. 넘어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불에 타면서 넘어지면 일어서고 깨지면 붙이고 피 흘리면 지혈시키면서 불에 타버리면 남은 것 가지고 오뚝이처럼 칠전팔기하며 주저앉아버리지 않고 중단해버리지 않고 지치면 쉬었다가 또 출발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네 인생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인 김남조는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별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처럼 온다고 했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은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고 노래했는지 모른다. 비록 우리네 인생살이가 풍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의 작품 '걸어가는 사람'(1960년).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딛어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성했던 의사귀들이 다 떨어져 나간 한파의 면도날에 살이 깎이는 겨울나무처럼 처참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처절한 겨울나무조차도 다시금 불을 지필 충전 부싷돌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고 노래하였다.

시인 김남조는 또 겨울나무와 바람의 관계가, 특히 겨울나무의 입장에 보면, 매서운 바람이 원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조차도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로써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고 ‘설일’(雪日)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노래하였다. 인생살이란 것은 힘든 돌층계를 오르는 것과 같고, 사랑이란 것도 걷기 힘든 자갈밭과 같지만, 우리가 오른 들계단의 어느 지점, 우리가 걸어온 자갈밭 어느 지점, 거기까지 오르고 걸어온 인생살이가 뒤돌아보면 다 은총이요 섭리라는 것이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은총과 섭리로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고 있고,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도 마셨고,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

서울대 배철현 교수는 국민일보 칼럼, “당신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국민일보 2018-02-15> 혹은 저서 <심연>(21세기북스, 2016)에서 <신곡>을 언급한 바가 있다. <신곡>은 국외추방과 소외와 혼돈한 미로에 갇힌 단테 자신의 생지옥 체험기로써 우리네 인생살이의 여정을 은유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곡> ‘지옥편’ 첫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였다. “우리 인생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 숨겨져 있다.”



스위스 출신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1901-66)는 한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고, 참혹한 제2차 세계대전까지 겪으면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허망하고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고된 운명과 오랜 외로움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좌절을 딛고 일어서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더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그 후 자코메티는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66)의 아내 아네트(Annette, 1923-93) 청동 조각상(1954년) 좌측 절반은 아네트의 ‘생’ 곧 젊음의 시절이고, 우측 절반은 아네트의 ‘사’ 곧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다. 젊음의 아름다움보다 노년의 성숙미가 더욱 값지다는 것을 말해준다.

작품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Pointing Man, 1947, 낙찰가 1500억원)과 ‘걸어가는 사람’(Walking Man, 낙찰가 1200억원)을 만들어 현실의 고통에 좌절

하고 절망하여 주저앉고 싶었던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자기가

가고자하는 길과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

출애굽기 18장 1-12절은 모세가 험난한 인생여정에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던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이다.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히브리민족이 이집트와 광야에서 겪은 모든 환란과 야훼께서 행하신 큰일들에 대해서 듣고 기쁜 마음으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야훼께 찬송하고 제사를 바친 후에 친교를 나눴다. 이것은 믿음의 영웅 모세에게 주어진 큰 보상이었다. 인생살이가 늘 고달픈 것만은 아니다.

야훼께서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훈련하신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땅을 주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이 땅과 나라는 아브라함 이후 무려 430년에서 645년이나 오래된 그들의 한 맺힌 희망 곧 하티크바(Ha-Tikvah)였다. 값지고 좋은 것일수록 손에 넣기가 더 어려운 법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를 원하는 선수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훈련일지라도 참고 견딜 것이다. 감독의 조련은 선수가 미워서가 아니라, 선수가 꾸는 그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피차 상관없는 관계라면 아무도 욕먹을 일에 나서려하지 않겠지만, 선수를 사랑하고 그의 장래를 염려하는 감독이라면, 선수에게 혹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면, 욕의 시련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겪는 시련에 마냥 주저앉아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뽀힌 자가 아니면 선수촌에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연단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19. 광야 연단과 원시 국가체제(2)(출 18:13-27)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막 9:1)

모세
(왕법)
멜리야
(예언)
●
구약
(모형)
●
그리스도
(복음)
●
신약
(실체)
기초자

이스라엘의 상징(올리브나무가지와 메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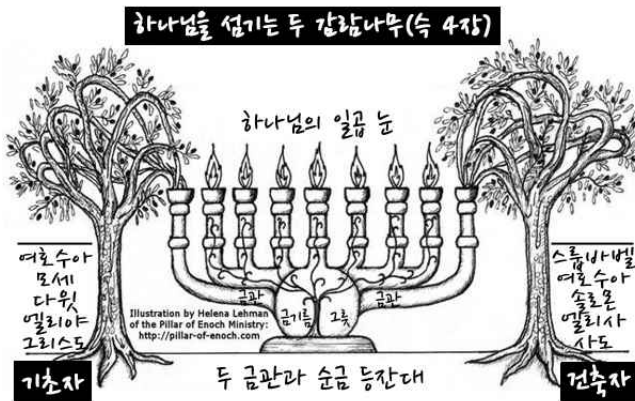
이스라엘 회중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행을 저질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 안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 회중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에 인도함으로써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회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며 그들이 점차 성장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점차 교육해 나가셨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회중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살아가기 어려운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회중을 단련시키셨다. 이것은 별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쌓기 위한 훈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신 언약서의 내용을 이스라엘 회중이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을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에서 고통당하게 하

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을 불신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회중이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이 누리는 구원의 은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서의 내용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광야생활은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서의 내용을 잘 지킬 것인지, 아니면 제멋대로 살 것인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은 순간순간 닥쳐오는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를, 또 어느 길을 택해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시험과정이 혹독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선택된 자가 아니고서는 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뽑힌 자가 아니면 선수촌에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연단도 없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훈련에 들어간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만날 때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날 때, 이스라엘 회중처럼 불평과 원망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집트를 나올 때 이스라엘 회중은 군대도 없었고, 국가로써의 체계도 없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민족공동체였을 뿐 아무런 체제도 갖추지 못한 집단에 불과했다.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 싸울 수 있는 나이의 청장년들을 소집하여 급하게 군대를 만들었지만, 훈련이나 싸움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무장도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 인간적인 판단으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 때문이었다. 또 거기에는 하나님 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의 용맹이 있었고, 기도하는 모세와 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있었다. 그들은 기적처럼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닛시'라 불렀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이즈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찾아왔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광야생활을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하게 듣고,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변제를 바쳤다.

마침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회중의 송사를 일일이 재판하는 것을 보고 모세와 백성이 필경 지쳐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언약서의 내용을 백성에게 가르쳐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는 일에 전심하라고 충고한다. 아울러 회중 가운데 재덕을 겸비한 자들을 선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송사를 담당하도록 조언하였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백성들 가운데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들을 세워 회중의 일을 돌보게 하였다. 이드로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바른 성경).

“자네가 하는 일이 좋지 않네. 이 일이 자네에게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 할 수 없으니, 자네와 이 백성들이 정말 지



유대교인들의 저장동기에 복조된 메노라와 다윗의 별

치고 말 것이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겠으니, 내 말을 듣게.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이 있으면 모두 자네에게 가져 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짐을 지게 되어 자네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네.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자네에게 허락하시면, 자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백성들도 모두 자기 자리로 평안히 가게 될 것이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회중은 원시적이긴 하지만, 비로소 국가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 때까지 아무런 체제도 갖추지 못한 채 집단공동체로 살아온 이스라엘 회중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실용적인 형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처음으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 거론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하며, 둘째는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맺어진 하나님 중심주의 국가이다. 다른 세속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체제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가 되는 조건은 첫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둘째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이 두 가지만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그 어떤 덕목보다 더 중요한 덕목인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 규범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서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이다.

여기서 중시할 것은 율법이 광야생활과 연관되어 주어졌다는 것이다. 광야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한 단련 기간이다. 따라서 광야 여행 초기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장차 발생할 광야여행의 본질과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 실제로 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므리바에서 생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한 사건이었다. 즉 인생의 주체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언약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존재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뽑힌 자들이며,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20.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출 19:1-25)



유대인들은 이집트 시대 조상들이 첫 유월절 다음날 고센 땅을 출발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시나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오순절(Shavuot) 명절을 지킨다.

출애굽기 19-24장은 오순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린 곳이다. 그리고 본문 19장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 민족이 시나이산 기슭에 도착한 날은 이집트를 탈출한지 45일째 되는 셋째 달 '시반' 1일이었고, 태양력으로는 5월말 6월초에 해당된다. 언약식을 갖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보면, 시반월 1-2일 이틀 동안 몸을 성결케 하면서 옷을 빨아 입었고, 언약식이 거행된 6일까지 금욕하였다. 하나님은 3일부터 시나이산 위에 큰 위엄과 권위로 임하셨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이 첫 유월절 날 어린양의 희생과 오순절 날 토라 언약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오순절(Shavuot) 명절을 시반 6일 해질 때부터 7일 해질 때까지 지킨다. 그들은 조상들이 첫 유월절 다음날 이집트의 고센 땅을 출발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시나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토라(율법)를 받은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오순절을 기도회나 밤샘 토라공부 등으로 지킨다. 오순절은 토라를 기반으로 문자적인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가 동시에 탄생한 날이다. 이 뿐 아니라, 오순절은 초여름 추수감사절로 지켜진다. 이 시기에

일곱 가지 곧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열매를 수확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후 오늘날까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해온 민족이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역사에 자취만 남기고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의 높고 깊은 파도 속에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 소수민족이고 그들의 나라는 남과 북, 동과 서의 길목에 있는 작은 나라여서 강한 나라들의 남진, 북진, 동진, 서진정책에 따라 그들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약탈과 겁탈을 수없이 당하였고, 3천 8백여 년의 역사 가운데 2천 8백년 정도를 떠돌이와 노예의 삶을 살았다. 가나안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선 지는 대략 3천 4백년 정도 되었는데, 그 가운데 3백년 정도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들을 섬기는 봉신국이었고, 6백년 정도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속한 속주로써 살아남았다. 그러다가 주후 70년부터 1948년까지 1878년간은 세계지도에서 그 흔적이 완전히 지워진 매우 불행한 나라였다. 그간에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1,200만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우리나라보다 강하고 더 잘사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그런 동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구약성서를 공부해보면, 그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문제에 연결되어 있고, 모세오경을 핵심으로 역사서들과 예언서들이 모두 어떻게 해야 유대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예언자들과 역사가들은 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집단무의식 또는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참신이시고 유일신이시며 용사이신 야훼의 선민이라는 민족의식이었고, 그분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언약, 곧 토라를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를 지닌 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이었으며,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악조건에서조차, 야훼가 조상들을 구원해주셨고, 따라서 회개하고 야훼께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리고 야훼의 말을 잘 듣고 야훼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야훼, 곧 조상들의 야훼께서 반드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



오순절 언약식 날들에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자 우리와 번개와 백백백한 구름이 산 위에 앉았고, 자욱한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출 19:16-18).

는 야훼신앙이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4-8절까지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뢰와 번개와 큰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킬 때, 그로 인해서 백성이 두려움에 떨 때에 뽁뽁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이때의 장엄한 광경이 16-19절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다.



오순절에 수확하는 이스라엘 농산물과 사마리아인들이 매년 그리스산에서 열리는 오순절 축제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조건이다. 아직 언약식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언약이 체결된 이후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 5-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신약성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다 그리 생각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선민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입는다.

첫째는 하나님께 뽑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

둘째, 아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신 7:6, 26:18-19).

셋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의 역할과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배타주의와 선민주의에 빠져서 이 거룩한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만으로 묶어버리는 교만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대신할 영적인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교를 출범시킨 것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자만에 도취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아야 한다.

역사가 토인비는 한 민족이 자만에 도취되어 받게 되는 응보를 ‘네메시스’란 말로 표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새 언약 공동체의 회원으로 삼으신 것은 제사장의 역할 곧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약의 말씀, 곧 성서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신 사명, 곧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1. 십계명(1)(출 20:1-17)



함무라비 법전(판례법)
 바빌론 제1왕조 제6대 왕인 함무라비의 재위기간(1792-1750BC) 말에 만들어진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검은 현무암 비석(2.25m)에 새겨진 판례 법전이다. 바빌론 신전에 있던 것을 7세기경에 메디아인들이 전리품으로 수사(Susa)로 옮겼다고 전한다. 이곳에 실린 282개의 판례법에는 경제 관련 규정(가격, 관세, 무역, 통상), 가족법(혼인, 이혼), 형사법(도둑, 절도), 민법(노예제, 채무)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론 가해자의 신분과 범주의 정함에 따라 달랐다.
 <참고: 월간기독교 2014년 1월호, www.greatopen.net>

이 집 트를 탈출한지 47 일째 되는 날 야훼께서 시내산에 강림 하셨지만, 아직 언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

출애굽기 20장은 체결할 언약의 핵심 내용인 십계명이 소개된 곳이다.

함무라비 법전(판례법, The code of Hammurabi). 태양신 사마쉬(Shamash)가 기도하는 왕 함무라비에게 신성의 상징인 홀과 링(이집트의 양크)을 수여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가 사마쉬로부터 법전을 수여받았다고 한다. 할 것을 야훼께서 명령하신 필연법인 동시에 야훼와 이스라엘 회중 양방이 체결한 계약법이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야훼의 일방적인 명령은 아니다. 하나님은 몇 번에 걸쳐서 분명히 이스라엘 회중의 의사를 타진했고, 이스라엘 회중은 “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고 약속한 언약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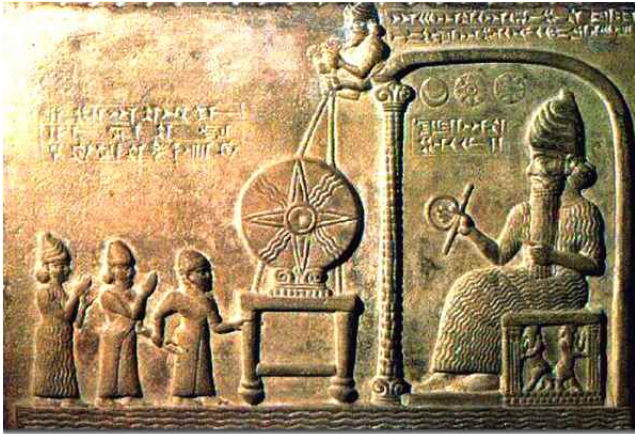
함무라비 법전이나 수메르 법전, 앗수르 법전들은 주로 특별한 유형의 소송에 대한 견본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판시해주거나 무엇

십계명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기보다는 광범위하게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판례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필연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보니까 이 십계명을 언약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제법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그러나 십계명은 강제성을 지닌 법이 아니라, 자발성을 지닌 법이다.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야훼와 언약을 맺은 인간이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강제성을 지닌 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야훼가 아담과 맺은 언약에 따른 명령이다. 따라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이 져야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계명’(mitzvah)이라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은 그 계명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할라카’(halakhah, 길)라 부른다. 이 할라카의 중심엔 토라(Torah)에서 뽑아낸 613개의 계명(mitzvot)이 있고, 사람들이 이들 계명을 우발적으로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게자이로트’(gezeiroth)가 있다. 게자이로트는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된 구전법 미슈나(Mishnah)와 이 미슈나를 해석한 아람어 주석 게마라(Gemara)에 담겨 있다. 미슈나와 게마라는 유명 랍비들의 주석과 함께 탈무드(Talmud)에 담겨 있다.

중요한 것은 613개 계명이외의 모든 유대법은 랍비들이 제정한 성서이외의 법들이란 점이다. 야훼와의 언약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법이 모든 것이고, 유대민족의 흥망성쇠가 걸린 법들이다. 이들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많은 수가 여러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에는 지켜질 수 없다. 예를 들면, 율법들의 상당 부분이 성전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희생 제사들과 제물들에 관한 것인데, 성전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율법들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곧 그것의 왕과 최고법정 그리고 공의조직에 관한 것인데,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



태양신 사마쉬(Shamash) 석판의 상부(시파르, 대영박물관). 사마쉬가 태양, 달, 금성이 부조된 신전 보좌에 앉아 있고, 오른손에 홀과 링(이집트의 앙크에 해당)을 들고 있다. 상단의 두 인물이 신전 제단에 놓인 커다란 태양을 받들고 있고, 제사장과 예배자 두 사람 가운데 중앙이 바빌론의 왕 나부아사르(Shamash-Adad, 888-855 BC)로 추정되며, 사마쉬로부터 신성의 상징인 홀과 링을 수여받으려 하고 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양은 수메르어로 우투(utu), 아카데어로 사마쉬(Shamash)라 불렸다. 태양신 사마쉬(우투)는 달신 신(Sin 혹은 Nanna)과 여신 금성 이슈타르(Ishtar 혹은 Inanna)와 삼체일조를 이루는 정음의 불명의 신이자 신들과 사람들의 재판관이다. 하루는 밤에 시작되고 낮은 그 뒤에 이어지므로 태양신 사마쉬는 달신의 아들로 여겨진다. 머리에 세 쌍의 뿔(수호신의 상징)이 새겨진 두건을 쓰고, 양 어깨에 광선과 허리에 뿔칼로 무장한 채 전차를 모는 사마쉬는 밤에는 달로, 새벽에는 새벽별(금성)로, 낮에는 태양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다. 게다가 일부 율법들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장소들에 적용되지 않는다. 농사법은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만 적용되고, 어떤 법들은 제사장들(kohanim)과 레위인들(Levites)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오늘날 이스라엘 밖에서도 지켜질 수 있는 계명은 77개

의 ‘~하라’는 계명과 194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을 모두 합해서 총 271개뿐이라고 한다.

십계명 중 처음 네 개의 계명(3-11절)은 선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나머지 여섯 개의 계명(12-17절)은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할 계명이다. 이들 계명은 예수님이 요약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마 22:37-40).

십계명은 먼저 야훼 한분이외에는 다른 신적 존재들을 인정하지 말 것과 경배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십계명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 야훼 한분뿐임을 알려준다. 십계명은 참되신 하나님은 유일신이며, 이 한분이외에 그 어떤 것도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그 무엇도 신(神)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 한분이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자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Marduk)가 혼돈(흑암)과 바닷물의 여신이자 바다의 용인 티아마트(Tiamat)를 비락으로 공격하는 바벨론의 부조(대영 박물관 소장). 마르두크는 티아마트를 죽인 후 반으로 찢겨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티아마트의 자식이자 배우자였던 킨구(Kingu)의 피를 훔쳐 섞어 인간을 빚어 신들이 담당했던 노역을 인간들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신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바벨론 왕은 빛의 신인 마르두크의 형현(계시)으로서 마르두크 신앙의 수호자였다. 이로써 인간은 빛의 왕의 노동자로서 안식이 없고, 약신의 피로 선신이 만든, 선과 악을 함께 물려 받은 존재라는 것이 바벨론 신화에 담긴 세계관과 인간관이다.

야훼 한분만이 참신이란 말은 다른 이름의 모든 신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이 다 신(神)이 아니란 선언이며, 모두가 다, 그것이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이든, 왕이나 군주와 같은 권력자든, 피조물에 불과

언이다.

또 십계명은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제한되거나 그와 같은 형태로 경배 받으실 분이 아님을 교훈한다. 그러기에 그분은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23절)라고 경고하셨다.

십계명은 첫 계명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훈계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

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일일 것이다. 예수님도 “어느 계명이 됩니까?”라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마 22:36-40)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롬 13:10)고 하셨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다.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가졌다는 것, 그분에 대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계명을 가졌다는 것, 야훼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명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가졌다는 것은 당대의 주변국들이 가졌던 수많은 다신사상과 우상숭배에 비취볼 때,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다신사상과 우상숭배에 젖어 사는 현대인들의 삶에 비취볼 때, 그들의 탁월한 영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며,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당대의 주변국들에 비교해서 볼 때 훨씬 앞선 것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 물론 정신적 종교적 발달이 곧바로 물질의 풍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남보다 먼저 깬 사람은 그만큼 남보다 앞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22. 십계명(2)(출 20:1-1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Nebuchadnezzar, 630-562BC). 고대 근동의 스피르스, 창조신 마르두크, 태양신 사마쉬, 수호신 라마수의 얼굴들은, 당대 황제들의 얼굴들로 묘사한 것이다. 황제들은 현신이자 나라의 수호신이였다. 같은 맥락에서 바르도 이집트 최고신의 현신이였을 뿐 아니라 수호신이였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신들의 노역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신들에게 안식을 주는데 있다고 한 바벨론의 창조신화는 인간들이 왕들의 노예이고 그들의 존재 목적이 왕들의 노역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왕들에게 안식을 주는데 있음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11절은 하나님공경에 대한 4개의 계명이 언급된 곳이다. 첫째는 야훼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다. 야훼는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거짓 신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다. 우상이란 참이 아닌 거짓 것을 말한다. 참이신 야훼는 그 어떤 피조물, 영적 존재인 천사이든 육신을 가진 사람이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야훼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릴 수 없다. 그러므로 야훼의 형상으로 제작된 것들은 모두 참이 아닌 우상이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1대 왕 여로보암이 야훼의 발받침이라며 황금송아지(솔로몬성전의 법궤에 해당)를 만들어 단과 벧엘에 세워놓고 2백년 넘게 섬기게 한

것도 명백한 우상숭배행위였다. 셋째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허물과 죄가 많고 오류와 실수투성이인 인간이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으시며 허물과 죄가 없으신 거룩한 야훼의 이름으로 헛되이 또는 거짓되게 맹세하는 것은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안식일을 엄수하라는 계명이다. 고대 근동의 창조신화에서는 마르두크가 인간을 만든 목적을 신들이 담당했던 노역을 인간들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신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고대 근동의 스팅크스, 창조신 마르두크, 태양신 샤마쉬, 수호신 라마수의 얼굴들은, 당대의 황제들의 얼굴들을 묘사한 것이다. 황제는 자기 나라의 수호신이였다. 같은 맥락에서 바로는 이집트 최고신의 현신이였을 뿐 아니라 수호신이였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신들의 노역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신들에게 안식을 주는 데 있다고 한 바벨론의 창조신화는 인간들이 왕들의 노예이고 그들의 존재 목적이 왕들의 노역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왕들에게 안식을 주는데 있음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반면에 8-9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서 당대 주변국들과 큰 대조를 이룬다.

신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이 위기 때에 저술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땅에 대한 희망(Ha-Tikvah)을 품은 이후 대략 3천 8백년의 세월 가운데 4분의 3가량을 떠돌이와 노예처럼 살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 부끄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떠돌이와 노예였다”고 말한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유대인 엘리트들은 그들의 경전에서 그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했는가? 그들의 진단과 처방은 그들의 삶의 치유에 과연 효능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메소포타미아의 신족에 속하는 마르두크(Marduk)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다. 또한 창조신이자 네 개의 날개를 가진 바벨론의 수호신이다.

성경의 대부분은 안팎에서 야기된 위기 때에 진단과 처방을 내린 권면의 글이다. 모세오경에 자주 쓰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나 사복음서에 쓰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대표적인 권면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이 역사가든 예언자들이든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요구한다. 본문 5-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다”는 말씀도 이스라엘이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언약한 계명들을 지켜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 복구되려면 적어도 삼사 대는 걸려야한다는 뜻이다.

문서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모세오경의 기록연대를 추정해 볼 때, 유대교인의 토라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의 위기극복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모세오경의 일부는(J) 통일 이스라엘의 정점



며르보암은 사마리아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단(최북단)과 벳엘(최남단) 두 곳에 금송아지 성소를 세웠다(왕상 12:28). 이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남왕국은 벳엘과 성전이 되고, 북왕국은 금송아지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야훼의 보조인 벳엘이 있었듯이, 단과 벳엘 성소에는 야훼가 서 계신 금송아지가 있었던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에 정착할 무렵의 바알 신앙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알렘'(황소)과 '라메드'(지팡이)로 이뤄졌고, '엘'은 바알의 아버지 신, 곧 'father-Bull'이다.

과 왕국분열로 이어진 다윗과 솔로몬 시대(1100-930 BC)에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 및 왕국분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일부(E)는 야훼신앙의 말살을 획책했던 아합과 이세벨 정권에 맞서 싸운 엘리야, 엘리사, 예후 시대(주전 80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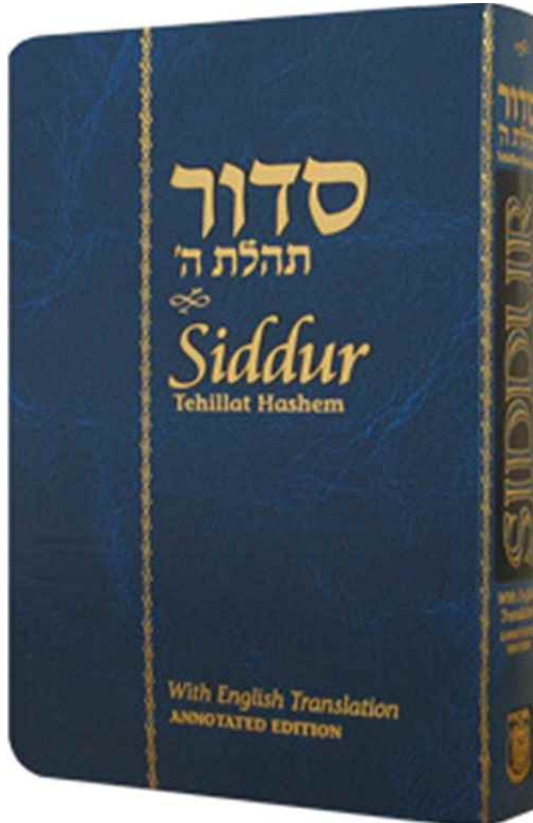
야훼신앙이

모세시대 이후 이스라엘에서 때로는 한강처럼 당당히 때로는 지하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나 북이스라엘 이 황금 송아지를 야훼로 숭배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야훼신앙이 오늘날의 유대교에서처럼 항상 명확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엘'(하나님)이 히브리어 알파벨 알렘(송아지, 힘)과 라메드(지팡이, 권위)로 이뤄진 것에서 알 수 있

듯이, 가나안의 아버지 신(father-god) ‘엘’과 “나는 있는 나다”라고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고 히브리노예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야훼와 자주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그것은 마치 알렉산드로스 이후 헬라시대에 그리스의 제우스(번개)와 이집트의 아몬(산양) 신이 혼합되어 사용된 것과 같다. 또 다른 모세오경의 일부(D)는 요시아시대(640-609 BC)의 종교개혁과 제국 앗시리아의 쇠퇴와 이집트의 북진 및 신흥 바벨론의 등장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에 유다왕국은 강풍 앞에 등불처럼 꺼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또 다른 일부(P)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430-397 BC) 곧 바벨론 유배 이후 고토에 돌아온 사람들이 안팎의 위기와 싸우면서, 비록 페르시아의 속주에 불과했지만, 나라를 세워나가던 힘든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성서학자들은 구약성경이 최종적으로 바벨론유배기(예: 열왕기서)와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예: 역대기서)에 완성되었다고 본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세오경과 구약의 역사서들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다”는 구절이 왜 많은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이스라엘이 왜 오늘날까지 건재한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마치 초기 그리스도교 박해시대에 기록된 복음서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구절이 왜 필요했는지, 극심한 박해로 인해 영원히 사라졌을 그리스도교가 왜 오늘날까지 건재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다.

23. 십계명(3)(출 20: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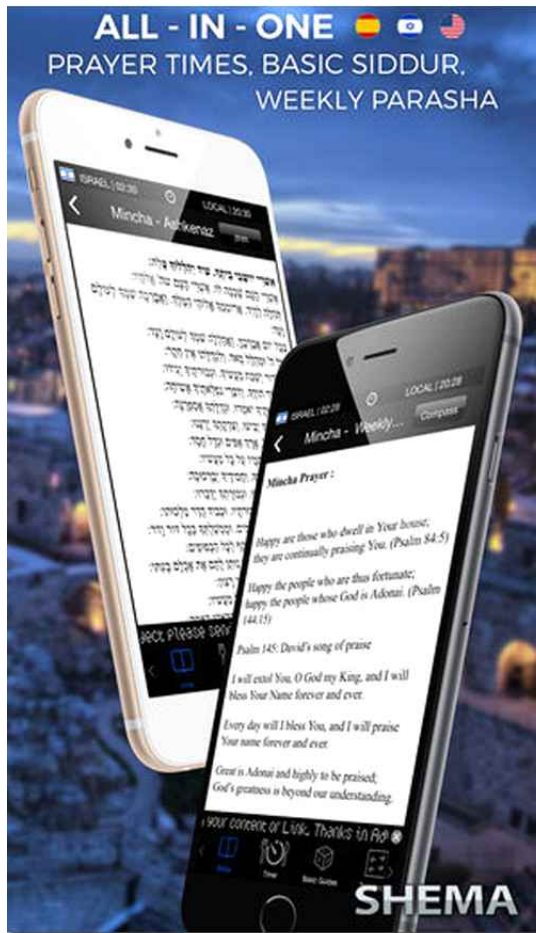


출애굽기 20장 12-17절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개 계명, 곧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실린 곳이다.

18-26절의 핵심은 23-24절로써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다. 제사를 바치는 장소문제는 주전 930년

유대교의 기도서 ‘시두르’(Siddur). ‘Tchillat Hashem’은 문자적으로 ‘그 이름(Hashem)께 바치는 기도들’(Tefillat)이란 뜻으로써 ‘기도서’를 의미한다. 남유다왕국사이에 대립이 심했던 문제였다. 구약성서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남유다왕국의 역대기적 역사가들은 그 장소가 예루살렘 시온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예루살렘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유배된 주전 586년 이후에는 하루 세 번 바치던 성전제사 대신에 하루 세 번 기도회를 갖도록 하였다. 기도회는 가장 1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하였다. 예루살렘성전이 파괴된 지 70년만인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이 기도회 관행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대인공동체들에서 지속되고 있다. 하루 세 번 바치는 기도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berakhot)은 18개(주후 70년 이후 19개)로 구성된 ‘쉐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 “18”, “8+10”) 혹은 ‘아미다’(Amidah, “일어서서”)라 불리는 기도문이다. 이 기도문들 속에는 유대민족의 희망과 기원이 절절히 담겨 있다. 2,500여 년간 다듬어지



유대교인들의 기도 시간, 기도서(깃두르), 54주 파라샤 (모세오경)와 하프타라(구약계간서) 등의 앱이 담긴 스마트폰

고 반복되어진 기도문과 매년 한 차례씩 완독되는 모세오경과 예언서 일부는 수천 년간 대를 이어 유대민족을 치유하고 하나로 묶는 엘리트 랍비들의 처방약이자 상비약이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고, 희망을 잃지 않는 민족, 그 어떤 굴욕과 박해와 시련과 좌절에도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 되었다.

모세오경과 구약역사서들의 저술 또는 최종편집을 주도한 바벨론 유배기 또는 유배이후시대의 유대인 엘리트들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겪었거나 또는 현재에 겪고 있

는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성구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이다. 또 대표적인 표현에는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혹은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 “야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 “야훼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있다. 이 어구는 번역서에 따라서 최고 133번(가톨릭성경) 반복되었고, 창세기에 5번, 출애굽기에 34번, 레위기에 16번, 민수기에 31번, 신명기에 20번, 여호수아서에 12번, 사사기에 1번, 사무엘상에 1번, 사무엘하에 3번, 열왕기상에 3번, 열왕기하에 3번, 역대기상에 4번 쓰였다. 물론 이 숫자는 히브리어원전에 쓰인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토라준수에 집착하는지, 그토록 오랜 기간, 그토록 엄청난 시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주후 70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영토가 사라진지, 무려 1878년 만인 1948년에 고토에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 모세오경과 구약역사서들의 저술 또는 최종편집을 주도한 바벨론 유배기 또는 유배이후시대의 유대인 엘리트들이 불치병과 같았던 자기 민족사에 내린 종교적 진단과 처방이, 적어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민족의 불치병을 치유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엘리트들이 불치병과 같았던 자기 민족사에 내린 종교적 진단과 처방이 율법이 아닌 복음적 관점에서 또는 구약의 관점이 아닌 신약의 관점에서조차,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앓고 있는 불치병과 같은 병폐들을 치유하는데 효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복음주의 구약신학자인 트렘퍼 롱맨 3세(Tremper Longman III)와 같은 이들은 신명기 역사가로 일컬어지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저자는 “왜 우리는 강제 이주민이 되었는가? 왜 우리는 떠돌이와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이스라엘 회중



24시간 금식하는 대속죄일(보통 추석 5일전)이 시작되는 해질 무렵에 유대인들이 회개 기도와 함께 새해(보통 추석 15일전) 유대인들의 새해)에도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인봉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저녁 기도. 유대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이 '시두르'(Siddur)라 불리는 기도서이다. 를 변제(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심(징벌)을 당했다는 것이 신명기 역사가들의 진단이다.

의 죄가 수백 년간 축적된 결과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를 '자연된 응보'라고 하는데, 징벌을 채권추심에 비유한다면, 채무자인 이스라엘 회중이 기한까지 채무(죄)를

여기서 우리는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왜 그렇게 많이 언급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역대기 역사가로 일컬어지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는 유배지에서 고토로 돌아온 동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거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 응보’를 강조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와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혹은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 “야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 “야훼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와 같은 표현들이 왜 많이 언급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자연된 응보’를 말한 신명기 역사가와 ‘즉각적 응보’를 말한 역대기 역사가의 진단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고, 처방 곧 민족이 구원을 얻는 길은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가나안땅은 구원과 안식의 상징이다. 모세오경은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의 떠돌이 역사를 말해준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뿌리와 정체성에 관한 것뿐 아니라, 이 가나안땅을 유업으로 받느냐 혹은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창세기가 인류의 원역사(1-11장)와 떠돌이 족장들(12-36장)과 요셉이야기(37-50장)라면, 출애굽기는 히브리 노예들의 이집트 탈출(1-18장)과 시내산 언약(19-24장) 및 성막건축(25-40장)에 관한 글이다. 레위기는 제사(1-7장), 제사장(8-10장), 정결법(11-16장) 및 정결법전(17-27장)에 관한 글이다. 민수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랑한 이유(1-25장)와 가나안땅에 들어갈 2세대로 이어지는 글이다(26-36장).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두 번째 법'이란 뜻으로써 시내산 율법을 여러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고, 이집트 탈출 2세대인 광야에서 태어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평지에서 행한 설교, 곧 광야에서 죽은 아버지 세대처럼 불순종하지 말라는 권면을 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오경과 구약역사서들의 핵심 강조점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유대인들이 떠돌이와 노예로 살게 된 이유이고,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불치병 곧 떠돌이와 노예상태에서 해방되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는 길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24. 이스라엘의 율법, 노예법(출 21:1-11)



토라(Torah Scroll)

오늘날에 제작되는 두루마리는 유대인들 그룹에 따라 각 단(칼럼)이 42줄(48-56cm) 혹은 51줄(56-60cm)로 작성된다. 아슈케나지 토라는 42줄에 48-50cm, 세파르딕 토라는 42줄에 56cm, 예멘인들의 토라는 51줄에 56-60cm로 작성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총 613개라고 믿는다. 창세기에 3개,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 247개,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 도합 613개가 있다고 믿는다. 중세의 유대인 학자 마이모

니데스(Maimonides)가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율법은 다섯 종류로 되어 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21-23장의 언약법전, 신명기 12-26장의 신명기법전, 레위기 17-26장의 성결법전, 27장의 제사법전이 그것들이다.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언약법전과 신명기법전은 재판과 관련된 행정사항, 자녀양육,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관한 시민법이다. 그리고 성결법전과 제사법전은 종교문제를 다룬 의식법이다. 따라서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구성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계명인 613개 이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랍비들이 제정한 수많은 율타리(구전)법들이 있다.

문제는 이들 율법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으려 한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이 열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근동지방은 고대문명을 이룬 문명사회였다. 나일강을 낀 이집트 문명과 티크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낀 메소포타미아문명은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탄생하기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율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율법들보다 뛰어난 영성을 지니고 있다.

1901-02년에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고대 페르시아의 도시를 발굴하다가 바벨론 왕들의 비석을 발견하였다. 이 기념비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검은 돌로 된 함무라비왕의 법전이였다. 설형 문자로 된 이 법전은 주전 1700년대의 것이었다. 학자들은 함무라비 법전이 번역되었을 때 그 내용이 출애굽기 21-23장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은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의 법전들과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고대근동과 이집트의 법들은 신성을 참칭하거나 현신임을 주장한 왕들이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부과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은 유일신 야훼가 원하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회중이 동의한 언약법이다.

둘째, 함무라비 법전이 재산과 소유물을 인명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긴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들은 인명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도적을 죽이라고 한 반면에 계명들에서는 사람에게 범한 죄만 육체의 상해를



함무라비 법전을 새긴 비석 상부에 복조된 태양신 샤마쉬(Shamash)와 바벨론의 왕 함무라비(수사 루브르박물관). 샤마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태양과 정의와 율법의 신이자 신들과 인간들의 판관신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바벨론의 왕 함무라비(Hammurabi, 1792-1750 BC)가 샤마쉬로부터 법전을 수여받았다고 한다. 보좌에 앉은 샤마쉬가 신성의 상징인 홀과 링(이집트의 양크에 해당)을 함무라비에게 수여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내밀고 있고, 그 앞에 바벨론의 왕 함무라비가 기도하는 자세로 서있다. 샤마쉬의 양 어깨에서 솟아오르는 광선과 머리 두건에 있는 세 쌍의 별은 그가 태양신이자 바벨론의 수호신인 것을 말해준다.

죄 값으로 치르게 하고, 재산과 소유물에 대한 범죄는 돈과 물품으로 짓값을 치르게 한다.

셋째, 함무라비 법전이 판례법인 반면에 모세오경에 실린 613개의 계명들은 필연법인 동시에 언약법이다. 이스라엘은 계명을 지키는 의무를 지닌 계명의 아들들로 구성되며 계명들이 담긴 토라를 일년에 한 차례씩 완독한다.

넷째, 고대 근동과 이집트인들은 별을 피하기위해서 법을 지켜야했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므로써 야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섯째, 고대 근동의 법전은 신분에 따라 형벌의 정도와 종류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은 한분 야훼이외에 만인이 평등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여섯째, 함무라비 법전에는 임신한 여인을 쳐서 죽게 한 경우 가해자의 딸을 사형에 처하는 등 대리처벌에 관한 사례들이 많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들에서는 대리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다(신 24:16).

일곱째, 고대 근동의 법은 형벌이 잔인했다. 범죄의 대가로 신체의 일부, 즉 눈이나 혀, 입술, 손 등이 잘리는 일이 허다했고 거세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반면에 계명들에는 잔혹한 형벌이 거의 없다. 단 신명기법전에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리라고 명령한다(신 25:11-12).

또 계명들에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많다(레 25:35-38, 신 24:20-21).

첫째, 히브리 종을 위한 규례는 안식일에 종들을 쉬게 하라(출 20:10), 종 된지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시키라(출 21:2), 희년에는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레 25:10), 친밀하게 대하라(레 25:40)고 가르친다.

둘째, 나그네를 위한 규례는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출 22:21, 신 24:14), 제 몸처럼 사랑하라(레 19:34), 히브리인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라(레 24:22), 오순절과 초막절을 같이 보내라(신 16:10,14), 미워하지 말라(신 23:7), 추수 때에 나그네를 위하여 곡식을 밭에 남기라(신 24:19), 송사를 공정하게 하라(신 27:19)고 가르친다.

셋째, 품꾼을 위한 규례는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출 20:10, 신 5:14), 품삯은 정한 시간에 주라(레 19:13, 신 24:15),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신 24:14, 잠 22:16), 친절히 대하고 후하게 대하라(욥 31:31), 합당한 보수를 주라(렘 22:13, 말 3:5)고 가르친다.

넷째,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는 이자를 받지 말라(출 22:25), 가난한 자의 저당물을 밤새도록 취하지 말라(출 22:26), 안식년에는 땅의 곡식을 먹게 하라(출 23:11), 형편에 따라 희생 제물을 드리라(레 5:11), 추수 때 곡물을 조금 남기라(레 19:9),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레 19:15), 가난한 자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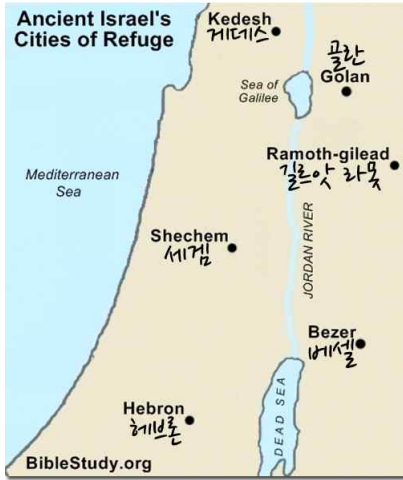
을 팔았을 때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레 25:28), 서원 예물은 형편에 따라 제사장이 정하라(레 27:8), 같은 성읍에 거하는 가난한 자에게 쓸 것을 꾸어 주라(신 15:7-8)고 가르친다.

다섯째,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출 22:22), 매 3년째 십일조를 고아와 과부로 먹게 하라(신 14:28-29, 26:12), 오순절과 초막절을 같이 보내라(신 16:10,14),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신 24:17), 과부의 옷을 저당잡지 말라(신 24:17), 추수 때 남은 곡식 더미를 치우지 말라(신 24:19), 남겨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버려두라(신 24:20-21)고 가르친다.

본문 출애굽기 21장 1-11절은 십계명(20장)을 소개한 직후 다룬 히브리 노예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 드러난 언약법의 큰 특징은 이 땅의 어떤 노예도 영원한 노예가 아니란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노예가 되었다할지라도 남자노예의 경우 6년을 노예로 수고하면 하나님의 안식년인 제7년에는 반드시 값없이 해방되어야 할 것을 명하고 있다(2-6절). 이런 특이한 법은 이스라엘의 언약시민정신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노예에 관한 규례(7-11절)에서도 대개 종으로 팔린 히브리 여성들은 주인의 첩의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남종과는 달리 무기한으로 주인에게 소속되어 그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고대근동세계에서는 여성노예가 자유와 생존권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였다.

십계명 이후에 제일 먼저 노예제도가 언급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시민정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동시에 인간생명의 소유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 인간이 인간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협조하는 만인평등의 세계인 것이다.

25. 이스라엘의 율법, 살인(출 21:12-17)



여섯 곳의 도피 성읍
 서쪽에 세 곳(기디스, 세겜, 헤브론),
 동쪽에 세 곳(골란, 길모앗 라못, 베셀)이
 있었다. 이 여섯 개의 성읍들은 다 레위인들이
 받은 48개의 성읍들 중에 속한 것들이었다.

출애굽기 21장 1-11절이 생명과 인격을 보존하는 노예법 규례였다면, 본문 12-17절은 생명과 인격을 말살하는 사형에 관한 규례이다. 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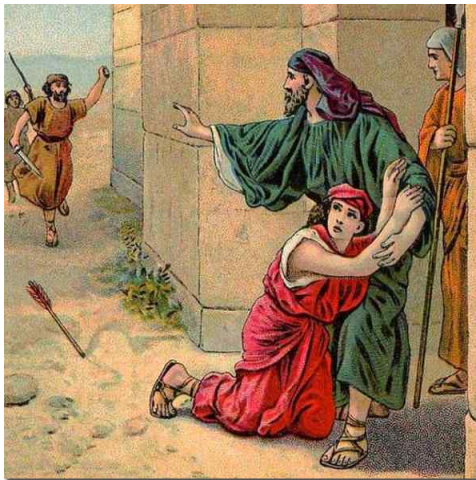
십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네 개의 계명이 나온 후, 인간과 관련된 여섯 개의 계명이 나온다.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간과 관련된 여섯 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들 6부터 10까지의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공경이다. 십계명은 인간과 관련된 여섯 개의 계명 가운데 부모공경을 제일 먼저 언급하였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공경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공경이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공경이고, 거짓증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공경이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약법전은 인간과 관련된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고, 인간과 관련된 모든 악행들보다 가장 나쁜 것이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십계명은 부모공경을 인간과 관련된 여섯 개의 계명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언급하였고, 이에 언약법전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본문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크게 네 가지로 나온다. 타인을 살해한 죄(12-14절), 부모를 때린 죄(15절), 유괴죄(16절),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죄(17절)가 그것들이다. 이 네 가지 사형에 처할 죄들 가운데 절반인 두 가지가 부모에 대한 것이다. 이로 보건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21장의 사형에 관한 언약법전 규례는 인간과 관련된 그 어떤 행위보다 부모공경이 가장 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본문에서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12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살인(13절), 실수로 인한 살인이 있다. 고의적인 살인일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살인과 실수로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여 피의 보복을 피하게 한 성읍이었다. 살인자는 재판에서 실수로 인한 것이 인정되면 도피 성읍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살인한 경우에는 지정된 도피성에 피신하여 '피의 복수자'(고엘하담)로부터 피의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였다. 민수기 35장 11절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다.

모세의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형제도는 악인을 징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다만 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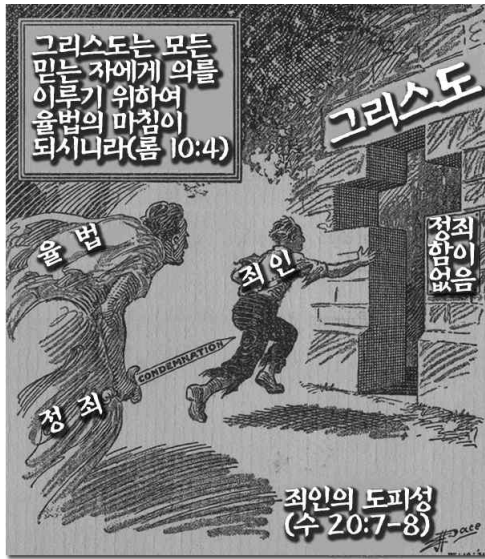
한 처벌을 통해서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며 선량한 백성을 보호하고, 부모 공경심을 높이려는 데 있다.

참고로 모세의 율법에 제시된 형벌의 종류를 보면, 상해의 경우는 동일하게 보상하거나(레 24:19, 신 19:21)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서 40대까지의 태형을 가할 수 있다(신 25:1-3). 그리고 유산을 시키거나 도둑질한 경우와 가축을 죽인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하게 하였고(출 22:1-15), 간음(신 22:21-24)하거나 안식일 법을 어긴 경우(민 15:32-36),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레 20:2)와 주술을 행하는 행위(레 20:27)는 둘로 때려죽이게 하였다. 또 우상숭배자(신 17:1-7)와 피를 보수하는 자의 친척복수의 경우 칼로 죽이고(민 35:19-21), 장모강간과 행음한 제사장의 딸은 화형에 처하게 하였다(레 20:14, 21:9). 그밖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에는 살인, 부모모욕과 부모구타, 신성모독, 안식일 법 어김, 주술, 거짓 선지자, 간음, 음란, 강간, 근친상간, 비정상적 성행위, 유괴, 우상숭배, 거짓 증거가 있다.

사형제도 자체는 매우 잔인한 것이고, 특히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둘로 때려죽이는 것은 매우 야만적 행위이며, 살인이 아닌 부모모욕과 부모구타, 신성모독, 안식일 법 어김, 주술, 거짓 선지자, 간음, 음란, 강간, 근친상간, 비정상적 성행위, 유괴, 우상숭배, 거짓 증거에까지 사형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통치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지만, 구약율법에서의 사형제도는 당대 사회질서실현과 정의구현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원하셨거나 허용하시고 히브리인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언약법전이 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사형제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드린 구약율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이후 1634명이 사형으로 처형되었다. 이 가운데서 1949-50년 국가보안법 사범과 6.25전쟁시절을 제외하면 902명이 사형을 받았다. 1998년 이후부터는 사형 집행이 없었고, 2018년 2월까지 대기 중인 사형수는 61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사

실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 세계 197개국 가운데 법률적 또는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이 165개국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6개국은 사형제도 폐지국이고, 51개국은 실질상 폐지국들이며, 6개국은 특수상황제외 폐지국이고, 2개국은 유지와 폐지 혼용국이다. 사형제도 존치국은 32개국에 불과하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 계명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또 사형제도를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살인과 사형은 다 같이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면서도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들어서 무고한 생명을 끊지 말라는 것이고, 사형제도를 허용하신 것은

국가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 자들에게 응당한 형벌을 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행을 예방하며 억제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백성 개개인에게 주신 계명이고, “사형에 처하라.”는 계명은 국가기관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백성 개개인을 정의의 실천자로 착각하게 되고, 국가를 사랑의 실천기관으로 착각하게 된다. 정의는 국가가 법 앞에서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이뤄야할 책임이고, 사랑은 백성 개개인이 이웃들에게 실천해야할 책임인 것이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인 개개인이 실천할 일이지 국가가 실천할 일이 아니다. 신앙인 개개인은 사랑실현에 힘을 쏟아야하지만, 국가는 정의실현에 힘을 쏟아야 한다. 개인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함부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또한 법에 저촉

된다.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의실현을 핑계로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모세율법시대에는 '고엘하담'이라고 해서 살해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피의 보수자가 되어 보복을 하도록 허락하였지만, 국가의 법이 잘 만들어진 오늘날에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보복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보복은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서 법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법은 국민에게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범죄를 막음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인 것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살인은 인류가 허용할 수 없는 죄"라는 점이 사형제를 통해 명시화 되며, 재판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통한 사형판결과 시행을 통해 개인적인 보복의 악순환을 막을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가피한 조치"가 된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흉악범을 처형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하며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형제도는 "인류의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죄와 악이 실제하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피한 제도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사형수를 죽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복역시키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예수님은 십계명과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이라고 하셨다. 십계명은 우리 신앙인들이 사랑으로 실천해야 할 개인에게 주신 계명이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선량한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범죄억제와 예방에 힘쓰며, 법집행을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의 일을 멈추고 살림의 일에 힘써야 한다.

26. 이스라엘의 율법, 피해보상(출 21:18-36)

상형문자에서 설령(쇄기)문자로

우르크기 (와르카)	젠디트 나스르기 (동음 앞 반) (전음 글자)	고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수메르어음가 의 미
				sag 머리
				šu 손
				ka gu 입, 말하다
				lugal 왕
				lu 사람
				mi 여자
				igi 눈
				anše 당나귀
				šud 소

출애굽기 21

장 1-11절은 생명과 인격을 보존하는 노예법 규례이고, 12-17절은 생명과 인격을 말살하는 사형법 규례이며, 18-36절은 신체상해자와 재산권 침해자에 (33-36절) 대한 처벌법 및 배상법 규례이다. 여기에 그 유명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른바 동태복수법(同態復數法, Lex talionis)이 응용되고 있다. 이 동태복수법은 야훼 하나님을 엄격한 공의성을 보여주지만, 본래 의도는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막자는데 있었다. 본문에 나타난 피해보상에 대한 정신을 보면, 첫째,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한다. 둘째, 직접

復讐法, Lex talionis)이 응용되고 있다. 이 동태복수법은 야훼 하나님을 엄격한 공의성을 보여주지만, 본래 의도는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막자는데 있었다. 본문에 나타난 피해보상에 대한 정신을 보면, 첫째,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한다. 둘째, 직접

적이든 간접적이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자신의 부주나 불성실에 의한 손해라면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 셋째, 생활 중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정의로운 법은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소극적인 자기 관리, 즉 타인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으려는 주의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한다는 정신이다.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법이란 점이 고대근동지방의 다른 나라의 법과 다른 점이였다.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20-23장은 이른바 ‘언약 법전’으로써 법규가 지배적인 내용을 차지한다. 그러면서도 그 법규는 하나님의 복과 보호가 약속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땅에 정착하여 지킬 법이란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 법은 인간의 일상사를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세속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삶이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 부딪칠 때마다 율법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관례법을 적용해왔다. 그 같은 법들은 랍비들이 만든 게자이로트(토라의 율타리), 타카나(랍비들이 제정한 율법), 민하그(관습의 법적지위)와 같은 것들이다.

<p>수메르어 설형(호기)문자</p> <p> <i>tukun - bi</i> 만일 </p> <p> <i>ad - da - na - ra</i> 자식이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p> <p> <i>ad - da - mu na - me - a</i>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p> <p> <i>ba - an - na - an - dug</i> 라고 말할 때에는 </p> <p> <i>dub bin mi - ni</i> 그의 머리를 잡고 </p> <p> <i>rid - a gar - ra - as</i> 노예표지를 </p> <p> <i>mi - ni - in - du - e u ku(-babbar)-ga-as</i> 밭아 그리고 은(銀)을 위해 준다 </p>	<p>이 스 라 엘 의 법 이 고 대 문 명 을 이뤘 던 주 변 국 가 들 의 영 향</p>
--	---

[역문] 만일 자식이 아버지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고 말할 때에는 그 아이의 머리를 잡고 노예 표지를 달아 달아버려도 좋다.

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언약법전의 많은 법규들이 인근 앗수르나 바벨론의 법전과 비교해서 내용과 형식이 많이 유사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삶의 내용이 동일하며 인간의 일상사에서 추구하는 것이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지 구약성경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 등을 차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스라엘의 언약법과 달리 귀족계급의 우위를 전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야훼신앙보다 우선되는 상위법을 만들지 않았다. 귀족에게 유리한 법제정이나 적용을 더더욱 용납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해야 했다. 고대근동세계에서 왕은 현신이었으나 이스라엘에서 왕은 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았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과 율법 앞에서 평민과 동등하였다. 야훼한분 외에 그 누구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대 근동의 법전은 왕이 백성에게 내린 것이지만, 토라는 하나님이 선민에게 내린 언약법전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은 인도적이고, 윤리적이며, 야훼신앙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백성은 세속적 가치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언제나 야훼의 계명대로 살려고 힘썼다.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 Lex talionis)은 신체상해의 경우를 대비한 처벌법이다. 남의 신체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동태복수법은 잔인한 원시법이란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매우 인도적인 법이다. 법이란 것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때가 많다. 따라서 동태복수법은 잔인하기는 하지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 법은 형법이 발달되지 못한 고대국가들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제나 징역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동태복수법은 본문 출애굽기 21장 23-25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세 곳에 언급되었는데, 다른 율법규정이 ‘만일...하면...하라’식의 문체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이곳은 필연법(必然法的) 형식, 곧 ‘반드시...하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이 법이 지배층에게는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힘없는 법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단연코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법이란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정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누구든 인간은 똑같이 귀하게 창조되었으므로, 그 행한 범죄의 대가를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는 근본 원리가 담겼다. 그리고 이 법은 계급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었다. 심지어 짐승과 외국인에게까지도 공평하게 적용되었다(레 24:17-22). 또 모세오경에는 한 군데(신 25:11-12)를 제외하고는 죄인의 신체손상을 처벌내용으로 명시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동태복수법의 근본원리는 감정에 치우쳐 젓값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복의 악순환을 차단하는데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문말씀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 그 처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우연한 사고였을 경우 소는 죽이되 그 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만일 주인의 부주의로 인해 잘 받는 습성을 지닌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 소는 물론이고 그 주인도 사형에

함무라비 법전

준속돌형
195조 -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때렸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상해 및 치사 (196-214조)
196조 -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내버리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빼낸다.
197조 -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피해자의 계급이 낮으면 응보도 적어진다."
198조 -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내버리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 1 ming를 치러야 한다."
199조 - 귀족이 평민의 노예의 눈을 쳐서 내버리게 하였거나 노예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값의 1/2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200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이를 내버렸으면, 그의 이를 내버뜨린다.
201조 - 귀족이 평민의 이를 내버뜨렸으면, 그는 은 1/3 ming를 물어야 한다.
202조 -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인 사람의 뺨을 때렸으면, 민회에서 소가죽 채찍으로 60번 맞는다.
203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인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은 1 ming를 물어야 한다.
204조 - 평민이 평민의 뺨을 때렸으면, 은 10 Shekel을 물어야 한다.
205조 - 사람의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다.

출처: <http://historia.tistory.com/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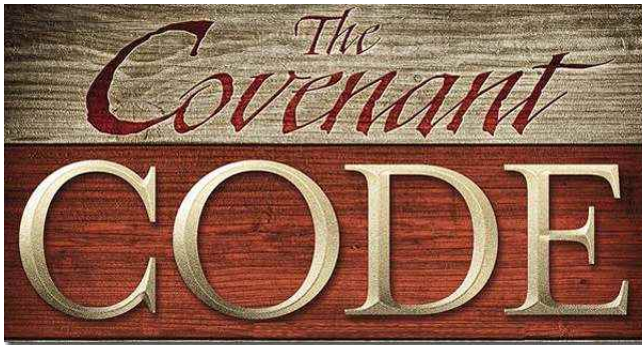
처하도록 정하였다. 하지만 그 주인은 사형대신에 속죄금을 내면 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한 의도가 없는 부주의로 인한 잘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을 들이받은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소에게 받은 인간이 죽음의 고통을 당한 만큼의 고통을 소에게 줌으로써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생명에 대한 피 값을 치러야했기 때문이다(창 9:5). 인간이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에 정한처벌을 받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율법에 정한처벌을 적용함으로써 동물도 율법 아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또 소가 중요한 재산이긴 하지만, 소보다도 인명이 훨씬 존엄하고 고귀하다는 사실(마 16:26)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소가 사람을 죽인 원인이 소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라면 그 소 주인은 사형을 받거나 속죄금을 내도록 했다. 이것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내는 속죄금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속전이었기 때문에 거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돌에 맞아 죽은 소의 고기는 피 흘린 죄를 범한 저주받은 동물로 간주하여(레 24:16; 민 15:35; 신 21:21)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살펴본 율법의 근본정신을 성취하고 승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시다(마 5:17).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단순논리를 초월하여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치셨다(마 5:28-4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태복수법이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마 5:39)는 원수 사랑의 법으로 승화되었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법이 곧 그리스도교의 근본정신이다.

27. 이스라엘의 율법, 절도, 담보, 간음 등에 관한 법(출 22:1-31)



출애굽기 21-23장은 시민법인 언약법전이다. 그밖에 율법에는 도덕법인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시민법인 신명기 12-26장의 신명기법전, 의식법인 레위기 17-26장의 성결법전과 27장의 제사법전이 있다.

출애굽기 21장이 인권과 생명과 재산상의 문제를 취급하였다면, 22장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1-15절)와 우상과 간음 등의 중

요 도덕적 범죄에 관한 규례(16-31절)를 다루고 있다.

출애굽기 21장 23-25절의 동태복수법(Lex talionis)이 신체 상해에 따른 법이었다면, 출애굽기 22장 1-15절은 금전적 손실에 따른 보상법이다. 1-4절은 절도에 관한 법이고, 5-6절은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법이며, 7-13절은 위탁물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의 책임소재에 관한 법이고, 14-15절은 차용해 온 사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의 배상에 관한 법이다. 이들 손해배상법은 대개가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다.

재산상의 손해배상규례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에 관련된 내용이다. 반드시 배상해야 될 경우와 배상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상황과 동기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이웃의 재산에 탐욕을 품는 자는 오히려 더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야훼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람을 판단하실 때 결과나 실

적 또는 걸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과 동기와 상황까지 모든 것을 따져보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야훼께서 노예와 떠돌이였던 자신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 또 '토라'(Torah)로 불리는 오경의 율법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조상들을 탈출시킨 야훼께서 원하시고 조상들이 지키기로 언약한 계명들이다. 이 언약식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지 50일째 되는 날 곧 첫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이뤄졌고, 이 언약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나라가 탄생하였다. 이 계명들이 지켜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켜질 것이고, 이 계명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3세 이상의 남성들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 이 계명들을 지키는 의무자인 '계명의 아들들'이라고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타의 나라들에서처럼 현신인 왕이나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전달된 율법들은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계명들이며 야훼



십계명 돌판을 받는 모세(샤갈, 1952년)
20세기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유대인이었던 샤갈은 모세를 그린 모든 그림에 별 모양의 광채를 그려넣었다.

의 백성이 야훼께서 약속한 나라에서 안식과 질서와 평화를 누리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지킨다. 또 그들은 이 계명들이 실린 모세오경을 매년 한 차례씩 완독한다.

하나님은 육체를 악한 것이고 영혼을 선한 것이라는 이원적 사고와 그에 따라 육체와 영혼이 이원화된 종교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혼과 그 영혼을 담은 그릇인 육체의 순결을 기뻐하신다. 이런 야훼신앙의 정신에서 주어진 법이 16-20절의 말씀이다. 16-17절은 혼인을 빙자한 간음에 관한 법이며, 18-20절은 무당과 수간(獸姦)과 우상숭배에 관한 법이다. 무당 금지와 우상숭배 금지에 관한 규례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는 제1-3계명에 관련된 내용이고, 행음 금지에 관한 규례는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 관련된 내용이다.

행음에 관한 이들 계명들은 엄격한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 같은 악행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창조질서를 모독하기 때문이다. 또 그 같은 악행들은 공동체의 순결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개 신앙인들은 영적 범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육적 나태와 허물에 대해서는 자위하거나 은혜로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육적 허물은 영혼을 쪼먹고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자신과 이웃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16-20절에는 심판받아야 할 자를 준엄하게 꾸짖는 정의의 하나님이 소개된 반면, 21-27절은 힘없고 가난한 자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다. 21절은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 22절은 그 대상, 23-24절은 약자를 학대할 때 받을 보응, 25-27절은 가난한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이스라엘 야훼신앙 공동체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인 부분이다. 야훼 하나님은 경제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와 압제를 철저히 금지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보호와 사랑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원하신다. 이에 반하는 행위 즉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확신한다.

예수님도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고 하셨다(마 25:33-40). 도움이 절실했던

강도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말씀도 하셨다(눅 10:25-37). 마태복음 25장 33-40절을 읽어보자.

[33]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 때에 임금의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할 것이다. [37] 그 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38]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39]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할 것이다. [40] 그 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21-27절에 나오는 약자보호 규정과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물에 관한 규정은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과 신성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체와 영혼의 순결, 정직과 성실과 공의를 요구하는 신성한 계명들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은 거룩한 정신과 경건한 삶이다(레 11:45).

28-31절은 야훼 하나님의 선민국가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종교적 의무가 명시된 부분이다. 이스라엘은 이것의 이행여부에 따라 민족의 흥망성쇠가 좌우되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계명의 아들들’로 불리는 13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요, 그들이 계명들을 의무로 지키는 이유는 단지 개인 또는 가문의 영광을 위함뿐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것에 달렸다고 믿기 때문이다. 구약성서를 기록한 역사가들과 예언자들이



돼지고기는 “찢긴”(부정한, Treyf) 음식의 대표이다. 음식법을 지키는 유대교인들은 유제품과 고기제품을 함께 먹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Treyf, “찢긴”, 출 22:31) 음식으로 간주되는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다.

자기 민족과 나라의 흥망 성쇠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야훼와의 언약 곧 그분의 계명들을 애지중지했느냐, 아니면

헌신짝 버리듯 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었다.

28절은 재판장과 지도자들에 대한 모독 금지, 그리고 29-30절은 자신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헌금에 관한 것이다. 31절은 카샤룻 음식법과 관련된 말씀이다.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찢긴 동물의 고기를” 부정한 음식의 대표로 여겼고, 이로써 정한(kosher) 것과 부정한(treyf) 것과 거룩한(kodesh)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관습이 만들어졌고, 부정한 것(treyf)을 멀리하고, 정한 것(kosher)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한(kodesh) 삶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정하거나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피상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 허례와 허식보다는 영과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28. 이스라엘의 율법, 재판, 안식, 절기 등에 관한 법(출 23:1-33)



바사르(고기)와 할라브(우유)를 섞지 않아야 정한 (Kosher) 음식이라는 그림이며, 아래 영문은 "우리는 지금도 모시아크(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능가를 능히 가늠해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일 년에 한 차례씩 평생 동안 모세오경을 읽는다. 또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613개로 세분해서 지켜왔다.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속한 국가사회법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읽어본 일이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법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지켜왔

출애굽기 23장 1-9절은 법정문제에 관한 규례들이다. 22장이 종교법과 도덕법을 다룬 것이었다면, 본문 1-9절은 일상사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시시비비, 특히 법정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다. 무고와 위증의 금지(1-3절), 적대자의 재산권 보호(4-5절), 공정한 재판(6-9절)을 다루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는 사법부가 공정해야 하며, 개개인은 정의로워야 한다. 만일 사법부가 압제자의 시녀노릇을 한다든지, 재판관과 시민들이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정의와 평화를 결코 기대하지 못할 것이

다.

본문 1-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4-5절이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였고,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무거워서 넘어지면 그것을 도와 그 짐을 풀어 주라고 하였다. 이 말씀들은 원수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뜻보다는 말 못하는 미물일지라도 공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계명이다. 비록 길 잃은 원수의 짐승일지라도 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주인의 재산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 말고도 말 못하는 짐승에게 공휼을 베풀다는 의미가 있다.

아무리 원수의 짐승일지라도 공휼을 베풀어 짐승을 도와주고, 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공휼을 베풀 것에는 공휼을 베푸는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10-19절은 안식년(일)과 절기에 관한 규례들이다. 1-9절이 법정문제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본문 10-19절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과 농경생활을 전제한 종교와 절기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들은 대부분 가나안땅의 이방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야훼신앙을 보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0-11절에는 토지 경작 후 제칠 번째 되는 해에 그 땅을 묵혀둠으로써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소출들을 가난한 자와 들 짐승들이 먹도록 하는 토지 안식년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 안식년 제도는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유대인 특유의 신앙고백이 담겨 있다(레 25:4,23). 12-13절에는 안식일 규례가 소개되어 있고, 15-19절에는 이스라엘의 삼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12-13세 이상의 종교적인 성인이면 누구나 일 년에 세 차례씩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명하고 있다.



색깔로 조리 기구를 구별하고 있는 유대인들
파랑=유제품, 빨강=육류, 초록=그 밖의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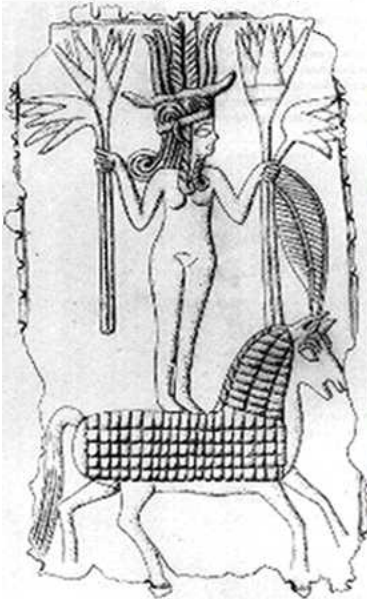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대부분이 하나님과 개인, 하나님과 민족이란 신앙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키신 유월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부활

절에 대한 모형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맥추절이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토라를 수여받아 이스라엘 나라를 출범시킨 날인 오순절은 주후 30년 오순절 날 성령님의 강림과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출범한 것의 모형이며, 수장절은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인 추석과 연관되어 있다. 이들 세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다.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감사,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하셔서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바치는 절기들이다.

11절,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들짐승의 먹을 양식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를 엿볼 수 있고, 또 12절, “너는 옛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쉬는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는 말씀에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엿볼 수 있다. 또 19절,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엿볼 수 있다. 어미의 젖은 새끼를 양육하는 필수조건이다. 그런 젖을 새끼를 삼는데 쓰는 것은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시돈의 에스문 신전에서 발견된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룩의 스프링크스 팔걸이의자와 그녀에게 신전을 봉헌했노라고 기록을 남긴 시돈(레바논)의 왕 에슈무나자르의 석판(루브르 박물관 소장)



라기스에서 발견된 금박에 새겨진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룩과 시돈(레바논)의 주화에 실린 마차를 탄 아스다룩(이스라엘 박물관)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울 수 있게 하고, 새끼나 알은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신명기 22장 6-7절에도 있다. 길을 가다가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미 새와 그 새끼를 혹은 그 어미 새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 새는 놓아주고 새끼나 알만을 취하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라고 했다. 어미 새는 다시 양식으로 삼

으란 것이다. 레위기 22장 28절을 보면 짐승의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한 날에 잡지 말라는 말씀도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함께 생태계의 보존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살필 수 있다. 이것이 또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일일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20-33절은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법도에 관한 말씀이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의 계명에 대한 부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 20-33절은 ‘~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령보다는 권고의 형식을 띠고 있다. 권고하신 내용도 지금까지 언급된 언약법전의 율례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땅에서의 행동지침이다. 곧 지금까지의 광야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분방한 생활에 젖어들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희망과 복을 약속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참사랑의 원천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21-22절)과 성결(24,32-33절)과 헌신(25절)을 전제로 한 조건적인 것이다. 이 전제조건들의 핵심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과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들에게 보호와 인도하심(20절)과 승리(22,23,27절)와 물질의 복과 육신의 복(25절)과 번성(30-31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29. 시내산 언약식(출 24:1-18)



시내산 언약체결식(출 24장)
(John Steeple Davis, 1844-1917)

유대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지 50여 일 째는 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토라, 곧 율법 혹은 계명을 주신 날이라 믿고 이를 기념한

다. 이 날이 칠칠절 혹은 오순절 날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안식일 다음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날을 성령강림일 곧 인류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날로 지킨다.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유대인만큼 철저하게 신(神)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는 않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의 뿌리, 이동, 사상,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만큼 유대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

유대민족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떠돌이와 노예였던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열방 중에서 특별히 뽑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란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는 언약식에 관한 내용이다. 이 언약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

님이 특별히 뽑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잘 못을 설명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또 이 시내산 언약은 구약 성서 39권을 구성하는 핵심내용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교를 탄생시킨 밑거름되기도 하며, 신약성서 27권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출애굽기 24장 1-11절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다. 1-3절은 예비단계로써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의 의사를 묻는 장면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저런 내용으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데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묻는 것이다. 회중은 한 목소리로,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언약을 맺겠습니다.”고 응답한다.

4-8절은 본 단계로써 엄숙한 언약식의 장면이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 곧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기록하고, 언약식 당일 이른 아침에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하였고, 소들을 잡아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인 내장이나 털을 상징적으로 태우고, 살코기는 예배자의 몫으로써 공동체 식사에 사용된다. 본문에서 화목제에 쓰인 쇠고기들은 언약식 마지막 단계인 언약의 식사 때에 사용된다.



시내산의 모세와 히브리인들
(Jean-Léon Gerome, 1824-1904)

언약식의 중요한 단계 가운데 하나는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다. 모세가 소들의 피를 받아 받은 양푼에 담고 받은 제단에

뿌린 다음 기록한 언약서 곧 율법서를 회중에게 읽어준다. 회중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고 응답한다. 그러자 모세가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11절은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9-10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그리고 11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들 사이에 나누는 언약의 식사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고 했다. 고대근동에서는 언약체결 후 그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후에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눴다.

그리고 12-18절은 모세가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 올라 40일 주야를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장면이다.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을 구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말한다. 이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출 19:5-6). 우리는 이것을 ‘선민’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고, 이 시내산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율법을 언약한대로 잘 지켜야 한다.

이 언약의 내용에는 이스라엘 회중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무, 곧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 출애굽기 19장 5-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였고,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였다.

일찍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조상들이 시내산에

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사 24:5) 때문이라고 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렘 22:9)라고 했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기”(렘 11:10)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닌 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렘 31:31-33).



오순절 날의 중요성

- : 시내산에서 언약식이 체결된 날(1446 BC),
- : 히브리인들이 옛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받은 날,
- : 구약교회 곧 문서적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된 날,
- : 예루살렘성전 솔로몬행각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AD 30),
- :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의 내용인 복음을 받은 날,
- : 신약교회 곧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교회(나라)가 탄생된 날.

이 새 언약을 히브리서 저자는 “더 좋은 언약”이라 했고, 예수님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히 7:22) 또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히 8:6)라고

했다. 여기서 옛 것보다 “더 좋은 언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한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은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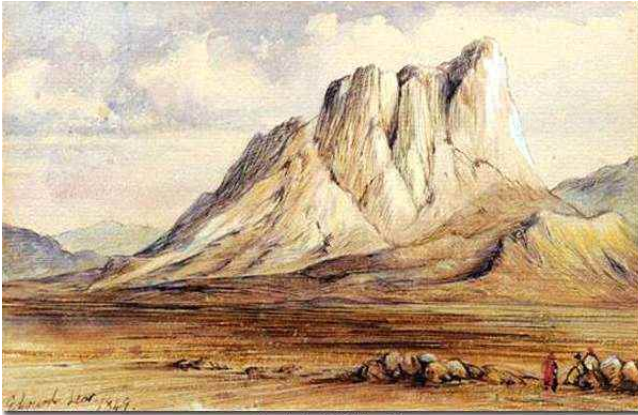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으므로, 주의 만찬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뚜렷하고 바위에 깊이 파 새긴 글처럼 지울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 때문이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심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지킬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언약으로 땅을 주셨기에 비록 그 땅이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일지라도 그 어떤 비옥하고 살기 좋은 나라와도 바꾸기를 원치 않으며, 그 땅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민족의 뿌리와 이동과 사상과 사명을 이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떠돌이였었다는 것, 자기 민족이 노예였었다는 것을 숨기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야훼가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노예였던 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셨고, 떠돌이였던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 공동체와 같지 아니하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공동체가 아닌가? 옛 언약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이 그러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겠는가?

하나님은 한번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개선행진으로 인도하신다.

30. 성막(출 25:1-9)



시내산 (1849년)

Edward Lear (1812-1888, 영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시켜준 것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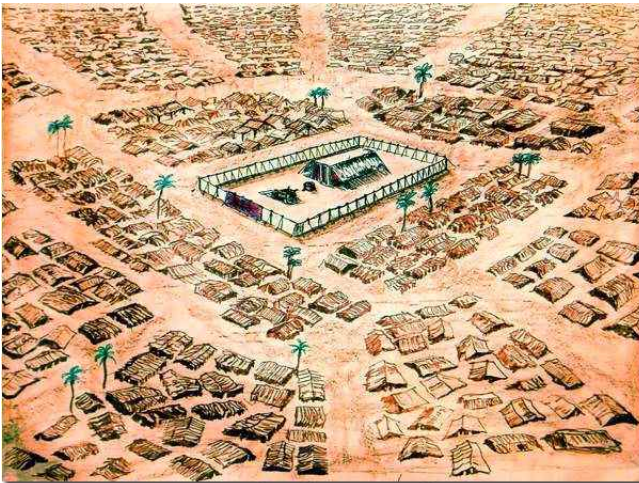
율법(토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체결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다. 이 언약의 내용, 곧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므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 특권을 유지해갈 수 있었다.

성막(미쉬칸)은 이스라엘 회중이 주둔한 중앙지역에 설치한 성소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치유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본문 출애굽기 25장은 이 성막제조에 필요한 재료들과 지성소에 안치될 언약궤와 속죄소, 또 성소에 안치될 떡(진설병) 상과 등잔대(메노라) 제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성막은 하늘보좌방의 상징이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증거궤라 불리는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는 야훼가 언약의 하나님임을 상징하였다. 언약궤 상단의 뚜껑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시은소)였다. 이 속죄소 양 끝에는 각각의 그룹(Cherubim)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

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20절)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22절)고 하셨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였다.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차례 초막절 축일 5일전인 대속죄일(Yom Kippur)에 들어가 백성의 속죄를 상징하는 염소의 피를 뿌렸다. 성막의 내실은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대제사장이 일 년에 단 한 차례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20절을 보면,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라고 했던 것이다.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뜻이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로 나가는 길이 휘장으로 막혔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소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보좌 곧



이스라엘 12부족의 진영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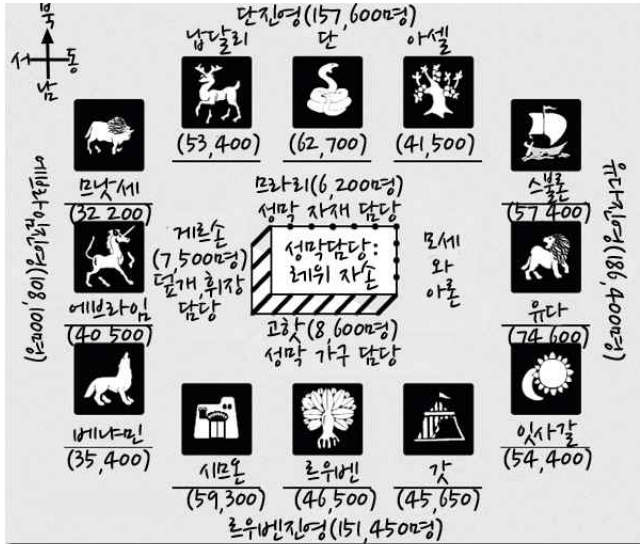
은혜의 보좌에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new and living way)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소휘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예수

님의 몸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혈혈단신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당신의 온몸이 찢기고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싸우셨고, 결국에는 인류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여셨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다. 성막은 광야시대에 조립과 분리와 운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미쉬칸 곧 하나님의 집이었다. 가나안 주거시대에는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바벨론에 망한 후에는 스투바벨이 재건하였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성전증축에 힘쓰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전도 영구히 사라지게 되었고, 성전을 대신하게 된 것이 회당이다. 회당은 바벨론 유배이후 줄곧 지금까지 기도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단 하나만 허용된 반면에 회당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행 1:12)마다에 성인 가장 열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든지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 회당제도에서 나온 것이 기독교 예배당이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당이 유대교의 회당과 다른 점도 있다. 유대교회당이 여전히 성막과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상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가톨릭과 같은 전통교회들이 여전히 성막과 성전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교 예배당은 신성한 성막이나 성전의 개념보다는 평범한 집회소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건물에 두지 아니하고, 구원 받은 성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개 개인의 마음속에 혹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신성한 곳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단 한 곳에만 허용되었던 성전이 회당개념에서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행 1:12)마다에 성인 가장 열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든지 회당을 세우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성막시대 곧 광야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다는 표인 ‘쉐키나’(구름기둥과 불기둥)가 성막 위에 있었다. 쉐키나가 떠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상의 일을 중지하고 자기의 짐을 꾸린 후 쉼기나를 따라 나섰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길을 떠나시기 때문이다.



쉼기나가 길을 떠나면 언약궤가 쉼기나의 뒤를 따랐고, 그 뒤를 백성이 따랐다. 쉼기나는 항상 사흘 길을 앞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 그러다가 쉼기나가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이스라엘 12부족의 진영 배치도 (민 2-3장)

잡으면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 주위 사방에 각 지파 별로 진을 쳤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대와 같이 성막을 호위하며 그곳에서 쉼기나가 떠오를 때까지 진을 치고 거주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성막을 '회막'(meeting tent)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란 뜻이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뤄지는 곳이고, 만남의 광장이었으며, 제사를 바치는 장소였다. 성막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상단 뚜껑에는 하나님의 쉼기나의 영광이 임하여계신 시온소가 있었다. 따라서 성막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다. 예물을 들고 성막으로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기 위함이었다.

성막은 속죄와 치유가 이뤄지는 백성을 위한 장소였다. 죄의 삯은 죽음이다. 죄값을 대신할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백성의 죽음을 대신하게 했던 장소이다. 따라서 성막은 백성을 위한 신

성한 장소요, 백성의 속죄와 치유를 위한 거룩한 장소였다. 죄와 제물을 함께 가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물에 죄를 전가시켜 죽게 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삶을 치유 받게 하는 곳이었다.

오늘날 성막을 대신하는 곳이 예배당이다. 그리스도교 정신은 장소보다는 성도들의 모임에 더 큰 무게를 둔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의 모임이 없다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보통의 장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언약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비좁고 누추한 마구간과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신성한 장소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속죄와 치유가 이뤄지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신성한 성소가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못되는 것, 하나님의 쉼키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없고는 예배당의 크고 작음이나 장엄하고 누추한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예배의 내용과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다.

31. 법궤, 떡상, 등잔대(출 25:10-40)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에 만든 이동 성막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인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 두 개의 방이 있었다. 그 첫 번째 방이 성소인데, 그곳 휘장 앞 중앙에 놓인 분향단과 동쪽 입구에서 바라본 오른쪽에 진설병이라 불리는 떡상 그리고 왼쪽에 34킬로그램의 순금을 두들겨서 만든 등잔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휘장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 부르는데, 그곳에 법궤가 놓여 있었다. 이들 성막의 구성요소들, 특히 성소와 지성소에 놓인 법궤, 떡상, 등잔대가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현존이다.

한편 유대인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건물에 갇힌 느낌을 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현존하신 곳을 성소 또는 지성소라는 특정 장소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성소와 지성소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만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단 하루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전시대에 들어서면, 성소를 둘러싼 뜰들과 담이 접근을 겹겹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성소가 들어선 뜰을 제사장의 뜰이라 하여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고, 그 바깥뜰을 이스라엘의 뜰이라 하여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에게만 허용되었으며, 그 바깥뜰을 여성의 뜰이라 하여 유대인 여성들까지만 허용되었다. 이방인들은 여성의 뜰 바깥에 있는 넓은 이방인의 뜰만 허용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성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영역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성전의 뜰들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종의 차단막, 곧 휘장과 같은 것이었다. 그 차

단막을 없애버린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차단막이 없어져 버린 곳이 기독교예배당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휘장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휘장이 남아 있는 곳이 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휘장이 남아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하나님이 성소에만 계실까? 고대 세계에서 성소는 신들이 머무는 거처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붕괴되고 성전이 훼파되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면서부터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신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막이나 성전 또는 예배당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건물인 것이다. 특히 성막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다. 성막은 거주 개념이 아니라 이동과 만남과 동행의 개념이다. 성막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외경에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위해 이스라엘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백성을 위해서 성소를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마카베오하 5: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믿었고, 성전에 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주셨다. 장소에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인 성전은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대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인 것이다.

법궤(25:10-22)

법궤는 가로 112.5cm, 세로와 높이 각각 67.5cm의 직사각형



법궤(112.5x67.5x67.5cm)

나무상자이다(공부책상 정도의 크기).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펼친 금으로 감쌌다. 네 개의 고리를 부착하여 막대기를 꿰어 운반하기 쉽게 하였다.

이 궤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등으로 불린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곧 언약의 돌비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 속에 십계명이 적힌 돌판 두 개만 있었다. 나중에 하늘의 참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와 그분의 부활과 영원한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함께 담겼다. 상자 뚜껑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로써 양 끝에는 두 그룹천사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고”(20절) 있었다.

진설병상(25:23-30)



진설병상(90x45x67.5cm)

법궤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써 가로 90cm, 세로 45cm, 높이 67.5cm의 상이다. 법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어 펼친 금으로 감쌌다. 법궤와 마찬가지로 운반하기

쉽도록 채와 고리를 달았다.

상 위에는 임재의 빵이 진설되어 있었다. 이 특별한 빵은 안식일마다 향기 나는 ‘기념 예물’로써 유향과 함께 상위에 두 줄로 여섯 개씩 모두 열두 개가 진열되었다. 매주 안식일에 새로

운 것으로 교체되었고, 지난주의 빵은 제사장들이 성막안의 제한된 장소에서 먹었다. 진설병상 위에는 대접, 숟가락, 병, 잔 같은 부속 기구도 갖춰져 있었다.

진설병상은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백성들이 바치는 거룩한 빵을 진열한 곳이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궁극적으로 진설병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으며, 또한 당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써 매순간 우리에게 구원과 힘과 능력을 제공하신다.

등잔대(25:1-40)



성막의 메노라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으며, 살구나무에 꽃이 핀 모습을 형상화했다. 상단에 7개의 등잔을 볼릴 수 있게 만들었다.

등잔대는 활짝 핀 살구나무 줄기에 좌우로 세 개의 가지들이 뻗어 있는 일곱 개 가지 등잔대를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당시에 이 등잔대의 일곱 개 가지 꼭대기들에는 일곱 개의 등잔을 놓게 제작되었다. 그러니까 촛대라 하지 않고 등잔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등잔대는 34킬로그램의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었다. 십계명의 제2계명 때문에 여타의 다른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순금등잔대는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의 중요한 국가적 상징물이 되었다. 특히 주전 605년부터 시작된 바벨론 유배로 더 이상 성전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곳 바벨론에서 회당을 만들어

공동체의 예배와 교육 및 종교재판소로 사용하였는데, 그곳 예배당에 이 등잔대가 유대교의 상징처럼 서게 되었다. 그리고 주후 70년 로마제국의 손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을 갖지 못했고, 그 대신 회당예배로 대신하게 되었는데, 역시 이 등잔대가 중요 상징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고대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방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이방인 개종자나 혹은 이방인 유력자가 이 등잔대를 특별히 제작하여 회당에 기증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만큼 등잔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던 것이다. 그 어떤 형태의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메노라 곧 등잔대는 유대교를 상징할 뿐 아니라, 국가를 상징하는 귀중한 기물이 되었던 것이다. 기독교에 십자가가 있다면 유대교에는 등잔대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유대교 회당에 놓인 등잔대는 '영원한 불꽃'이란 뜻의 '네르 타미드'(ner tamid)라 불린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등잔대의 불꽃을 "열방의 빛이"(사 42:6) 되라는 민족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십자가가 희생을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면, 메노라는 빛을 상징한다.

등잔대는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다. 1956년 영국의회는 벤노 엘칸(Benno Elkan)으로 하여금 제작한 거대한 브론즈 등잔대를 이스라엘 국가에 기증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등잔대를 크네셋트(Knesset)라 불리는 국회의사당 앞뜰에 세운다. 이 등잔대에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29개의 역사 삽화들이 새겨져 있고, 설명문 속에는 "빛의 상징," "희망의 상징,"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란 단어들도 들어 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상징이다(출 40:24). 일곱 개의 등잔에서 나오는 불빛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을 말해주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시 121:4)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깨어계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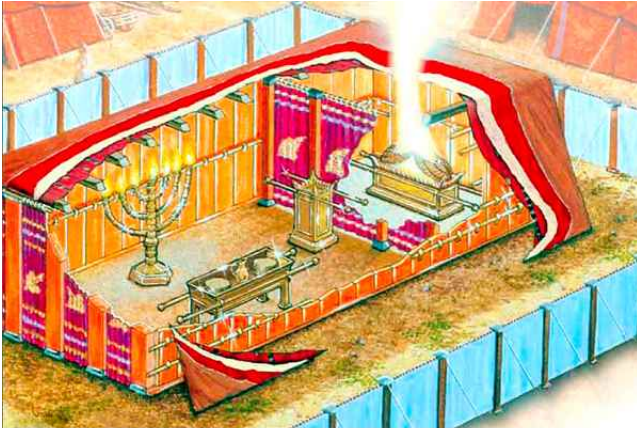
등잔대의 모양은 꼭대기에 놓인 일곱 개의 등잔과 줄기와 가지에 22송이의 살구꽃이 핀 살구나무 형상이다(출 25:33-34). 살구나무는 생명을 약속하며,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일깨워줬던 나무이다(렘 1:11-12).

등잔대는 밤 동안에 성소를 밝혔다(출 27:21). 저녁에 등잔에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끈 다음 심지를 갈고 기름을 새로 넣는다. 스가라서 4장 1-14절에 보면, 순금 등잔대 좌우에 두 올리브나무가 서서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또 10절에서 일곱이 상징하는 바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와 그의 눈이라.”고 하였다. 빛과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나 빛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등잔에 기름을 채워줘야 한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어둠을 밝힐 수 없게 된다.

등잔대가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빛이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빛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열방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 희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 생명을 약속하시고, 소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를 영원히 밝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유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준다.

법궤와 진설병상과 등잔대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격을 말해주는 그림자였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것의 예표인 그림자와 모형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32. 성막의 구조(출 26:1-37)



출애굽기 26장에 설명된 성막의 구조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성막의 외부는 18-19평 정도로서 길이가 30규빗(13.5m), 높이가 10규빗(4.5m), 폭이

10규빗(4.5m)이다. 성막의 길이는 두 벽 높이와 폭을 합한 것과 동일하다. 길이가 30규빗, 두 벽 높이와 폭이 각각 10규빗씩 도합 30규빗이기 때문이다.

입구는 동쪽에 있다. 입구에서 바라본 건너편 지성소 방향이 서쪽, 곧 지중해 방향이고, 오른쪽이 북쪽이며, 왼쪽이 남쪽이다. 입구에서 바라본 오른쪽(북쪽)에 진설병상, 왼쪽(남쪽)에 등잔대,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 지성소 서쪽 끝에 범궤가 놓였다.

성막의 뼈대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 널판 48장이 쓰였다. 각판은 길이가 10규빗(4.5m), 너비가 1.5규빗(67.5cm), 두께가 0.5규빗(22.5cm)이었다. 북쪽 벽과 남쪽 벽에 각각 20개씩 쓰였다. 동쪽 입구는 휘장이기 때문에 널판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편에는 널판 6개와 모서리고정용 널판이 남쪽과 북쪽에 각각 하나씩 첨가돼서 8개가 쓰였다.

성막 덮개 총 23장



-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베 실과 청석 자색 홍색 실로 그 겹을 정교하게 수놓은 털뿔의 휘장을 만들라.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겹을 만들라.
 14절: 붉은 물 들인 솨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다. 각 널판의 지면 쪽에는 두 개씩의 축이 있었고, 그 축을 끼울 수 있는 홈이 파인 은 받침이 있었다. 널판 48개에 축이 2개씩 총 96개였으므로 은 받침도 96개가 필요했다.

48개의 널판을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조각목 지지대가 필요했다. 10규빗(4.5m)짜리 지지대가 남쪽과 북쪽 벽에 각각 9-12개, 서쪽 벽에 3-4개 정도, 총 21-28개 이상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성서는 남쪽, 북쪽, 서쪽에 각각 5개씩 총 15개만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띠의 숫자를 말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만일 이것이 띠를 말한 것이라면, 길이 10규빗 지지대가 35개는 필요했을 것이다.

널판에는 이 지지대들을 꿰 금고리들이 있었다. 고리뿐만 아니라 널판들과 지지대들도 모두 금으로 썼다. 성소 입구에 조각목 기둥 5개, 지성소 입구에 조각목 기둥 4개를 세웠고, 이것들도 모두 금으로 썼다. 기둥 상단에는 휘장을 매달 고리들이 있었다. 성소 입구의 조각목 기둥은 은 받침 위에, 지성소 입구의 조각목 기둥은 은 받침 위에 세워졌다.

성서에는 널판의 두께와 무게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다만 서쪽 안벽이 9규빗 곧 폭 1.5규빗 널판 6개가 필요했던 반면에 바깥쪽이 10규빗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널판의 두께가 0.5규빗 곧 22.5센티미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널판은 높이 4.5미터, 폭 67.5센티미터, 두께 22.5센티미터였으므로

성막의 뼈대는 네 종류의 덮개로 덮였다. 성소와 지성소 내부에 드리워지는 첫 번째 덮개는 베실로 짠 천(양장)으로써 전체 크기가 길이 28규빗(12.6m) x 폭 40규빗(19m), 곧 67-68평 사이였다. 폭 4규빗(1.8m) x 길이 28규빗(12.6m) 크기로 짜인 천 10장을 이어붙인 것이다. 이 천의 길이가 28규빗(12.6m)인 이유는 남쪽과 북쪽 벽을 바닥으로부터 각각 1규빗(45cm)씩 띄워서 덮기 위한 것이었다. 또 폭이 40규빗(19m)인 이유는 성막의 동쪽 입구로부터 서쪽 바닥까지 덮기 위한 것이었다. 성막의 두 벽의 높이와 폭은 총 30규빗(13.5m)이었고, 성막의 길이와 서쪽 벽 높이를 합한 길이는 총 40규빗(18m)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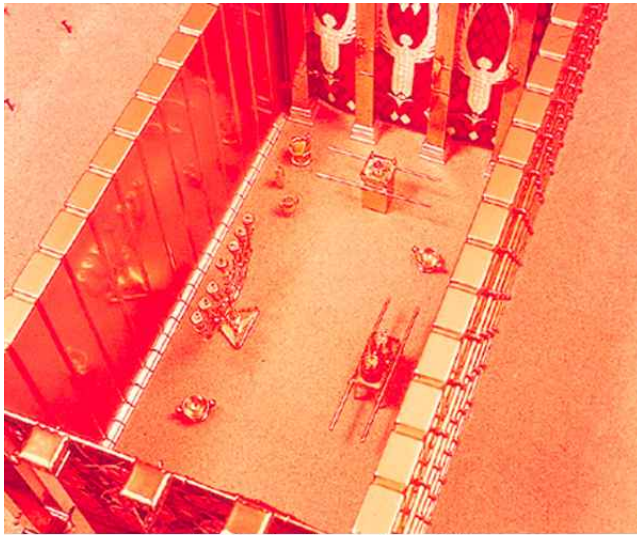
동쪽 입구는 덮지 않았다. 거기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짜인 휘장이 출입문으로 쓰였다. 성막 입구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감싸서 늦 받침 위에 세운 다섯 개의 기둥이 있었고, 그 기둥들 상단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들이 있었다. 휘장은 이 갈고리들에 걸려 드리워졌다.

베실로 짠 천(양장)에는 그룹(케루빔)들이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아져 있었다. 이 천은 금으로 짠 널판 밖으로 덮여지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안의 벽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수놓아진 그룹들은 천정 부분에 들어나 있었다. 그룹이 수놓아진 베실로 짠 천은 먼저 폭 4규빗(1.8m) x 길이 28규빗(12.6m) 크기로 10장이 짜였고, 5장씩 이어 붙여져 폭 20규빗(9m) x 길이 28규빗(12.6m) 크기의 큰 천 두 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큰 천에는 서로 마주 대하는 쪽에 청색 고리가 각각 50개씩 서로 맞닿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룹이 수놓아진 베실로 짠 천(양장)은 금 갈고리 50개로 이들 청색 고리들에 걸어 폭 40규빗(18m) x 길이 28규빗(12.6m), 67-88평 크기로 만들어졌다.

베실로 짠 천(양장)을 덮는 두 번째 천은 염소털에서 실을 뽑아 만들어졌다. 전체 크기는 길이 30규빗(13.5m) x 폭 44규빗(19.8m), 곧 81평 정도였다. 폭 4규빗(1.8m) x 길이 30규빗(13.5m) 크기로 짜인 천 11장을 이어붙인 것이다. 염소털 천의

길이가 30규빗(12.6m)인 이유는 남쪽과 북쪽 벽의 널판 전체를 바닥까지 덮기 위한 것이었다. 또 폭이 44규빗(19.8m)인 이유는 성막의 동쪽 입구로부터 서쪽 바닥까지 덮기 위한 것이었다. 성막의 두 벽의 높이와 폭은 총 30규빗(13.5m)이었고, 성막의 길이와 서쪽 높이를 합한 길이가 총 40규빗(18m)이었다.

염소털실로 짠 천은 폭 4규빗(1.8m) x 길이 30규빗(13.5m) 크기로 11장이 짜였고, 각각 6장과 5장을 이어 붙여 폭 24규빗(10.8m) x 길이 30규빗(13.5m) 크기의 큰 천과 20규빗(9m) x 길이 30규빗(13.5m) 크기의 큰 천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큰 천에는 서로 마주 대하는 쪽에 고리가 각각 50개씩 서로 맞닿게 만들어져 있었다. 염소털실로 짠 천(양장)은 늦 갈고리 50개로 이들 고리들에 걸어 폭 44규빗(19.8m) x 길이 30규빗(13.5m), 곧 81평 크기로 만들어졌다.



성막의 성소 내부. 채루빔의 수동아진 휘장 뒷쪽이 지성소이다. 성소 출입구 왼쪽 편에 금등대, 오른쪽 편에 금판으로 짠 진설병상, 휘장 앞쪽에 금판으로 짠 분향단과 기타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이 염소털실 천으로 성막 전체가 덮이고, 2규빗(0.9m)은 접혀서 성막 전면에, 2규빗은 서쪽 벽 땅에 드리워졌다.

염소털실 천을 덮는 세 번째 천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들을 이어 붙여 염소털실

천의 크기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수양의 가죽 천을 덮는 마지막 윗덮개는 해달의 가죽들을 이어 붙여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막은 총 4 종류의 천으로 덮었다.

성소 입구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짜였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감싸서 은 받침 위에 세운 다섯 개의 기둥들의 갈고리들에 걸려 드리워졌다. 지성소 입구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짜였고, 그 위에 그룹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졌다. 이 휘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감싸서 은 받침 위에 세운 네 개의 기둥들의 갈고리들에 걸려 드리워졌다.

성소에 들어서면 금으로 싼 널판 벽이 남쪽과 북쪽에 보이고, 북쪽에 금으로 싼 진설병상이, 남쪽에 34kg정도의 순금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든 등잔대가 보였다. 그리고 서쪽 지성소 휘장 앞 중앙에 금으로 싼 분향단이 보였다. 성소의 천정에는 베실로 짠 양장이 드리워졌고, 그 위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그룹들이 보였다. 그리고 서편에는 금으로 싼 기둥 네 개가 은 받침 위에 세워져 있고, 그 기둥들에 휘장이 드리워졌는데, 그 위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그룹들이 보였다.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서쪽 벽 중앙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보였고,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보였다. 속죄소 위에는 금덩어리를 두들겨 만든 두 그룹들이 남북으로 서로 마주대하고 날개를 펼친 채, 눈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었다.

지성소도 성소와 마찬가지로 천정과 동편 휘장에 그룹들이 수놓아졌고, 남쪽, 북쪽, 서쪽 벽에는 황금빛 널판들이 보였다. 이것이 출애굽기 26장에 설명된 성막의 구조이다.

33. 성막의 뼈대(출 26:15-30)



성막제조에 쓰인 잇다(Shittah, 잇담의 단수)나무였을 가능성이 높은 '우산가시아카시아'(vachellia tortilis)와 이 나무를 잘라 숲을 만들어 판대하는 모습. 잇담의 종류는 많으나 20여 미터까지 성장하는 '우산가시아카시아'가 높이 4.5m, 너비 67.5cm, 두께 22.5cm나

출애굽기 26장 15-3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막의 뼈대를 살펴보겠다. 먼저 성막의 뼈대를 이룬 널판과 지지대와 진설병상과 언약궤와 같이 성막에 쓰인 대부분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인 조각목 나무에 대해

되는 성막널판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해 보인다. 19세기에 베두인들이 잇담(Shittim)을 잘라 숲을 만들어 이집트에 수출함으로써 잇다가 뾰뾰뾰뾰한 그루적박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모세시대에는 성막널판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잇다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잇다는 광야에서 크기 때문에 조식이 치밀하고 단단하여 각종 도구제작과 바닥재 등에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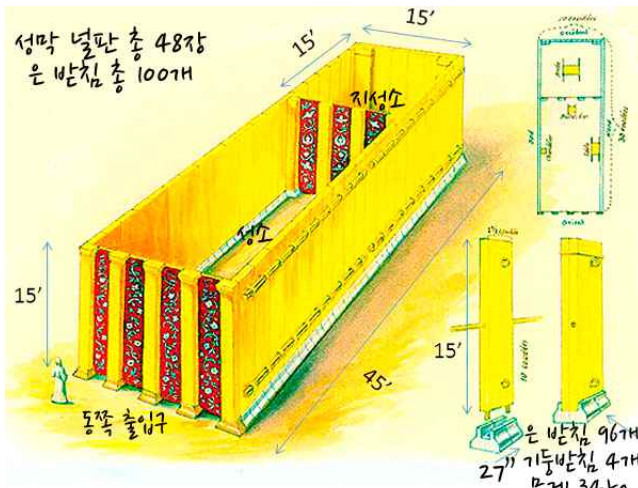
서 살펴보겠다.

조각목은 '잇담나무'로 불린다. '잇담'(shittim)은 '잇다'(shittah)의 복수명사로써 이집트어에서 기인하였다. 조각목은 콩과에 속하고,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가시가 돌아있다. 종류도 다양하다. 성막제조에 쓰인 조각목은 키가 20여 미터까지 자라는 '우산가시아카시아'(vachellia tortilis)였을 가능성이 높다. 높이 4.5m, 너비 67.5cm, 두께 22.5cm나 되는 성막널판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해 보이기 때문이다.

1892년 헨리 스펜서 파머(Henry Spencer Palmer)는 19세기에

베두인들이 조각목들을 잘라 솥을 만들어 이집트에 수출하는 바람에 조각목들이 벌목되어 지금은 뜨문뜨문 한 그루씩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자신이 목격한 바를 전하였다. 사막화의 진행 속도를 감안하다면, 3400여 년 전 모세시대의 조각목들은 지금보다 훨씬 크고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각목은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목질이 치밀하고 단단하여 각종 가구제작과 바닥재 등에 쓰인다. 조각목이 성막건축에 자재로 쓰인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나무가 이 조각목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각목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조각목에서 영적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각목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조각목이 성막의 성구가 되고 금박까지 입힌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또는 구원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널판크기: 넓이 1쿠빗 반(67.5cm), 두께 반쿠빗(22.5cm),
 높이 10쿠빗(4.5m), 성막크기: 너비 30쿠빗(13.5m) x 널판 20장,
 외부 폭 10쿠빗(4.5m), 내부 폭 9쿠빗(4.05m) x 널판 8장,
 성막 공간: 바깥쪽 18-19평, 안쪽 16-17평 정도.

그러나 이 조각목 나무가 신약교회에서 상징하는 바를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생육조건이나 성장위치나 몸에 돌은 가시나 기타 여러 가지 특성

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된다. 광야의 메마르고 거친 환경에서 이리저리 뒤틀리며 자라는 나무라서 귀하게 쓰일 나무가 아닐 듯싶는데 성막건축에 귀하게 쓰인 것은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다. 별 쓸모없을 것 같은 조각목이 하나님의 성막의 뼈대와 성구로 변신되어 황금 빛 광채를 발한 것처럼,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소중한 재료로 쓰이되, 거룩하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 우리 성도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영화롭게 함을 입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성구와 널판과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성막의 크기는 길이가 30규빗, 높이가 10규빗, 폭이 10규빗이다. 한 규빗은 대략 45센티미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성막의 길이는 13.5미터, 폭과 높이가 각각 4.5미터이다. 성막 전체는 18-19평, 실내는 16-17평정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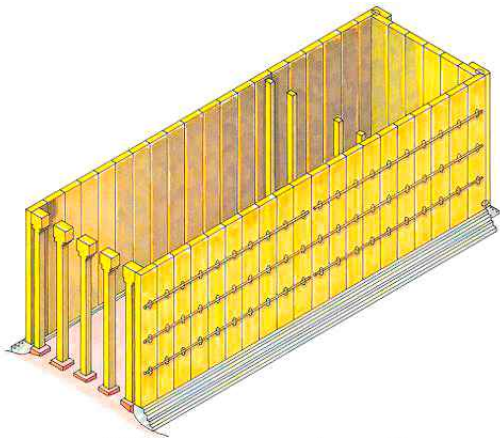
성막의 뼈대로 쓰인 널판의 길이는 성막의 높이와 동일한 10규빗(4.5m)이고, 넓이가 1.5규빗(67.5cm)이다. 성막은 동쪽이 입구이다. 입구에서 바라본 건너편 지성소 방향이 서쪽, 곧 지중해 방향이고, 오른쪽이 유럽방향이며, 왼쪽이 아프리카 방향이다. 입구에서 바라본 오른쪽 유럽방향에 진설병상이 놓이고, 왼쪽 아프리카 방향에 34킬로그램의 순금을 두들겨서 만든 등잔대가 놓인다. 이 등잔대의 현 시세(3.75g x 18만2천원)는 대략 16억 5천만 원 정도이다.

성막의 벽의 길이는 북쪽과 남쪽이 각각 30규빗(13.5m)이다. 1.5규빗(67.5cm)짜리 널판이 각각 20개씩 세워진다. 동쪽 입구는 휘장이기 때문에 널판이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서편 곧 지중해 방향에는 널판 6개와 모서리고정용 널판이 남쪽과 북쪽에 각각 하나씩 첨가돼서 8개가 쓰였다.

성막의 길이는 30규빗이었지만, 폭과 높이는 각각 10규빗(4.5m)이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의 길이가 두 벽의 높이와 폭을 합한 길이와 같다는 것이다. 길이가 30규빗, 두 벽의 높이와 폭

을 합하면 성막의 길이에 해당되는 30규빗이 된다.

널판은 총 48개이다. 널판의 두께와 무게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다. 4.5미터의 높이에 67.5센티미터의 넓이니까 상당한 두께와 무게였을 것으로 느껴진다. 48개의 각각의 널판 하단, 곧 지면 쪽 널판에는 두 개씩의 축을 만들었고, 그 축을 끼울 수 있는 홈이 파인 은받침도 만들었다. 널판 48개에 축이 2개씩 총 96개이니까 은받침도 96개가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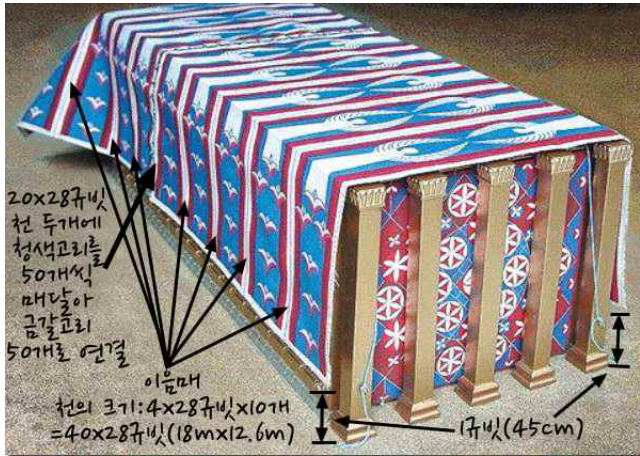
펼친 금으로 짠 성막 널판의 조립
성소의 너비 20규빗, 지성소의 너비 10규빗

48개의 널판을 세우는 데는 15개의 조각목 지지대가 필요했다. 본문에는 남면과 북면 그리고 서면에 각각 5개씩 총 15개의 지지대를 언급하고 있으나 설치 모양과 위치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널판에는 이 지지대들을 펠금고리들이 있었다.

48개의 널판과 15개의 지지대가 모두 펼친 금으로 입혀졌다. 동쪽 성소입구에 세운 기둥 5개와 지성소 입구에 세운 4개의 기둥들도 모두 펼친 금으로 입혀졌다. 조각목으로 짠 성구들도 펼친 금으로 입혀졌다. 성막을 만드는데 들어간 금의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 출애굽기 38장 24절을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이십구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금 한 달란트가 34킬로그램이다. 29달란트이면 986킬로그램에 해당된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이다. 730세겔이면 8.27킬로그램에 해당된다. 성막에 들어간 금의 총량은 994.27킬로그램, 곧 265,138.7돈이 된다. 금 한 돈에 18만2천 원가량으로 보면, 482억 5천5백만 원에 해당된다. 성막에 들어간 은, 놋, 가죽, 천 가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산

출될 것이다. 19평 크기가 채 못 되는 공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성막을 제조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귀한 정성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모실 성막을 제조했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돈의 액수를 보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정성과 희생을 보았으면 한다. 성막에 쓰인 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뼈대를 구성하게 된 아름다운 결과에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된다. 금이란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며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본래 금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금으로 덧입은 존귀한 존재들이 되지 않았는가? 따라서 성막에 쓰인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을 모신 곳의 신성함과 소중함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의 성화와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34. 성막의 양장(출 26:1-14)



널판 뼈대 가장 안쪽에서 덮는 천은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사로 케루빔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든다. 이 천은 금으로 짠 널판 벽 밖으로 덮여지므로 안쪽의 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놓아진 케루빔들은 천정 부분에서 보였을 것이다. 이 천은 4x28규빗(1.8x12.6m) 짜리 10개이다. 한쪽에 5개씩 이어붙여 20x28규빗 천 두 개를 만든다. 이들 천이 서로 맞닿는 가장자리에 청색 고리를 50개씩 양쪽에 만들어 붙이고, 금 갈고리 50개로 연결시킨다. 천의 전체 크기는 40x28규빗(18m x 12.6m)이며, 동쪽 출입문을 4번 나내지 30연과 천정을 덮는다.

성막의 뼈대는 48개의 널판으로 만들어지고, 크기는 19평 미만이다. 여기서 성막 뼈대의 천정과 삼면의 벽을 덮는 양장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려고 한다. 양장은 넓은 천을 말하는데,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천의 길이는 28규빗 12.6미터이다. 성막의 두 개의 벽과 천장의 길이는 총 30규빗 13.5미터이다. 그런데도 길이가 28규빗인 이유는 성막의 두 벽 곧 북쪽 벽과 남쪽 벽을 지면바닥에서 각각 1규빗(45cm)씩 띄워 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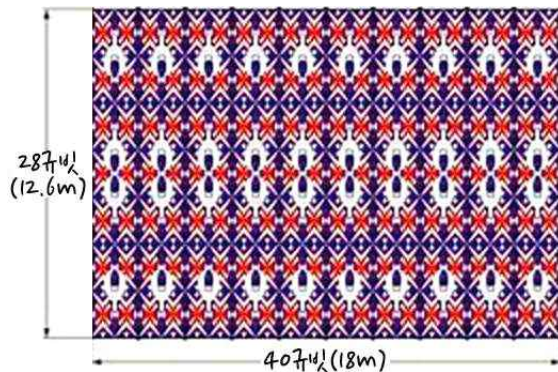
첫 번째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천의 전체 폭은 40규빗 18미터이다. 길이 28규빗, 폭 4규빗짜리 10개를 이어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높이 4.5미터, 너비 13.5m x 4.5m, 외부평수가 18-19평 남짓 되는 널판뼈대를 덮는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천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6미터, 폭 18미터라는 이야기이다. 제일 양장인 이 천의 길이로 성막의 북쪽과 남쪽 벽면을 지상에서 45센티미터 띄워서 덮고, 이 천의 폭으로는 동쪽 출입구 벽면을 뺀 나머지 전체 곧 천정과 서쪽 벽면을 덮는다. 성막의 길이가 3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니까, 40규빗 천의 폭이면 서쪽 벽면의 땅에까지 닿게 덮을 수 있다. 북쪽과 남쪽 면은 45센티미터 띄워서 덮고, 언약 궤가 놓인 서쪽 벽면은 땅에 닿게 덮는 것이다.

동쪽 벽면은 출입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휘장을 만들어 5개의 기둥에 매단다. 이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만든다. 성막 입구에 세우는 5개의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싹 다음에 다섯 개의 못받침 위에 세운다. 그리고 휘장문은 금으로 만든 갈고리에 걸어서 매단다.

널판 뼈대를 가장 안쪽에서 덮는 제일 양장, 곧 천은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케루빔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 만든다. 이 천은 금으로 싹 널판 벽 밖으로 덮여지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안쪽의 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놓아진 케루빔은 천정 부분에 들어나 있었을 것이다.

이 천의 폭은 4x28규빗(1.8x12.6m)짜리 10개이다. 한쪽에 5개씩을 서로 이어대고, 그러면 20규빗(9m) 폭이 된다. 이 20규빗 폭 두 개를 서로 마주 대하는 쪽에 청색 고리를 50개씩 각각 서로 맞닿게 만들어 붙이고, 금 갈고리 50개로 20규빗짜리 곧 9미터짜리 두 개의 천을 양쪽 천의 청색 고리들에 걸어 연결시킨다.



정리를 해보면, 제일 양장은 금으로 싹 널판 벽의 밖으로 덮이지만, 천정은 널판이 없기 때문에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 만든

케루빔들이 천정부분에서 보이도록 만들어 덮고 있는 것이다.

성막을 덮는 두 번째 양장은 염소털로 만든다. 염소털 양장은 제일 양장의 길이보다 2규빗이 더 길다. 성막의 두 벽면의 높이와 폭이 총 30규빗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막의 남쪽과 북쪽을 땅에 닿게 덮을 수 있는 길이이다. 따라서 염소털 천을 덮으면 밖에서는 일체의 널판이 보이지 않게 된다. 제일 양장의 경우, 북쪽과 남쪽 밖에서도 땅에서 한 규빗 높이까지 금으로 짠 널판을 볼 수 있었지만, 이 염소털 양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널판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다.

염소털 천은 그룹이 수놓아진 천보다 길이도 2규빗이나 길뿐 아니라, 폭도 4규빗(1.8m)이 더 길다. 따라서 염소털 천은 폭 4규빗(1.8m)짜리가 총 11개이다. 먼저 6개의 천을 이어붙이고, 절반 폭, 곧 2규빗을 접어서 성막 입구를 덮는다. 그리고 나머지 5개의 천도 서로 이어붙이고, 양쪽이 서로 마주보는 각각의 천에 고리 50개씩 달고, 낫 갈고리 오십 개로 두 개의 천을 양쪽 천의 고리들에 걸어 연결시킨다. 그리고 절반 폭인 2규빗을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 서편 벽 땅에 드리운다.

그리고 나서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염소털의 천을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 덮는다. 총 4겹으로 덮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네 겹의 양장들이 의미하는바 무엇일까? 양장들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일 양장에 쓰인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베실은 각각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낸다. 청색은 생명의 주, 자색은 만왕의 왕, 홍색은 수난의 종, 가는 베실은 부활의 주를 나타낸다.

제이 양장에 쓰인 염소털과 제삼 양장에 쓰인 수양의 가죽은 각각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나타낸다.

제사 양장인 해달의 가죽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겉모습을 나타낸다. 해달의 가죽처럼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삶과 교회의 겉모습은, 2천 년 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이었고, 지

해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잘 것 없는 초라한 것일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약하고 흠모할 것이 없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전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감춰진 비밀인 것이다.



상단에 성막, 양장, 성구, 아론 및 제사장들이,
 하단에 동물 제물들이 프레스코화법으로 그려졌다.
 (주후 245년경, 두라 유르토스 회당의 벽화, 다마스쿠스 국립박물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볼 수 없다. 교회의 참 모습을 볼 수 없다. 성도들의 참 모습

을 볼 수 없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로지 겉모습뿐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2천 년 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꺼리는 것이었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마음이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던 자

들이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자들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올인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귀먹고 어눌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된 사람들이다. '에바다'의 축복, 곧 '열림'의 축복을 받아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벧새다의 소경처럼 앞을 보지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눈이 뜨게 된 사람들이다. '에바다'의 축복, 곧 '열림'의 축복을 받아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다. 열림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귀가 열리는 것이다. 혀가 풀리는 것이다. 그리고 성막의 비밀스런 내막을 속속들이 보고 알듯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복음에 감춰진, 천국에 감춰진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성막 건축에 쓰인 별 볼일 없던 조각목이 금으로 덧입힘을 입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본래 금처럼 존귀한 존재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다.

35. 성막의 성소(출 26:31-37)



바른 코크바(Simon bar Kochba)가 발행한 세겔(AD 132-135) 전면 중앙 상단에 별을 그 밑에 성소 출입구를 출입구 중앙 안쪽에 지성소의 법궤를 좌우에 "Simeon"이라고 새겼다. 뒷면 중앙에 초막절 축제 때 사용하는 플라브와 에트로그를 그 둘레에 "예루살렘의 자유"(to the freedom of Jerusalem)라고 새겼다.

성막은 전체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라 할 수 있다. 성막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또 성

막의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성소는 하늘 보좌방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소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성소문은 다섯 개의 금으로 짠 조각목 기둥과 다섯 개의 놋받침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베실로 짠 휘장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조각목은 죄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인간을, 금으로 짠 조각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놋받침은 십자가의 은혜를, 청색은 생명의 주님을, 자색은 만왕의 주님을, 홍색은 고난의 주님을, 가는 베실은 부활의 주님을 상징한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던 인간은 금같이 연단한 믿음의 옷을 덧입을 때, 광야에서 모세가 세웠던 놋뿔이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였듯이, 성소문 기둥의 놋받침이 상징하는바와 같이 믿음을 보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쳐 세움을 입게 되고, 생명의 주, 만왕의 주, 고난의 주, 부활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한다.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갔는데 입구에서 천국 문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네, 제 이름은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래, 여기 이름이 있구먼. 어서 들어가게나.” 이때 웨슬레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왔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다. “천국에 천주교인은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베드로가 입국자 명단을 살펴보다니, 대답했다.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네.” 웨슬레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성공회 교인은 몇 사람이나 들어왔나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입국자 명단을 살펴보고, 같은 대답을 주었다. “성공회 교인도 없네.” “그러면 장로교 교인은요?”하고 다시 물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다. “장로교 교인도 없다네.” 이 말을 듣자 요한 웨슬레는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면서 물었다. “그러면 감리교 교인만 천국에 들어왔겠네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말했다. “감리교인도 없다네.” 이 말에 웨슬레는 깜짝 놀랐다. “천주교인도, 성공회 교인도, 장로교 교인도, 감리교 교인도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왔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Christians Only!) 왔다네.” 그렇다.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어떤 교파의 이름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 그 교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유명하다해도 교파의 이름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생명의 주님, 만왕의 왕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소휘장도 성소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소문과 다른 것이 있다면, 조각목 기둥이 하나 적은 네 개라는 것과 조각목 기둥 받침이 늦이 아니라 은이란 것이다. 그리고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를 놓은 후에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드리운다.

성소휘장의 의미는 성소문의 의미와 동일하다. 늦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금과 은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



성막 성소 출입구 휘장과 지성소 출입구 휘장의 모습. 지성소 휘장과 널판을 덮는 제양장에 수놓아진 케루빔의 모습은 사람(또는 짐승)의 얼굴과 짐승의 몸체에 세쌍(또는 두쌍)의 날개를 가진 새들이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놓아진 케루빔의 실제 모습은 그림과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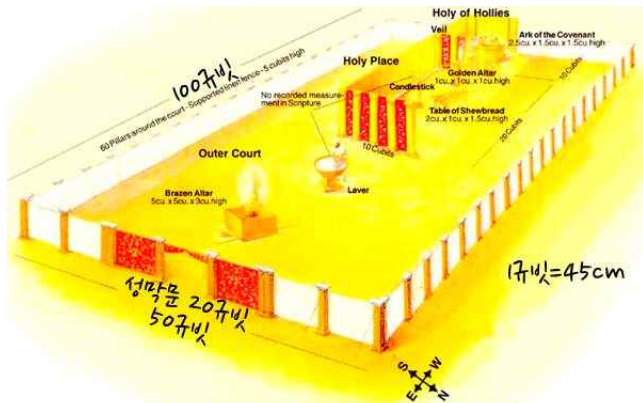
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간격을 없애준다. 성소문이 성도를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문이라면, 성소휘장은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이 일 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그 누구도 성소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 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장벽,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휘장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히브리서 4

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한 말씀 그대로 성소문과 성소휘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막은 전체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라고 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출애굽기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막의 뼈대와 그 내부에 놓이는 성구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다.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48개의 널판, 지지대, 기둥, 진설병상, 분향단, 언약궤 등이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어진다. 이미 살펴봤듯이 조각목은 죄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던 인간을 상징한다. 이 말은 성막을 이루는 뼈대와 그 내부에 놓이는 성구들이 다 인간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다만, 성막에 쓰인 조각목들이 모두 금으로 덧입혀진 것처럼 성막 곧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뼈대들은 모두가 정하심과 택하심을 입고,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구원받고 금으로 덧입혀진 것처럼 성화되고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로 이뤄진 신성한 장소란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22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국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황량한 광야에서 별 쓸모없는 제멋대로 자라는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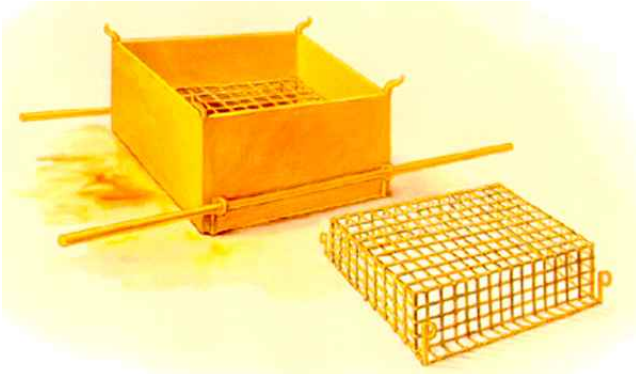
성막 구조와 크기

제사장 뜰의 크기: 너비 100구빗(45m), 폭 50구빗(22.5m),
 울타리 친을 지지하는 기둥 총 60개, 높이 5구빗(2.25m), 출입구
 너비 20구빗, 성소의 크기 20x10(구빗), 지성소의 크기 10x10(구빗),
 법궤의 크기 2.5x1.5x1.5(구빗), 분향단의 크기 1x1x2(구빗),
 진설병 상의 크기 2x1x1.5(구빗), 번제단의 크기 5x5x3(구빗),

각목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성소휘장, 곧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화평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이 소멸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다.

눅받침과 은받침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초위에 세워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별 쓸모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쓰임을 입고, 믿음으로 영화롭게 덧입힘을 받아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벽이 되고, 기둥이 되고, 성구들이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하고 소중한 지체라는 아주 귀중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6장의 내용이다.

36. 번제단과 성막 뜰(출 27:1-21)



출애굽기 27장 1-8절은 번제단에 관한 규정이다. 25-26장은 성막과 그 내부에 관한 것이었지만, 27장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과

놋 제단(출 27:1-8, 38:1-17)
 놋 제단은 운반용 막대기를 뺀 상태에서 제사장의 뜰에 놓였으며, 크기는 5규빗 x 5규빗 x 3규빗(2.25m x 2.25m x 1.35m)이었다. 그에 따른 제사도구들에 관한 것이다. 이 단은 제물을 태워 드리는 단이기 때문에 '번제단'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단'이라 부른다. 그러나 전체를 놋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조각목으로 사방 5규빗(2.25m), 높이 3규빗(1.35m) 크기로 제작한 다음 놋으로 씌운 것이다. 넓이는 1.5~1.6평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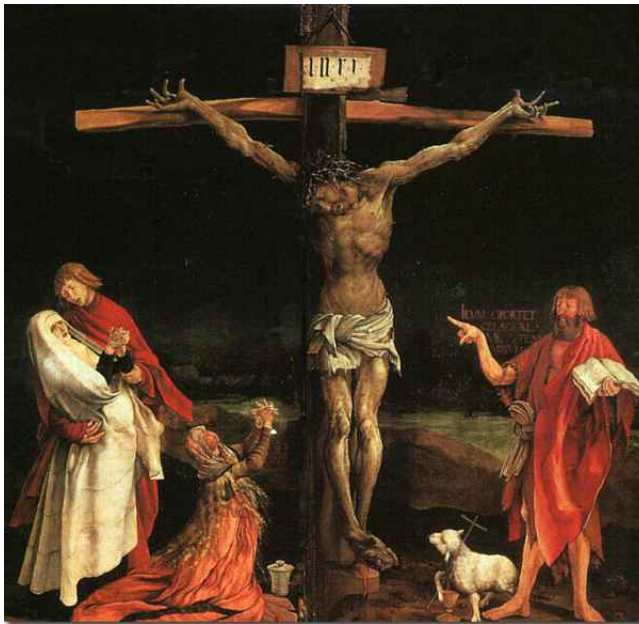
번제단에 필요한 도구들, 곧 재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그물, 고리, 등은 모두 놋으로 만들어졌다. 놋은 십자가를,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한다. 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예물과 감사예물을 바치는 곳이다. 버림받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질 때 비로소 속죄함을 받고 감사할 이유를 갖게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세웠고, 또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죽다가 살아났듯이, 번제단과 그것의 부속기구들을 모두 놋으로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민수기 21장 5-9절을 보면, 백성이 하

나눔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들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세우게 하였다. 8·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조각목은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한다고 했고, 놋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다. 조각목이 놋으로 감싸지듯이 죄를 범한 인간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민수기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세운 것은 고대 근동과 그리스 로마세계에서 뱀은 치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놋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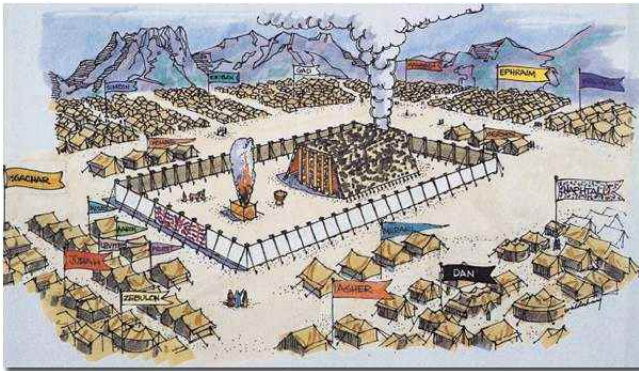
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하임 제단화: 십자가 처형뱀뱀(1515년, 마티아스 그뤼네발트) 우측에 침례 요한이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좌측에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절은 제자 요한이 성모 마리아의 허리를 떠받쳐 주고 있다.

번 제 단 의 네 모퉁이는 뿔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 한다. 고대근동에서는 뿔을 신성과 힘과 권세의 상징으로 여겼다. 레위기 4장 25절을 보면, “제 죄제물의 피

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물을 번제나 화제로 바치기 전에 그 제물의 피를 제단 모퉁이 뿔에 발랐던 것이다(레 4:18). 이 의식은 단을 깨끗케 하는 예식이었다. 레위기 8장 15절을 보면, “모세는 그 수소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고 했고,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고 했다. 희생제사에서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갖는 속죄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제단 뿔을 붙잡고 탄원을 하면 억울한 누명이나 실수로 인해 범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면을 받을 수도 있었다(왕상 1:51). 성도는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예표였던 것이다. 새찬송가 268장에서 잘 표현되었듯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막뜰과 뜰의 크기

성막뜰의 크기는 100x50구빗(45m x 22.5m, 306평)이었고, 세바도 뜰의 크기는 280x5구빗(126m x 2.25m)이었다. 동쪽 출입문의 너비는 20구빗(9m)이었고, 청석 자석 홍석 실과 가늘게 썬 베실로 수동아 짠 휘장이 사용되었다. 은갈고리와 은고리를 단 기둥 60개와 놋반침 60개, 놋말뚝 60개가 사용되었다. 그밖의 기구와 그 말뚝이 놋으로 제조되었다.

27장 9-19 절은 성막 뜰에 관련된 내용이다. 성막뜰의 크기는 남쪽과 북쪽이 각각 100구빗 곧 45미터, 동쪽과 서쪽이 각각 50구빗 곧 22.5미터로써 306평 정도이

다. 울타리는 5규빗 곧 2.25미터 높이로 세마포로 쳤다. 기둥은 5규빗 곧 2.25미터마다 하나씩 세웠고, 각 기둥은 낫받침을 만들어 받쳤다. 그러니까 성막 뜰의 경계를 표시할 울타리를 치는데 2.25미터 기둥 60개, 낫받침 60개, 2.25미터 폭 세마포가 126미터 필요했다. 또 각각의 기둥에는 은갈고리와 은고리와 낫말뚝들을 필요로 했다.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속죄를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회개와 씻음이 이뤄지는 곳이다.

성막문은 동쪽에 하나뿐이었다. 크기는 20규빗 곧 9미터이었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짠 휘장을 쳤다. 문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하나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막 밖의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장소인 거룩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동쪽문 하나뿐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문'이신 예수님뿐임을 강조하는 예표였던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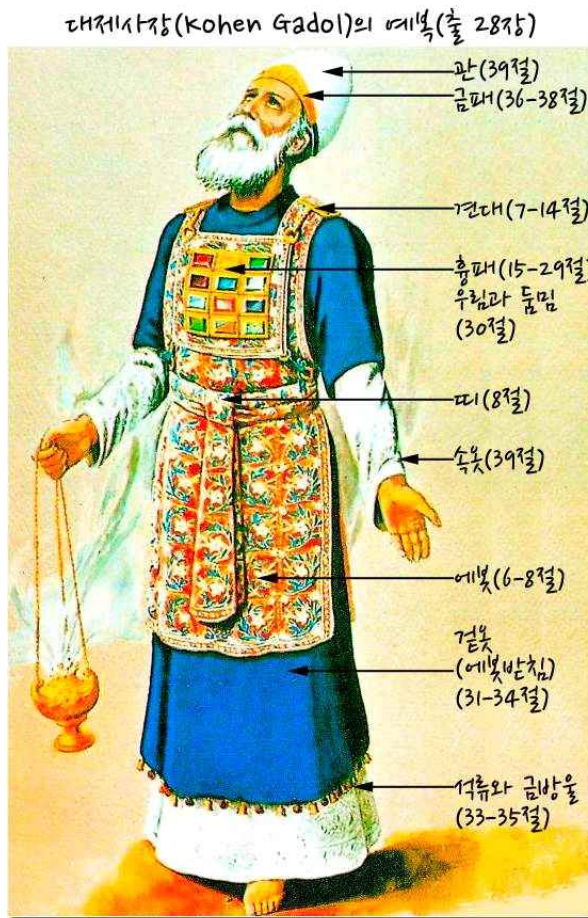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27장 20-21절은 등잔대의 연료 및 그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이처럼 등잔대의 제작 규례와 사용 명령을 따로 구분하여 지시할 만큼 등잔대와 그것의 연료가 되는 기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접의 양장으로 씌워진 성막 안은 밤이면 바깥으로부터 자연광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칠흙 같이 어두웠다. 바로 이곳 성소에 놓인 황금등잔대 위의 일곱 개 등잔에 불을 밝힘으로써 그 내부를 밝게 하며 제사장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처럼 등댓불은 죽은 것 같은 실재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든다. 결국 이 등잔대는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양심과 음란하고 악한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빛을 받아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예표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기름의 재료는 올리브유였다. 지방 함유량이 60퍼센트 이상으로 많은 양의 기름이 추출된다. 올리브유는 질이 좋고 향기가 좋아 고대로부터 향유와 식용유로도 사용되어져왔다. 따라서 올리브유는 성도의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성소를 밝힐 유일한 기름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약시대에는 올리브유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인침’의 표시로 사용되었고, 치유를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올리브유는 성령님의 특성을 상징하는데도 사용되었다. 등잔에 기름이 충분할 때 어둠을 오랫동안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할 때 내 속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어둠도 몰아낼 수 있다.

37. 대제사장의 예복(출 28:1-43)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규례이다. 대제사장의 복장과 그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자.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인간을 엮어 주는 중보의 역할이다. 그 때문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장 뛰어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자 예표였다.

대제사장의 옷은 몇 가지 중요 부분으로 나뉜다. 그 하나하나에 특별한 상징과 의미가 있다.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듯이, 대제사장의 복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모형이다.

먼저 '반포속옷'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옷은 가늘고 하얀 베실로 짠 흰옷이다. 속옷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속옷과 같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평상시 입는 통옷을 말하는 것이다. 이 옷은 가늘고 하얀 베실로 만들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성도들의 죄씻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 옷은 '에봇 받침 겹옷'이다. 이 옷은 에봇 안쪽에 입어서 에봇을 받쳐주기 때문에 '에봇 받침 겹옷'이라 불렀다. 이 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졌다. 청색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세 번째 옷은 '에봇'이다. 이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어졌으며,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이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금실은 믿음, 청색은 생명, 자색은 왕권, 홍색은 십자가의 수난, 가늘게 꼰 베실은 성결을 각각 상징한다.

네 번째, 에봇의 두 어깨띠에 호마노를 각각 매단다. 우편 어깨띠에 매달 호마노에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나이 순서로 여섯 명의 이름이 새겨졌고, 좌편 어깨띠에는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또 각각의 호마노에는 금테를 입혔고, 금테에 금사슬을 달았으며, 금띠로 매달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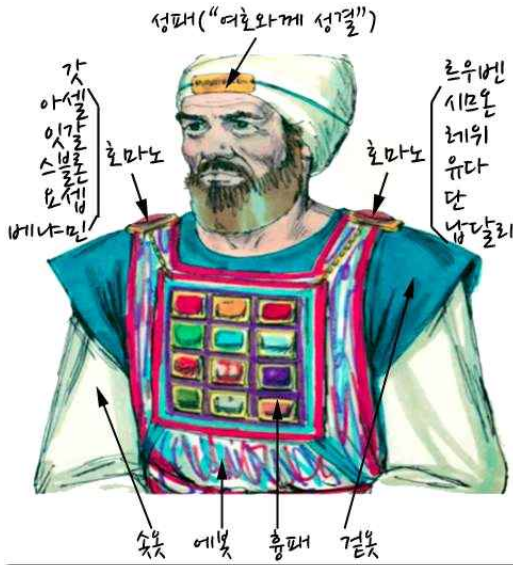
생사가 대제사장의 두 어깨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상징한다.

다섯 번째, 가슴에 ‘판결 흉패’를 매단다. 네모반듯하며 대제사장의 에봇 앞가슴에 매단다.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이 세 개씩 네 줄로 이름이 새겨져 매달려 있었으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하며, 둠밈은 ‘완전’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는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에게로 나아왔다.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 불렀다.

이 흉패는 택한 자기 백성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한다. 가슴은 심장이 있는 곳이고, 마음의 중심이자, 사랑을 의미하는 곳이다. 따라서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석처럼 귀하게 보살핌을 받아 구원과 참 안식을 누린다는 뜻이다. 이것은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상징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별 볼일 없고, 천한 존재일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각종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12가지 보석이 다 다른 것은 사람마다 다 성격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각각의 보석이 다 가치가 다르고, 쓰이는 곳이 다르지만 다 귀하고 소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섯 번째, ‘허리띠’이다. 대제사장의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끈이다. 성결의 상징인 가는 베실로 만든다. 따라서 이 띠는 성결의 띠라 할 수 있고, 겸손과 사랑의 띠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과 관에 매다는 ‘성패’가 있다. 관은 성결을 상징하는 가는 베실로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성패를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 끈으로 매단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결의 능력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상징한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성도들에게 생명과 성결을 주신데서 비롯된 것이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예복이 상징하는바 대제사장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성결케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성패가 말해주듯이, 자신의 성결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성결까지 두 어깨에 짊어진 하나님의 종이였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성결을 위해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붉은 피가 죄를 희게 한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것이다. 피가 천에 떨어지면 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붉어져 더러움을 남기지만, 남을 위한 희생은 오히려 씻음을 준다.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고 숨진 고(故) 이수현씨의 희생정신을 다룬 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가 아키히토 일왕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특별시사회가 열렸다고 한다. 젊은 청년 이수현의 의로운 희생이 많은 수의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 내었다. 그가 흘린 의로운 피한방울 한 방울이 일본인들의 이기

심을 씻어내었다. 일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일본인들의 가슴에 생명의 고귀함을 심어주었다. 마찬가지로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것이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더러움을 씻어내고 있다. 이수현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이들이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 대제사장의 예복이 그렇듯이, 영광과 아름다움이다.

38. 제사의 종류와 방법(출 29:1-37)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와 상번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모두 언급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들 5대 제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사의 종류에는 첫째, 번제(燔祭)가 있다. 번제는 동물희생 제사로서 제물로 바칠 동물을 제단위에 올려놓고 거룩한 불로 모두 태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배자의 심혼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제사방법이다. 제물은 형편에 따라 바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했다. 그것은 이 번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이기 때문이다. 흠이 없는 수컷으로써 예배자가 희생물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킨 후 가죽을 벗기고(진실하지 못한 것을 버린다는 뜻), 각을 뜨고(구별된 삶을 의미), 피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몸체는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번제는 보통 다른 제사와 함께 세트(Set)로 드리게 되는데, 속죄제를 번제와 함께 드리면, 그 속죄제가 하나님께 열납된 것을 최종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구약시대에는 매번 동물로 번제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

둘째, 자원해 드리는 소제(素祭)가 있다. 곡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서 곡물의 가루가 희고 곱다는 뜻에서 소제라고 부른다. 극빈자는 고운가루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다. 특징은 유일하게 피없는 제사란 점이다. 여기서 고운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몸을 상징한다. 성령의 상징인 기름을 넣어, 기도의 상징인 유향과 함께 굽거나 볶았다. 여기에는 부패와 외식을 상징하는 누룩과 향락을 상징하는 꿀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며,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허용되었

다. 이 소제(素祭)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자원해 드리는 화목제(和睦祭)가 있다. 예배자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었다.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데 있다. 화목제는 내장의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 제사장, 이웃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의 제사였다. 국가적으로는 경축일이나 제사장의 성별식, 나실인의 구별의식 때 드려졌고, 개인적으로는 서원이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드려졌다. 화목제는 예배자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다.

넷째, 의무적으로 드리는 속죄제(贖罪祭)가 있다. 속죄제란 범법행위나 죄악을 속(贖)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다. 속죄제의 제물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달랐다.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는 흠이 없는 수송아지, 족장을 위해서는 숫염소, 평민을 위해서는 암염소와 어린양,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 극빈자를 위해서는 고운가루를 드렸다.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켰다.

다섯째, 의무적으로 드리는 속건제(贖愆祭/ 愆:허물 건)가 있다. 하나님 또는 사람에게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함으로써 관계를 정상화하는 제사이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성물에 대한 범죄,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 죄를 지었을 경우, 나병환자가 치료되었을 경우, 부지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드린다. 배상은 5분의 1을 더 제사장에게 바쳤다.

죄는 크게 죄와 허물로 구분된다.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주로 십계명 중 제1-4계명을 범한 것을 말하고, 허물(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을 말하며, 주로 제5-10계명을 범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십계명중 제1-4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주로 이웃과의 관계, 곧 십계명중 제5-10계명에

해당되는 허물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총 613개이고, 그 가운데 248개가 “~하라”는 계명이며, 365개가 “~하지 말라”는 계명이라고 믿고 있다.



포도주에 물을 희석하던 큰 대접(krater)에 그려진 전제. 전제(drink offering)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 놓은 후 번제나 화목제를 바치기 전에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었다(출 29:40-41, 30:9, 레 23:13, 민 15:5).

제사 방법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화제, 요제, 거제와 전제가 있다. 화제(火祭)는 짐승이나 곡식을 불에 태우거나 구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며, 요제(搖祭)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흔들어서 봉헌하는 제사이다. 거제(擧祭)는 제

물을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사방법을 말한다. 전제(奠祭)는 포도주나 술 또는 기름과 피 등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자신을 관제(灌祭)로 드린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전제의 영적 의미가 헌신과 순교라고 해석하였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오늘날까지 유대교에서조차 이들 제사예배는 더 이상 드러지지 않고 있다.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성전이 바벨론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바벨론에 유배되어 갔을 때부터 이미 제사예배대신에 기도문을 암송하는 관례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에도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졌던 제사 횟수만큼 매일 기도문을 암송함으로써 제사를 대신하고 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곧 설날로부터 열흘째날인 ‘욘 키푸르’ 때 짐레 하는 제사를 한 가지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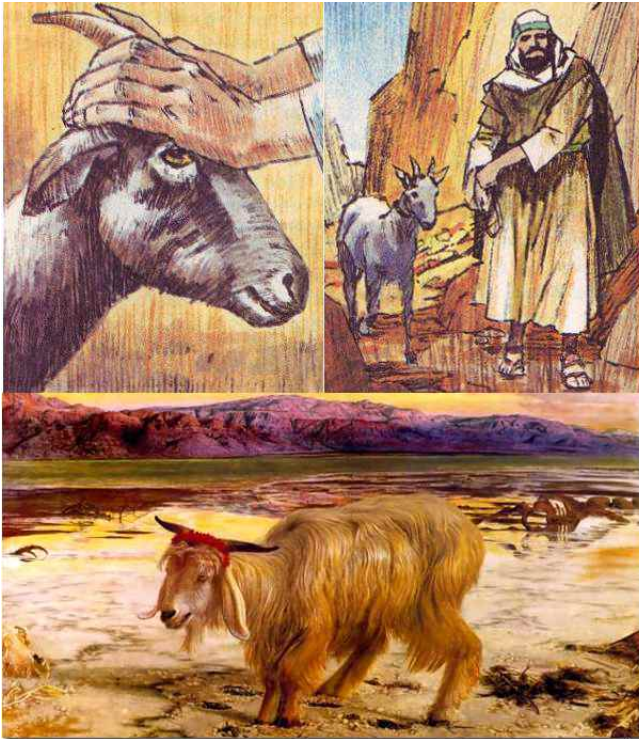


대제사장은 정해진 복식(服飾)에 따라 세마포 고의(속바지)를 입고, 반포 속옷(가는 베실로 짠 통옷)을 입으며, 또한 아랫단에 금방울과 석류방울이 교대로 달린 청색 겹옷을 입는다. 그리고 그 위에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짠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 위에 다시 열두 보석을 수놓은 흉패를 덧대었다. 완전한 복장을 갖춘 대제사장은 속죄제물인 두 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 한 마리를 속죄의 희생 제물로 정하고 다

른 한 마리는 떠나보내기 위하여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정한다.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부터 해야 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단 앞에서 잡고, 그 피를 가지고, 6평 정도 크기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했는데, 지성소 휘장에 들어가기 전에 금향로에 향을 태워 연기를 피운 다음, 그것을 짐승의 피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향을 태운 연기를 가득하게 한 후에 법궤 위에 놓인 속죄소 위와 동편에 짐승의 피를 일곱 번 뿌렸다.

그 다음 지성소를 나온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다시 금향로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와 그 앞에 뿌렸고, 다시 나와서 번제단 앞으로 간 다



음 먼저 잡은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번제단의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그 피를 일곱 번 뿌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렸다. 여기까지 행한 대제사장은 이제 한 마리 남은 염소에게 안수함으로써 이스라

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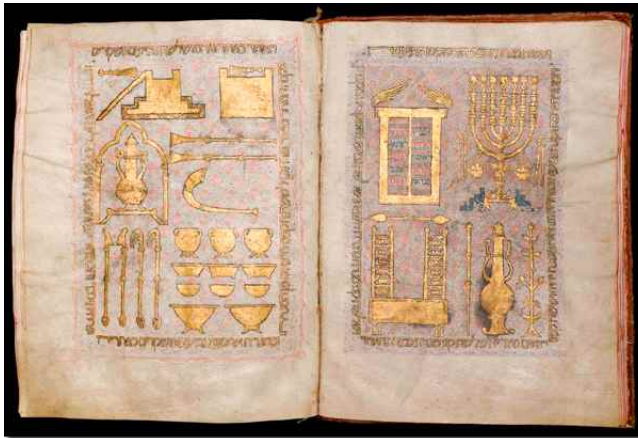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속죄제물인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 제비 뽑아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곧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로 정하고, 다른 한 마리는 떠나보내기 위하여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정한다.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불의와 범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 그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냈다.

후에 아사셀(אֲזַזֵּל, Azazel, scapegoat)을 위하여 그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냈다. 아사셀은 '떠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잘'과 '염소'라는 뜻의 '에즈'가 결합된 단어이며, '(죄의 짐을 지고) 떠나보냄을 받은(떠나는) 염소'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실체였음을 밝힌 반면, 공관복음서들은 '백성을 위한 속죄양'의 실체로 소개하였다.

속죄 제사를 끝낸 대제사장은 이제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열납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번제로서 숫양 한 마리

를 잡아 불에 태워 바쳤으며, 또 백성들을 위한 번제로써 또 한 마리의 숫양을 잡아 불에 태워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를 마쳤다.

39. 하나님임재로써의 성막(출 29:38-46)



히브리어 성서, 카탈로니아(catalonia, 스페인 바르셀로나), 14세기 초반에 템페라(Tempera) 화법으로 양피지에 그린 성막의 집기들. 성막과 그것의 집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구약의 제사는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이뤄졌지만, 그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더욱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약의 속죄제는 근

본이 동물희생 제사였다. 흠이 없는 동물에게 안수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제물에게 상징적으로 전가시킨 후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죽임으로써,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동물이 대신 치르게 하여 죄를 용서받는 상징적 행위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에 의한 완전제사에 대한 그림자였으며, 그리스도교 예배의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이 신약성서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써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짐승의 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공동체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진정하고 영원한 언약공동체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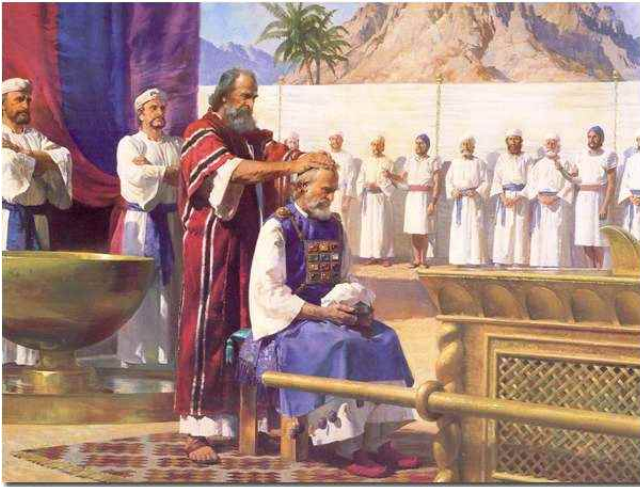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성막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 뚜껑 시은소는 대표적인 하나님임재의 상징이었다. 성막 위로 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임재의 상징

이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성막에서 말하는 임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곧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가 집중된 곳을 말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지시와 양식에 따라 세운 성막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임재 싸인 (sign)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 모세와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동을 충실하게 뒤따랐을 때, 그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그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다. 예수님은 당신을 성전과 동일시하셨다(요 2:19).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깨뜨려지신 육체는 옛 언약에 기초한 지상 성막과 성전을, 영광을 받으신 부활의 육체는 새 언약에 기초한 하늘 성막과 성전을 상징한다. 옛것이 폐지되고 새것으로 대체된 이유, 구약이 신약으로 대체되고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로 대체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상성막은 천국성전의 그림자였으며 모형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어 세운 교회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님의 거처인 천국성전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지상성막이든, 교회이든, 천국성전이든, 성막과 성전이 갖는 중요한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본문 출애굽기 29장 42-46절을 보면, 성막에서 드린 제사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다. 교회는 성막의 실체이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신성한 장소이다.



대제사장의 위임식 삽화

물두멍과 번제단 사이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관유를 바르는 장면. 29장은 바로 이 일군들을 기름 부어 세울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다. 그 일군들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목회자들이다. 각각의 역할이 100퍼센트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같다.

성막에는 하나님과 언약백성을 섬길 일군들, 곧 하나님이 친히 명하시고, 권위를 인정하시고, 뽑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 있다. 출애굽기

제사장 위임식에서 큰 특징은 '기름부음'이다. 기름을 붓는 것은 특별히 뽑아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목적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아무나 할 수 없었다. 아론계열만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사사로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작용을 막을 뿐 아니라, 제사장의 고유한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거룩성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신약시대에는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여 원한다면 누구나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강렬한 소명의식과 받은 사명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을 자들은 희생제물이 될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를 대속키 위한 예비절차였다. 이 의식은 성막 문에서 거행되었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하셨다. 또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을 자들은 성막 문에서 예복을 입고, 기름부음을 받고, 제물을 온전하게 태우고 그 피를 아론과 예복과 그 아들들에게 뿌리는 위임식 절차를 철저히 행하였는데,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절차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다.

위임식을 위한 제물뿐 아니라, 하루에 두 차례씩 제단에 바치는 제물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을 갖는다. 이 제물은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과 아침에 드려졌다. 이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이 제사 대신에 제사를 드려야 할 횟수만큼 기도문을 암송하였다. 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것은 기도회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써 더 이상의 동물제사가 필요 없게 한 지금에는 기도가 더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기도회라 부르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도 유대교인들처럼 기도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으로써 하루를 마감할 때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다.

성막예배뿐 아니라 성막의 집기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만나주신다는 외적인 증거물들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막이나 예배당에서 이뤄지는 예배절차와 양식은 비록 그것들이 외적인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 때문에 성막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여기에 예배의 중요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언약백성과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막은 시내산 언약의 외적인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목적으로 짓게 하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유대민족의 좁은 틀을 벗어나서 보다 넓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목적으로 설계하신 것이다. 유대교는 유대민족만을 위한 것이지만, 교회는 전 세계 민족들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막은 하나님의 궁전과 같았다. 하나님은 이 궁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에는 통치자인 왕이 필요치 않았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서인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

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라디오 채널과 같았다.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통치하셨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앞세워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신 것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새 언약서인 신약성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신약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치하신다. 유대인들이 옛 언약서인 토라를 준수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새 언약서인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과 토라가 있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와 신약성서가 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임재하시고 신약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 살거나 신약성서를 떠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거리밖에 있는 것이다. 혼자서는 그가 비록 신앙인일지라도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모여서 역할을 맡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다.

40. 분향단과 기도(출 30:1-10)



1985년 이스라엘 발행 우표들
좌측 상단부터 법궤, 진설병상, 메노라, 분향단

신에게 향을 태워 제사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성막이나 성전에서뿐 아니라 이집트와 바벨론, 그리스와 로마 등지에서도 시행되던 일반적인 종교 행위였다. 분향단은 향을 사르기 때문에 일명 '향단'으로 불리기도 하고, 정금으로 짚고 해서 '금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막에서의 '향'의 기능은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의 제의와는 달랐다. 성막에서의 향은 타종교에서 처

럼 어떤 신비하고 마술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성별을 의미했으며, 이러한 성별 속에서 이뤄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의미를 두었다.

초대교회이후 그리스도교에서는 향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8세기 이후 가톨릭에서 성직자의 축복의 상징으로 향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배의식이 장엄해지면서 이러한 이교적인 요소들이 가톨릭 예배에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교회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비사도적이고 이교적인 것으로 여겨서 예배 중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성막의 분향단은 조각목 상자에다 펼친 금을 입혀 만들었으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45센티미터, 높이가 90센티미터였다. 운반이 용이하도록 고리와 운반채가 있었고, 운반채를 고리에 끼어놓은 채 성소휘장 앞 중앙에 놓았다(1-6절).

성막 내부, 곧 성소와 지성소에 놓이는 성구들은 모두 펼친 금을 입혔다. 성막 벽인 48개의 널판,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와 속죄소, 성소에 놓인 분향단과 진설병상은 모두 다 조각목 상자에다 펼친 금을 입힌 것들이고, 아몬드 나무형태의 등잔대만이 34킬로그램의 순금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든 것이다. 조각목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금과 은은 믿음을 의미한다.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쓸모없던 죄인들이었지만, 목수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다듬어지고, 귀히 쓰일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의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막의 벽과 기둥도 되고, 성구도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성막 곧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는 것이다. 분향단이 바로 그 거룩한 성구들 가운데 한 가지이다.

분향단에는, 첫째, 상단사면 귀퉁이에 뿔(2절)이 있었는데, 이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신 33:17; 삼상 2:10; 시 18:2). 둘째, 바닥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금으로 싯 것(3절)은 성



지성소 휘장 앞의 분향단
조각목으로 짜서 펼친 금을 입힌다(45x45x90cm).

도의 믿음을 나타내고, 셋째, 성소 휘장 바로 앞 또는 지성소 휘장 뒤편에 놓인 향단(6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넷째, 끊임 없이 향을 피운 것(8절)은 중단 없는 기도를 말하며(시 141:2), 다섯째, 1년에 한 차례씩 향단 뿌을 위해

서 속죄제의 피를 발랐던 것(10절)은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의 속죄피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반복> 한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영을 새롭게 하네<찬미예수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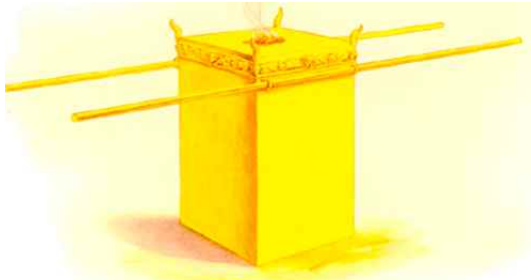
본문은 분향단을 만드는 재료와 사용법을 지시하고 있다.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밝히고 있다(시 141:2, 계 8:3,4).

본문 7-8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켜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분향단의 향불이 꺼져서도 안 되고, 중단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듯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살전 5:17),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중단해서도 안 된다.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 호흡하지 못하면 생명이 끊어지듯이 기도하지 못하면 영혼이 죽는다. 반대로 날마다 영혼의 창을 열어놓고 신령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과 격의 없는 대화의 기도를 나눈다면, 우리의 영혼은 활력으로 넘칠 것이

다(사 40:31).

분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회장 앞에서 드러졌다
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임재의식’
속에서 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펼친 금을 쓴 분향단(45x45x90cm)

본문 9절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
르지 말며, 번제나 소
제를 드리지 말며, 전
제의 술을 붓지 말며”
라고 되어 있다. 이것
은 순종의 기도를 의
미한다고 본다. 하나님

이 34-38절에서 지정하신 향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말며, 분향의
식을 다른 목적으로 행하지 말 것을 교훈한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뤄야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
고 말하는 순종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기
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육체의 정욕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약 4:3).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한
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의 것으로 풍
족하게 채워 주신다(마 6:33).

본문 10절, “아론이 일 년 일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
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 년 일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
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말씀은 향단 뿔에 죄가 오
염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구는 죽어 있는 물건인
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손 씻기법,’ ‘카샤룻 음식법,’ ‘그릇 씻기법’이 있을 뿐 아니
라,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과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
분을 수행하기 전에 물두명의 물로 수족을 씻도록 한 정결법
(17-21절) 등이 있었다. 제사장들은 그 같은 여러 가지 의식법들

을 잘 지켜야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지키지 못한 채 성막에 배치된 성구들을 접촉하게 되면 그 성구들은 부정하게 되고, 쓰기에 부적당한 '트레이프'(treyf)가 된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구로 쓰이기 위해서는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야 의식용에 합당한 '코쉬'(kosher)가 될 수 있었다.

분향단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는 기도의 효력이 인간이 가진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교훈한다.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죄은총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은총의 근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한다(엡 6:18).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3-24)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41. 속전과 물두멍(출 30:11-21)



본 문 의
생명의 속
전은 온역
을 면하기
위한 것이
었다. 온역
이 돌면 죽
음으로 이
어지기 때
문에 온역
을 면한다
는 의미는
죽음을 면
한다는 의

성전세 바칠 때 사용했던 두로(페니키아) 세겔(125BC-AD66)
전면의 두상은 두로의 신 멜카르트(Melqart)로서 헤라클레스에 해당된다.
뒷면의 뱀머리에 얹은 독수리는 지배자의 상징이다. 원둘레에 TYROY
IERAS KAI ASYLOY(신성하고 범접할 수 없는 두로에 의한)이라고
새겼다. 가혹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30세겔이 바로 이 동이다.
두로 세겔은 순도가 높고 무게가 7게명(출 30:13)이 요구한 것에 근접해서
이 동만 성전세로 받았었다. 그러나 유대교지도자들은 동전의 무게(10게라)
에만 치중할 나머지 “무상송배하지 말라”는 1-2게명만을 여기고 있었다.

미라 할 수 있다.

생명의 속전은 출애굽기 13장 13-15절에 나타난 대속의 원리와 같은 맥락이다. 계수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신령한 특권은 그러나 먼저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고 나서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고전 11:27-29).

생명의 속전은 누구나 막론하고 반 세겔이었다. 부자도 반 세겔, 가난한 자도 반 세겔이었다. 모두가 같은 값의 속전을 치른다는 것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데 평등하다는 것을 말한다. 생명의 무게나 생명의 가치는 다 동일하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깡마른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생명의 무게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

세겔은 금은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로써 성소 세겔, 왕실 세겔, 일반 세겔이 있었다. 이 가운데 성소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적게 나가고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두 배에 해당되었다. 왕실에서 쓰는 세겔의 저울추가 일반이나 성소에서보다 더 무거운 것을 사용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일반 세겔의 중량은 대략 11.4그램이었고, 성소 세겔은 이보다 가벼운 9.7그램,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두 배 무게였다.

여기서 우리는 성소 세겔이 일반 세겔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겔의 중량을 가볍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쳐진 반 세겔 4.85그램은 은이었을 것이다. 바쳐진 반 세겔 은은 성막건축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대에 이것은 매년 바치는 성전세로 발전되었다(마 17:24-27). 이스라엘에서 반 세겔은 노동자 이틀 치 품삯에 해당되었다. 예수님께서 은 30개에 팔리신 것은 120테나리온에 팔리신 것이고, 120일 노동자 품삯에 해당되는 가격이었다. 노예의 몸값이 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수님 당시 로마당국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성전세를 허용하였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은 어디에서 살든, 살고 있는 나라에 상관없이 성전세를 예루살렘에 내야했다. 예수님 당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의 인구가 대략 450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 5분의 1만 성전세 납부자로 본다 해도 일 년이면 45만 세겔이 걷히는 셈이다. 은 4365킬로그램에 해당된다.

광야에서의 인구조사에서는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빼 나며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을 계수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먼저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민 1:2,46, 26:2-51, 삼하 24장, 대상 21장)를 세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 제의적인 목적으로 레위인들이 20세에 성막에 들어가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25-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성막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6절, 민 1:2).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신 생명의 속전이였다. 마땅히 우리 자신들이 치러야 할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 치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그 값을 치르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영생활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속전은 우리 예수님의 구속을 위한 영원한 속전의 예표요 모형이었던 것이다.



눅 대야(출 30:17-21, 38:8)
제사장들이 의식을 치르기 전에 수족을 씻을 물을 담아 두는 그릇이었다.
제사장의 뜰 곧 성소와 눅 제단 사이에 놓였다.

눅으로 만든 물두멍은 성소의 뜰, 곧 성소 바깥마당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놓였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이곳에서 수족을 씻어야 했

고,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하나님 앞에 사를 때에도 수족을 씻어야 했다(20절).

이 명령은 성막 내의 다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씻음은 단지 의식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위생에도 아주 중요했다. 광야는 사막이다. 먼지가 많은 곳이다. 또 제단에서 발생하는 도살로 인해서 손발이 짐승의 피나 기름으로 더러워져 있었을 것이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먼지나 피와 같은 더러움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

결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먼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막에 쓰인 놋은 그것이 기둥을 받치는데 쓰인 놋이든, 놋그릇이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리고 물은 침례나 세례를 예표한다. 따라서 놋으로 만든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와 침례 또는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고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또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물두멍의 물로 씻어 죽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침례나 세례를 행위로 간주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을 말씀으로 해석한다. 물두멍의 물이 인류의 죄를 속하기에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결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보혈로 씻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두멍에 자신을 비취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을 말씀으로 해석할만한 나름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행위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살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로 말이다.

침례나 세례를 행위로 볼 필요가 없다. 침례나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서약이요 고백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백과 서약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다. 혼인식에서 서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서약이 없이는 성혼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서약 때문이었다. 침례식이나 세례식이 갖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한 서약식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서약이 없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제단과 성소에 나아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시내산언약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침례식과 세례식 때의 언약을 '신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침례나 세례인 것이다. 베드로전서는 침례식 때의 설교, 곧 침례식 때의 서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다. 고난을 받아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성도들에게 처음 믿고 침례 받을 때의 감격을 회상시키는 말씀인 것이다. 베드로는 3장 21절에서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신구약성서 모두에서 예언자들과 주의 종들이 펼친 활동은 회개운동과 회복운동 두 가지였다. 이 두 운동의 정점이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의 출현은 초림으로써 이스라엘과 성전예배의 문자적 회복의 시점이고,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의 출현은 재림으로써 몸의 부활과 우주회복의 시점이다. 따라서 유대교이든 기독교이든 선교는 이 두 가지 운동 곧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이고, 선교의 완성은 만유회복(apokatastasis panton, 고전 15:27-28)이다.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영혼부활이고, 둘째는 육체부활이다. 영혼부활은 성도 개개인의 구원과 교회회복을 말하고, 육체부활은 성도 개개인의 몸의 회복

과 우주회복을 말한다. 영혼회복과 교회회복은 회개에서 비롯되고, 몸의 회복과 우주회복은 주의 재림으로 성취된다.

그리스도교 선교는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강조하는 다섯 손가락 실천(Five Fingers Exercise), 곧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되며, 천국에 들어가 시민권을 받고 월계관을 받아쓰기까지 성령님의 인침과 보증과 인도함을 받는다는 주장도 회개와 회복이 핵심내용이다. 믿음과 신앙고백이 같고, 회개와 침례가 같다. 신앙고백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침례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을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 같은 행위의 최종적 목적은 회복에 있다.

42. 관유와 향 제작에 관한 규례(출 30:22-38)



예수님 시대의 오일램프

출애굽기 30장 22-33절은 거룩한 기름인 관유의 제작과 사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 관유는 성막과 기물들과 제사장을 성별하는데 사용되었다. 관유는 자연

에서 채취된 기름이 아니라 조제된 기름이었다(23-25절). 올리브유에 향을 적절히 배합하여 정성껏 만든 고가의 기름이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이 기름을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그 기름을 성막 기구들에 발라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셨다(26-29절).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기름을 머리에 발라 거룩히 구별되도록 하셨다(30절). 이 기름을 바른 하나님의 일꾼들은 향기롭고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었다.

또 출애굽기 30장 34-38절은 향 제작에 관한 규례이다. 향 제작방법(34-37절)과 금지규정(38절)을 기록하고 있다. 향은 관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분향단에서 살라져 하나님께 향기를 피워 올리는 목적 외에는 달리 사용되어질 수 없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향은 절대 거룩한 분향단에서 살라질 수 없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질서와 방법과 성별된 내용이 있다.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한 죄가 될 수 있다.

22-33절에 언급된 관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첫째, 관유는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을 상징한다.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신의 권능으로만 나타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축복이 구약시대에는 없던 신약시대만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시대라 부른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만 있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았다.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시작한 것은 주후 30년 오순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하신 때부터이다.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임하셨지만, 이후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셨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덟 번째이자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모습(삼상 16:13). (주후 245년경, 두라 유르포스 회당의 벽화, 다마스쿠스 국립박물관)

둘째, 관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셨음을 상징한다. 관유는 성막과 기물들과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데 사용되었다. 특히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뽑을 경우 선지자가 그들의 머리 위에 올리브유를 부어 임직했다.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으며(삼상 10:1; 16:12;

에 올리브유를 부어 임직했다.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으며(삼상 10:1; 16:12;

왕상 1:45), 사독은 기름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고(대상 29:22), 엘리사는 기름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다(왕상 19:16).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그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특별히 뽑힌 자들은 안수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자들이다.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 자들이다(엡 4:12). 다윗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왕의 직책수행을 위한 권능의 덧입힘을 뜻한다. 다윗의 개인구원과 별개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뽑힌 자들이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봉사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만인제사장 개념에서는 성도들도 모두 주의 일꾼들이다. 그러나 안수례를 받고 전임(專任)하는 일꾼들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관유는 하나님이 뽑으신 자들을 성령님으로 도장 찍으셨음을 상징한다. 또 관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 사실을 성령님으로 보증하셨음을 상징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하였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보증하는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6-17)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바울이 말한 성령의 기름부음에는 차이가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경우는 안수례의 개념으로써 그리스도의 직책을 맡을 자로 뽑히시고 성령님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에서 하신 말씀은 성도들이 구원으로 뽑힘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한 보증과 도장 찍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은 직책수행을 위한 권능의 덧입힘의 뜻이고,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성도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넷째, 관유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와 제사를 바칠 자들을 기록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유를 만들 때 섞는 향료를 최상품으로 쓰도록 명령하셨다(23,24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히 구별돼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조된 관유는 제사에 쓰이는 도구들과 그것들을 사용할 제사장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기록해야 함으로 제사에 쓰이는 각종 제기들은 거룩히 구별된 것들이어야 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

게 하는 일이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예배에 쓰이는 모든 기물과 제기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깨끗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바쳐져야 한다. 여기에는 몸과 마음이 겉과 속이 모두 해당된다. 하나님께 예배하

는 행위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나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한다. 26-29절에서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고 한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나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이는 모든 도구와 장소가 성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성소의 모든 도구들은 그 자체가 거룩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관유가 발라짐으로써 비로소 성스러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대로,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곧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늘 우리 자신들을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로 마음을 모아 드려야 할 것이다.

43. 성막건축자와 안식일 규례(출 31:1-18)



성막 건축의 주역들이인 보살렐과 오홀리압(출 31:1-6)

출애굽기 31장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성막 건축을 주도할 지도자들과 그들을 도울 지혜로운 자들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1-11절).

두 번째 부분은 안식일 규례에 관한 것이며(12-17절),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친필로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 모세에게 주신 내용이다(18절).

출애굽기 31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일꾼들을 특별히 선택하신다는 점,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다는 점이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성막건축과 관련해서 안식일 규례를 다시 언급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인 것을 교훈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31장 1-11절은 성막 건축의 주역에 관한 것이다. 하

나눔은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관계이자 당신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건축과 기물제작을 맡아 책임질 브살렐과 오홀리암 그리고 그들을 도울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셨다(1,2,6절).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히셨다(3-11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덧입히시기 전에도 물론 그들에게는 성막을 지을만한 기술과 재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세속적인 기술과 재능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은 성령님에 감동감화를 받은 사람들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재능일지라도, 성령님의 감동감화가 없는 세속적인 기술과 재능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장인들이 브살렐과 오홀리암이 금을 두들겨서 법궤의 케루빔과 등잔대를 만드는 모습을 그린 삽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한다. 기도의 사람들이 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한다. 겸손의 사람들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를 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1장 12-17절은 안식일 준

수에 관한 명령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명시하시고(20:8-11), 언약 법전에서 신신 당부하신(16:21-30) 안식일 준수를 여기서 다시 강한 어조로 당부하고 계시다. 특히 12-13절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다. 그리고 14-15절은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를 지시한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7절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밝힌 부분이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성막 건축을 앞두고 내려진 것은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동안일지라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중단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확신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좋은 동기와 바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결과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행동의 잣대가 되며, 하나님의 뜻이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지켜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거나 결과가 행동의 잣대가 되거나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나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양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을 주장하는 진화론에 바탕을 둔 세속인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공리주의나 실용주의를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결과가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결과에 상관없이 영광이 된다.

우리 인간들은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기계처럼 주체적인 의식과 능동적인 참여 없이 허례의식에 치우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한 날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구별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감사와 기쁨과 헌신으로 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은 두 개의 돌비에 관한 것이다. 모세에게



메주자(Mezuzah)

쉐마 성구(신 6:4-9, 11:13-21)를 쓴 종이를 넣어 문설주에 부착하는 말씀 상징이다. 세 글자 '샤다이' 또는 한 글자 '신'을 새긴다. 샤다이는 '이스라엘의 문들을 보호하는 자' (Shomer daltot Yisrael)의 머리글자들이다. 샤다이는 '전능자' 혹은 '전능하신 야훼'라는 뜻이기도하다(창 28:3).

시내 산 등반을 명하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24:12)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친필로 쓴 돌비 두 개를 모세에게 건네시는 장면이다. 유대인들은 이 돌비를 언약궤에 넣어 지성소에 보관하였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회당에 법궤를 만들어 성서두루마리를 보관해 왔다. 유대인들은

돌비에 쓰인 십계명 이외에도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지키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미츠보트)을 613개로 보고 있고, 그 가운데 248개를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으로, 365개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613개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랍비들이 수없이 많은 율타리 법(게자이로트)을 만들어 지키게 하고 있다. 이들 법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척도요, 잣대요, 저울이며, 신앙과 윤리와 도덕과 생활의 규정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바이블이다. 그들은 이들 계명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몸에 붙이고(트필린) 문설주에 매달아(메주자) 입을 맞추며 꿀송이처럼 사모하여 읽고, 매년 한 차례씩 완독을 한다.

결론으로 출애굽기 31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하여 일군을 택하여 쓰신다는 것이다(2,6절). 하나님의 의지에는 목적의지란

것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실 때에는 그 누구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으신다.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일군을 택하실 때에도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의견을 묻지 않으신다. 우주만물을 만드실 때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셨다. 바울을 택하실 때에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할 일은 오로지 순종뿐이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셨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행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는 일이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군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허히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일군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신다는 것이다(3,6절). 앞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일을 맡은 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히셨다(3-11절). 인간의 재능만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군들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12-17절).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을 잘 성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급할수록 돌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기본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가까운 길도 멀리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44.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를 중죄로 다룬 이유(출 31:12-17)

출애굽기 31장 14-15절과 35장 2절에는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를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간주하고 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와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되어있다. 이 밖에도 모세오경에는 신성모독, 성소 또는 성직침입, 살인, 유괴, 부모저주, 강간, 간음, 수간, 접신 등이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로 취급되고 있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가 또 다른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로 간주되고 있어서 충격적이다. 오늘날에는 엽기적 살인자조차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사형제 폐지론이 지배적이어서,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 613개 토라계명들 가운데 사형시켜야 할 만큼 큰 죄로 간주될만한 죄는 거의 없다. 하물며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를 사형에 처하라는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토라에서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를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로 다룬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특히 이 안식일준수 계명을 성막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31장과 35장에서 두 번 반복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성막건축을 이스라엘건국과 동일시했다는 점이다. 안식일 준수가 성막건축으로 묘사된 이스라엘건국 또는 이스라엘의 생사가 걸린 사안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의 범주를 39가지 성막건축공정에서 찾았고, 이스라엘건국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일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성막이나 성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본다. 또 이스라엘은 그 우주의 배꼽이라는 점에서 성막건축은 이스라엘건설에 맞물려있다.

안식일준수는 흩어진 떠돌이와 노예들인 유대인들을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함께 모이게 하고, 민족의 믿음과 희망의 끈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 그들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였다.

유대교인들에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오늘날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출 20:8)는 계명대로 안식일을 ‘기억하기’(Zakhor) 위함이고, 둘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신 5:12)는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기’(Shamor) 위함인데, 특히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여 창조의 일(Melachah)을 중단하고 노예와 유배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제2, 제3으로 이어지는 해방, 곧 이스라엘의 희망(Ha-Tikvah)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이로써 우리는 적어도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가 사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유대인들의 삶은 항상 전시와 같았다는 점이다. 전시에는 상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하고, 만일 불복종할 시에는 사살시킬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전시법은 부대원들의 생존뿐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에 자주 처해있었다. 그 원형이 출애굽사건이고 땅과 나라를 얻기 위한 투쟁이 멈춘 적이 없다. 이처럼 모세오경은 백성이 한 사람처럼 단결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했던 생존을 위한 투쟁이 극심했던 상황들에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3천년이 넘게 지속되어왔다.

그리고 출애굽직후 광야에서 펼쳐졌던 이야기는 일 년에 한 차례씩 모세오경을 완독하던 유대인들, 특히 바벨론유배에서 조상들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또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유배(광야)생활을 지속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선포이후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고토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방인들의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바벨론(페르시아)탈출 세대가 고토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그들보다 900여 년 먼저 이집트탈출 세대가 광야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뒤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2500년 후에도 상황은 동일했다. 그러므로 떠돌이와 노예들인 조상들이 극한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웅적 광야시대의 이야기는 수천 년에 걸쳐 제2, 제3, 제4, 제5의 떠돌이 광야시대를 살아야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희망'(Ha-Tikvah) 자체였다.

전시법과 같은 토라 모세오경과 613개의 계명들은, 비록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조차도 죽은 법으로 여기는 것들이 수백여 개나 되지만, 유대인들이 역사의 뒀안길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게 된 원동력이다.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수천 년에 걸쳐 험하게 살아온 만큼 칭송과 아울러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한다. 유대인들에 대한 칭송과 비난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유대인들의 삶이 고달팠다는 뜻이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 거칠면 거칠수록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크게 받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믿음과 신념이 강했고, 확신과 희망이 강했으며, 싸움닭처럼 거칠게 살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명한 인사들이 유대인들의 생존을 불가사의한 일로, 기적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모든 것이 죽지만, 유대인은 죽지 않고, 모든 세력이 사라지지만 유대인은 살아남아있다. 무엇이 유대인의 불멸성의 비밀인가?”라고 피력하였고, 성공회 감독이자 시인인 토마스 뉴턴(Thomas Newton)은 “지상의 그 어떤 나라도 보존되지 못했는데,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고서 무엇이 유대인들을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으며, 수학자 파스칼은 “유대민족은 고대로부터 탁월성이 유일했던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제왕들이 수백여 차례나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있어서만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독보적이다.”고 하였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유대인은 영원성의 상징이다... 유대인은 예언의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보존하고 그것을 인류에게 전달한 민

족이다. 이 같은 민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유대인은 영원하다. 유대인은 영원성의 구현이다.”고 피력하였다.

다른 한편,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다. 70억 인구가운데 10억이 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고,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히틀러의 유대인학살이 신화라고 주장하며, 지난 10년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에서 최소 6만 건 이상, 매일 평균 17건의 반유대주의 행위들이 있었다. 19개국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44퍼센트가 유대인들은 거주하고 있는 나라보다 이스라엘에 더 충성한다; 38퍼센트가 유대인들은 비즈니스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29퍼센트가 유대인들은 자기들 이외에 일에는 관심도 없다; 15퍼센트가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전쟁들에 책임이 있다; 28퍼센트가 유대인들은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38퍼센트가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지나치게 떠들어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바가 있다. 역사가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이유를 여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그들의 경제력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들이 선민이라며 오만을 떠나는 것이며, 셋째는 지상 모든 문제들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 희생양으로 삼기에 유대인들이 제격이라는 것이고, 넷째는 예수님 곧 신을 죽인 자들이란 것이며, 다섯째는 우리와는 많이 다르고, 마지막 여섯째로는 유대인들이 열등한 민족이라서 증오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미디어를 장악하고 조작한다든지, 고리대금업자들이라든지, 그리스도인 아이들을 유괴 살인하여 그 피를 그들의 종교의식에 쓴다든지, 우물에 독약을 푼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난무하였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자본주의자들이라고 욕하고, 자본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창시했다고 비난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비난한다. 그밖에도 전쟁도발자, 겁쟁이, 인종주의자, 세계주의자, 줏대가 없는 자, 완고한자 등등 많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를 세계를

고치는 자, 열방의 빛,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뜻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폴 존슨(Paul Johnson)은 “역사에는 목적이 있고 인류는 운명을 타고난다고 그 어떤 민족도 일찍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확고하게 주장한바가 없다. 유대인들은 민족형성 초기부터 그들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탐지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사회가 일종의 조종사가 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고 믿었다.”라고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에서 기술하였다. 마이클 레이트맨(Michael Laitman) 같은 유대인 학자는 유대인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할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다.

2천 년 전 예수님도 일부 유대인들로부터 중상모략과 비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중국에는 하늘보좌에 앉은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영웅적 이야기는 삶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희망’ 자체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대에 많은 비난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렬하게 순교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1만여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동일한 이유로 순교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물리적 탄압이나 위해는 아닐지라도, 인격살인에 가까운 심한 모욕과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수천 년에 걸쳐 이어오면서 칭송과 아울러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픈 만큼, 생존을 위한 투쟁이 거칠면 거칠 만큼, 믿음과 신념이 강하면 강한 만큼, 확신과 희망이 강하면 강한 만큼, 싸움답처럼 거칠게 살면 산만큼 칭송이든 비난이든 그 수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삶에 믿음도 신념도 확신도 희망도 없다면, 비난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더더욱 칭송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그날을 희망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힘겨운 삶이든, 비난이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한다.

45. 보이는 신(출 32:1-35)



아론과 금송아지 우상 제단(프레스코)

(주후 245년경, 두라 유로포스 회당의 벽화, 다마스쿠스 국립박물관) 로 진행하였는데, 실제처럼 보이게 꾸민 연출된 프로그램(fake documentary)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사이 에 혹은 가족 간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이 불륜이고, 배우자나 가족을 배신하는 불륜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부의 연을 맺은 민족이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서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신, 곧 이집트의 아피스(Apis) 신을 본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광란의 축제를 여는 매우 불행한 일을 저질렀다. 이에 모세와 하나님은 그 분노를 가누기 힘들어 했고, 급기야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두 돌비를 그들을 향해서 던졌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릴 생각까지 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답답한 일인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어쩌면 가장

부부 사이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CJtvN 채널에서 방영한 '스캔들'이란 프로그램이 있었다. 영화배우 독고영재가 현장르포 형식으

큰 시험거리일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점 때문에 늘 보이는 신인 우상에 유혹을 받았다. 특히 여신상에 유혹을 받았다. 현대인들도 그 점 때문에 늘 보이는 신인 우상에 유혹을 받는다. 재물의 신, 명예의 신, 권세의 신, 특히 불륜의 신의 유혹을 받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 듣는 하나님이다. 타 문화권의 종교들에는 신화도 있고, 여신도 있고, 우상이나 형상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엮드려 절하고, 제물도 바칠 수 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 하나님은 모습이 없다. 보이지도 않는다. 볼 수도 없다. 이런 점이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타 종교들과 달리 보고 만져 볼 수 있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마음의 귀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장 1-2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말씀의 기초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 십계명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무나 돌로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금과 은

을 입힌 송아지와 같은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도하고 빌기도 한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이스라엘 초복단 '단'(Tel Dan)에 세워졌던 성소 유적
 분열왕국 이전에는 단 지파가 이곳에 주전 1340년경 조각우상을 세워
 섬겼고(사 18:30),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호보암이 주전 931년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웠다(왕상 12:28). 이로써 남왕국에서는 야훼의
 보좌인 벵게가, 북왕국에서는 야훼가 서계신 금송아지가 야훼
 임재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아람이 주전 870년경 제단을 확장하였고,
 주전 722년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숭배가 지속되었다.
 스틸 폰시된 제단과 스틸 잔축 계단이 아람 때에 확장된 것이고,
 스틸 제단 안쪽 돌바닥이 르호보암 시대의 금송아지 제단이다. 입구에
 헬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돌담과 돌로 쌓고 미장한 돌통이 보인다.

예나 지금
 이나 사람들
 은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
 나님의 음성
 에 시간과 정
 성을 기울이
 지 않는다. 눈
 으로 보는 것
 에 훨씬 많은
 유혹을 받는
 다. 평소에 하
 나님과 헛라
 인이 설치되
 어 있어서 통
 화훈련이 되
 지 못한 사람,

또 평소 하나님과 접촉을 시도하지 않던 사람은 난관에 부딪치
 게 되면 어둡고 암담한 현실만이 짙더미처럼 부각되어서 해결
 의 의지를 상실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
 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의혹과 회의에 빠진 자들이 바로 출
 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들에게서 나타
 난 문제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여러 경
 로들을 통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
 지 재앙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았고, 갈라진 홍
 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며,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

기로 식물을 삼고 있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그들이 한 순간의 불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렵고 암담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김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에 자신의 운명을 내맡기려드는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들은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요구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향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1절)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여태껏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우상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을 인정치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구원할 참 신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우매한 백성들이었다. 더욱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향해서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고 외친 것은 우매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고 듣는 것을 자기 신으로 삼아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가?

셋째,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투자한다. 보이는 신, 보이는 세계, 보이는 육체에 투자한다.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들이 차고 있던 “금 고리를 빼어”(3절) 가져왔다. 그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보이는 신, 우상을 위해 투자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는가? 그러나 플라톤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후 4:18)고 했다. 야고보는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약 4:14)고 했다.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

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 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넷째,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6절)고 했다. 이것은 근동과 그리스 로마지방의 여신을 모신 신전들에서 성행했던 광란의 예배를 반영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예배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음란한 예배였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야할 경건한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행태였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감각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 같다. 웃기고 즐겁고 재미있는 예배를 원하는 것 같다. 교회마다 보여주는 영상예배에 주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신자들이 말씀예배의 특성을 가진 개신교회들을 떠나서 보는 예배의 특성을 가진 가톨릭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하기보다는 먹고 마시며 뛰고 노는 놀이예배를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참된 것에 마음을 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자. 그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46. 하나님의 동행거부와 모세의 간구(출 33:1-23)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대가는 동족이 동족을 쳐서 죽이는 비극(32:25-35)이었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줄곧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낳게 되었다. 부인의 외도에 대해서 남편이 이혼절차를 밟기 위해 별거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다. 이 말은 목을 뺏뺏하게 치켜들고 있는 백성이란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거나 굽힐 줄 모르는 완고한 고집과 꺾어진 거만을 지칭한 말이다.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실 경우 필경은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결별을 선언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는 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지 않았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이 사실, 곧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동행하지 않으심’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을 모른 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깨닫지를 못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 바로 이 무지에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의 뜻 속에는 이런 무지가 포함되어 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동행하심을 의심했고, 감사할 줄 몰랐

고, 섬길 줄 몰랐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모른 채,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이집트를 탈출한 줄로 착각하고,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친 줄로 오해하고, 마치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의 거류민들을 몰아낼 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의심했으며, 감사치도 않았고, 오만했으며, 우상, 곧 죽은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인간은 참으로 무지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긴다. 그 신들은 그들에게 교만을 부추기고, 그들의 능력을 자랑하게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드는 부메랑들이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심각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 곧 성막건축이 이뤄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설치한 장막을 떠나지 않았고, 모세는 간곡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 “보시옵소서.”로 시작된 모세의 기도는 앞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1,2절)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동행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15,16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신다.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다.

모세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의 무능함을 뼈 속 깊이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주심을 받고서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감각이 둔해서 느끼지 못하고, 머리가 둔해서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일상에서 밥 먹듯이 한다. 한 가지는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에 하는 ‘자기 자랑’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있다고 뽐내고 자랑하고 남을



모세가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등(계시)을 보는 장면
(그림: Phillip Prescott Parham)

무시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 하는 '원망과 불평'이다. '누가 무능해서,'

'누가 무식해서,' '누구 때문에'라고 모든 일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에 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면 아무데도 가지 않겠노라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무능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기어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끌어내고 도우미로 아론을 붙이시도록 끈질기게 매달린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거부선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렸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동행을 간구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배웠으면 한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임을 깨닫고 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막을 쳤다.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를 친구처럼 만나주셨으며,

여호수아도 장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겸손함과 불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마음까지 바꾸게 하였고, 분노를 삭이게까지 하였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하셨고 동행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시며,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만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구하였다. 13절에서 모세는 “내가



모세가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는 장면
(출저: The School of the Transfer of Energy)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출 33:21-23).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이 기도예 하나님은 17절에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겸손의 기도를 하시는 것은 응답하시는 것

을 볼 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겸손함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간구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간구하였다. 이제까지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18절에서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무슨 얼굴이 있거나 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일할 용기와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시의 형태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동행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할 때, 주의 길을 간절하게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47. 야훼 하나님의 성품(출 34:1-35)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거머드는 장면
 <렘브란트, 1659년, 세베를린 국립미술관 소장>
 개신교 화가였던 렘브란트조차 머리카락들
 말아 모세의 머리에 빨이난 것처럼 묘사하였다.

준분이 지난 직후 찾아온 보름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음 보름에 시내산 기슭에 도착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새겨주신 두 돌비를 선물로 받는다. 그러나 그 두 돌비는 백성들이 받아보기도 전에 금송아지 사건에 분노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출애굽기 34장은 두 번째 십계명 돌비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회복의 증거로 새로운 돌비 두 개를 모세에게 깎아 만들게 하셨다(1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혼자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다(2-4절).

첫 번째 언약체결과 두 번째 언약갱신에서 다른 점은 두개의 돌비이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시고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인데, 두 번째 것은 모세가 깎아 만든 두 개의 돌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이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세 가지이다. 첫째, 언약을 새겨 둘 마음의 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새 언약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 것과는 달리 두 번째 돌비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신적 권위와 위엄이 감소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경고이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두고두고 기억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다.



모세와 아론(Marc Chagall, 1966년경 프랑스)

5-9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당신의 자비로운 성품을 소개하고 계신다(5-7절). 모세는 그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한다(8-9절).

여기서 반포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원래 4개의 히브리어 자음(YHWH)으로 '야훼'라고 읽혔다고 한다. 주전 6세기 경 바빌론 유배가 끝난 뒤, 특히

주전 3세기부터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첫째, 유대교는 그리스 로마세계에서 개종자들을 얻어 보편종교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이란 뜻을 가진 일반명사 '엘로힘'을 '야훼' 대신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하여 발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회당 예배에서는 ‘야훼’를 ‘나의 주’란 뜻의 ‘아도나이’로 발음했는데, 구약성서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 역은 이 단어를 ‘주’란 뜻의 ‘키리오스’로 번역했다. 또 주후 6-10세기경에 히브리어성서 본문의 간행작업을 벌인 마소라 학자들은 ‘야훼’를 뜻하는 히브리어 자음 4개(YHWH)에 히브리어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의 모음부호들을 붙여서 사용했다. 이 때문에 ‘여호와’(Jehovah, YeHoWaH)라는 인위적인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의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맛소라 학파의 전통을 따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19-20세기 성서학자들은 다시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야훼’는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한다’(Yahweh-Asher-Yahweh)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 ‘야훼’ 하나님의 성품이 6-7절에서 밝혀져 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렘 31:29-30, 겔 18장과 비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십계명 돌판을 손에 든 모세
후세페 데 레베라, 1591-1652, 스페인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형벌을 받아야 할 자는 결단코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악을 자녀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었다. 9절,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뻗뻗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사랑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다. 그 내용이 10-28절이다. 여기서 언급된 갱신언약의 내용은 이미 주어진 것과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가나안 정복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이적으로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다(10절). 둘째, 가나안 정착 후에 우상문화에 젖은 원주민들과는 그 어떤 통혼이나 통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11-17절). 셋째, 23장에 언급된 3대 절기에 관한 언급으로써 이방의 타락한 제사법을 버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18-26절). 넷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두 돌비에 기록하시는 장면(27-28절)이다. 여기서 언급된 언약은 가나안 정착을 염두에 둔 것들이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계명들이 다시 언급된 이유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상숭배로 오염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실수와 허물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정에 따라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비를 가지고 모세는 하산한다. 그 내용이 29-35절이다. 여기서 하산하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고(29-30절), 그것을 알아챈 모세는 그 두려움을 누그러뜨린 후 백성들에게 언약을 재차 선포한다(31-32절). 그리고 그 후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 기도할 때를 빼고는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에 항상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후담이 기록되어 있다(33-35절). 그러나 이 같은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언제쯤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가 결코 모세의 인격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환희가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었다는 점에서 나타난 광채의 차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34장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야훼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아뢴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신다.

48. 성막건축을 위한 백성의 헌물(출 35:1-35)



출애굽기 35장은 모세가 언약백성에게 야훼의 계명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1,4절). 모세가 첫 번째 전달한 내용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이다. 출애굽기 35장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계명이 서두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식일 준수와 성막건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암시가 될 것 같다.

REAPING **קוצר**
 안식일 법 39개 범주(Melachot) 가운데 세 번째인 '추수하기' 혹은 '자르기'(kotza'ir) 금지법

2-3절에서 “옛새 동안은 일하고 제철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고 하셨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하셨다. 안식일 계명이 굉장히 엄격하고 준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식일 계명은 총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 뿐 아니라 이들 613개의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들 계명들을 범할 수 없도록 하려고, 수많은 율타리(게자이로트) 법들을 만들어 겹겹이 둘러쳐놓고 있다.

유대교 랍비들은 안식일 계명을 둘러칠 율타리 법들을 39가지

성막건축공정에서 만들어냈다. 출애굽기 35장이 안식일 준수와 성막건축에 어떤 땀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범주를 ‘창조행위’(Melacha)로 보고 있고, 출애굽기 31-35장에 언급된 성막(Mishkan)건축공정에서 창조행위의 39가지 범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성막건축에 필요한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의 범주로 간주한다. 이들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꽃꺾기, 과일따기, 나물채취, 잔디깎기, 화초에 물주기, 밭갈기, 씨뿌리기, 과일, 꽃, 나뭇가지 등을 모우기, 타작하기, 알곡고르기, 과일주스내기, 골라내기, 빵기, 찢기, 체질, 까불리기, 반죽, 불켜기, 끄기, 손발톱깎기, 털자르기, 털뽑기, 빗질, 빨래, 샤워, 화장, 선댄, 립스틱바르기, 바느질, 접착제나 압침사용, 종이우유 팩열기, 절이기, 소금뿌리기, 알파벳 두 자 이상 쓰기, 선긋기,

절취선이 있는 티슈박스개 붓과 두루마리휴지떼어쓰기, 쇼핑,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땅에다 짓거나 수리 및 부수기, 불피우기, 불끄기, 자동차의 시동걸기, 구두나 운동화에 새로 끈을 끼우기, 악기연주, 물건 옮기기, 운반하기, 던지기, 밀기 등이다.

성서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위급상황에서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 법보다 우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UNTYING A KNOT

מתיר

안식일 법 39개 범주(Melachot) 가운데 스물두 번째인 '매듭풀기'(Mativ) 금지법

안식일일지라도 운전도 할 수 있고, 전화도 쓸 수 있고, 그밖에 행동들도 필요에 따라서 허용되고 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윤리학에서는 차등적 절대주의라고 부른다. 차등적 절대주의란 생명을 구하는 자비로운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기 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겼더라도 그 죄가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모세가 두 번째로 언약백성에게 야훼의 계명을 전달한 내용은 성막건축에 필요한 물품수집에 관한 것이다(4절).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막건축에 필요한 물품의 기증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된다는 점이다(5절).

둘째, 성막건축에 필요한 물품의 기증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바치는 것이라는 점이다(5절).

셋째, 성막건축에 필요한 물품에는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베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다(5-9절).

넷째, 성막건축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일이라는 점이다(10절).

다섯째,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만들어야 할 물품에는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 그 갈고리, 그 널판, 그 띠, 그 기둥, 그 받침, 증거궤와 그 채,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 상과 그 채, 그 모든 기구, 진설병,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 그 등잔, 등유, 분향단과 그 채, 관유, 분향할 향품, 성막문의 장, 번제단과 그 놋 그물, 그 채, 그 모든 기구, 물두명과 그 받침, 뜰의 포장과 그 기둥, 그 받침, 뜰문의 장, 장막 말뚝, 뜰의 포장 말뚝, 그 줄,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들이다(11-19절).

여섯째, 모세의 설명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각자의 천막으로



TRANSFERRING

הוצאה

안식일 법 39개 범주(Melachot) 가운데
서른아홉 번째인 '운반하기'(Hotza'ah) 금지법

홀어졌다가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의 남녀들이 성막건축에 필요한 물품들, 곧 가슴 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등의 여러 가지 금품,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베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은, 놋, 조각목 등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다(20-24절). 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

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을 뽑아서 가져왔고(25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뽑아서 가져왔으며(26절), 족장들은 호마노와 보석과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고 했다(27-28절).

일곱째,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성막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즐거이 드렸다고 했다(29절).

모세가 세 번째로 언약백성에게 야훼의 계명을 전달한 내용은 성막건축에 필요한 책임자들에 관한 것이다(30-35절).

하나님은 성막건축을 위해서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덧입혀 각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30-31절). 그가 해야 할 일들은 금과 은과 놋과 보석과 나무를 다루는 장인의 일이었다(32-33절). 또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시고 가르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주시고 조각과 디자인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로 수놓는 일과 베 짜는 일들을 다루는 장인의 일이었다

(34-35절).

말씀을 정리해보자. 첫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할 시간들을 흠치지 말자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 드려야할 것은 그것이 시간이든 헌물이든 헌금이든 봉사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정성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본문은 슬기롭다 지혜롭다고 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이든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성령께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자는 것이다. 무능과 우둔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가득 채워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자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만 하신다면, 혼돈이 질서가 될 수 있고, 공허가 채움이 될 수 있고, 흑암이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9. 성막건축(출 36:1-38)



케루빔 제작 공정

출애굽기 36장은 기술자들인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막건축의 일을 하게 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

을 건축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다.

1-3절은 성막건축에 합당한 일꾼이 될 몇 가지 자격이 언급되어 있다.

첫째, 성막건축에 합당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된 자들이었다.

둘째, 성막건축에 합당한 일꾼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어떤 일들을 해내는데 필요한 지적 기능적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막건축에 종사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마음에 덧입은 자들이었다.

셋째, 성막건축에 합당한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자들이었다. 마음은 있지만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거나 능력은 있으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다.

넷째, 성막건축에 합당한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

다섯째, 성막건축에 합당한 일꾼은 근면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예물을 받기 시작했고, 받은 예물로 필요한 물품

을 제작했다.

여섯째, 성막건축에 합당한 일군은 정직한 자들이었다. 예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 쓰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예물을 빼돌리거나 속이거나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았다.

4-7절은 성막에 소용될 각종 물품들이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오는 예물로 넘쳐났고, 헌납을 중단시켜야 했던 은혜로운 장면을 몇 가지 묘사하고 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아침부터 가져왔다. 백성들은 물품을 헌납하는 일에 꾸물대거나 느장을 피지 않았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억지로 헌납하거나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순수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회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헌물을 가져왔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헌물을 한 번 드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만 가져오라는 모세의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드렸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건축에 쓰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게 드렸다.

8-38절은 26장에 언급된 내용의 반복이다. 성막의 골격과 형



메노라 제작 공정

태를 이루는 기물들의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26장에 실린 하나님의 지시를 36장에서 빈틈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준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막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성막의 천정에 늘

어뜨릴 그룹 천사들을 수놓은 열 폭 양장과 그 위를 덮는 염소 털로 된 열한 폭의 막과 또 그 위를 덮는 수양가죽의 덮개와 해달가죽의 옷덮개를 만들었고, 벽을 형성하는 48개의 널판들과 그것들의 은 받침과 널판들을 고정시킬 널판 띠들을 제작하였고, 성소와 지성소의 칸막이 휘장들과 그것들을 걸어 매달 기둥들의 제작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나갔다. 이 모든 제작공정은 백성들의 순종과 겸손과 정성과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이뤄졌다. 자기자랑과 교만과 불평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언급이 일체 없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으며,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온 이집트를 그리워했던 그들이었는가? 지금의 이 상황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이 더 좋았노라고 불평하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서만큼은 혼연일체가 되어 불평한마디 없이 자원해서 참여했던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성막건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성들 각자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간직했던 금은붙이들과 각종 보석들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었고, 시간을 쪼개고 가늘게 끈 베실과 청색, 홍색, 자색실로 천을 짜고 수를 놓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했다. 조각목 목재를 헌납하고, 귀한 해달가죽까지 내놓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불평이 없었고, 모두가 자원해서 넘치도록 헌납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막건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건축되었다는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란 뜻이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리 사랑으로 항상 먼저 인간을 찾으신다. 인간을 위해서 대안을 갖고 찾아오시고 손수 문제해결의 길을 마련하신다.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겠다는 판단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지시한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할 때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대로 만들었다. 비록 그것이 19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거하실만한 합당한 공간이었다. 예배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경의 지시대로 하는 교회가 참 교회이고, 그대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이다. 인간이 좋아하는 방법과 인간의 생각에 좋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예배는 인간의 감각과 즐거움을 위한 예배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양만 제작 공정

둘째, 성막건축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사역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은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존해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총명하고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의 것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인간의 노력과 자원하는 마음이 참가돼서 이뤄져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공동사역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하고 복을 받는다.

셋째,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원하는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헌신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전적으로 의존해서 시행해야 성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막건축의 핵심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준행되고 이뤄졌다는 것이다. 성막건축은 이스라엘건축과 맥을 같이 하는데, 특히 이스라엘건축은 하나님의 말씀 곧 토라계명들을 그대로 준행해야 성취된다는 함의가 담겨있다. 이는 또 우리 자신의 건축, 희망의 성취, 꿈의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교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집을 잘 짓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50. 성막 기물 제작(37:1-29)



법궤와 속죄소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출애굽기 37장은 성막기물 제작에 관한 말씀이다. 성소에 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 두 개의 방이 있었다. 그 첫 번째 방이 성소인데, 그곳 휘장 앞 중앙에 놓인 분향단과 동쪽 입구에서 바라본 오른쪽에 진설병이라 불리는 진설병상 그리고 왼쪽에 34킬로그램의 순금을 두들겨서 만든 등잔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휘장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 부르는데, 그곳에 법궤가 놓여 있었다.

이들 성막기물들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제 각각의 기물제작에 대해서 알

아보자.

법궤는 가로 112.5센티미터, 세로와 높이 각각 67.5센티미터의 직사각형 나무상자이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다. 네 끝 모퉁이에 금고리를 만들어 부착하여 금으로 짚막대기를 꿰어 운반하기 쉽게 하였다.

상자 뚜껑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 불리며 정금을 쳐서 만든 케루빌 둘을 양 끝에 세웠으며,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9절) 향하도록 했다.

이 궤를 흔히 법궤, 언약궤, 증거궤 등으로 부른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곧 언약의 돌비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 속에 십계명이 적힌 돌판 두 개만 있었다. 나중에 하늘의 참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와 그분의 부활과 영원한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함께 담겼다.

바벨론 침략 때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된 이후로는 광야에서 제작된 법궤의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이후 유대인들은 회당을 성막구조와 비슷하게 건축하였고, 두루마리 성서를 담는 법궤를 만들어 휘장 뒤편에 놓았다. 그리고 휘장 앞에는 ‘메노라’라 불리는 일곱 줄기 등잔대와 ‘베마’라 불리는 단상과 설교상을 배치했다. 이때로부터 법궤는 율법, 곧 토라상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진설병상은 법궤의 절반 정도 크기로써 가로 90센티미터, 세



로 45센티미터, 높이 67.5센티미터의 상이다. 법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다. 또 진설병상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다. 법궤와 마찬가지로 네 끝모퉁이에 금고리를 만들어 부착하였고, 금으로 싹 막대기를 궤에 운반하기 쉽게 하였다. 진설병상에 놓

진설병상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을 대접, 손가락, 붓는 병, 잔도 정금으로 만들었다.

상 위에는 임재의 빵이 진설되어 있었다. 이 특별한 빵은 안식일마다 향기 나는 '기념 예물'로써 유향과 함께 상위에 두 줄로 여섯 개씩 모두 열두 개가 진열되었다. 매주 안식일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고, 지난주의 빵은 제사장들이 성막안의 제한된 장소에서 먹었다.

진설병, 곧 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예표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설병상은 신약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예표한다. 성소에 진설병상이 항상 놓여있었듯이 신약교회에도 주의 만찬상이 놓여있어야 한다. 진설병상에 진설병이 항상 놓여 있었고, 그 진설병을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먹었듯이, 주일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상에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잔이 놓여야 하고 먹고 마셔야 한다.

다른 한편 이 진설병상은 신약교회에서 말씀을 예표한다. 바벨론 침략 때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된 이후로 유대인들은 회당을 성막구조와 비슷하게 짓고, 두루마리 성서를 담은 법궤를 휘장 뒤편에, '메노라'라 불리는 일곱 줄기 등잔대와 '베마'라 불리는 단상과 설교상을 휘장 앞에 배치했다. 매안식일 기도회 때마다 이 설교상에서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에서도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등잔대는 활짝 핀 아몬드나무 줄기에 좌우로 세 개의 가지들이 뻗어 있는 일곱 줄기 등잔대를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당시에 이 등잔대의 일곱 개 가지 꼭대기들에는 일곱 개의 등잔을 놓게 제작되었다. 그러니까 촛대라 하지 않고 등잔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등잔대, 곧 메노라는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뿔 그릇과 함께 정금 한 달란트, 곧 순금 34킬로그램을 두들겨서 만들었다.



이스라엘 국회의사당(knesset) 앞뜰에 세워진 메노라 1956년 영국의회는 벤노 엘칸(Benno Elkan)이 제작한 이 브론즈 등잔대를 이스라엘 국가에 기증하였다. 이 등대에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에 있었던 29개의 역사상화들이 새겨져 있고, 설명문 속에는 “빛의 상징,” “희망의 상징,”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라는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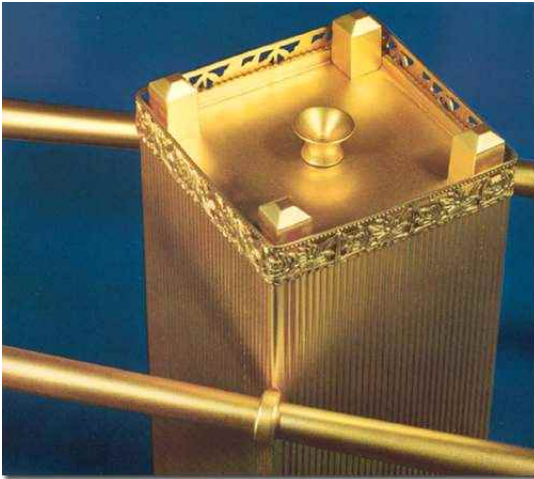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출 40:24). 일곱 개의 등잔에서 나오는 불빛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을 말해주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시 121:4)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깨어계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등잔대의 모양은 꼭 대기에 놓인 일곱 개의 등잔과 줄기와 가지에 22송이의 아몬드 꽃이 핀 아몬드나무 형상이다(출 25:33-34). 아몬드나무는 생명을

약속하며,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일깨워 주었던 나무이다(렘 1:11-12).

십계명의 제2계명 때문에 여타의 다른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등잔대는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의 중요한 국가적 상징물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 등잔대의 불꽃을 “열방의 빛이”(사 42:6) 되라는 민족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곱 줄기 등잔대는 “빛의 상징,” “희망의 상징,”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 되고 있다.

분향단은 가로, 세로가 각각 45센티미터, 높이가 90센티미터의 조각목 상자에 정금을 싸서 만들었다. 네 모퉁이에 뿔의 형태를 만들고 모두를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다. 법궤나 진



분향단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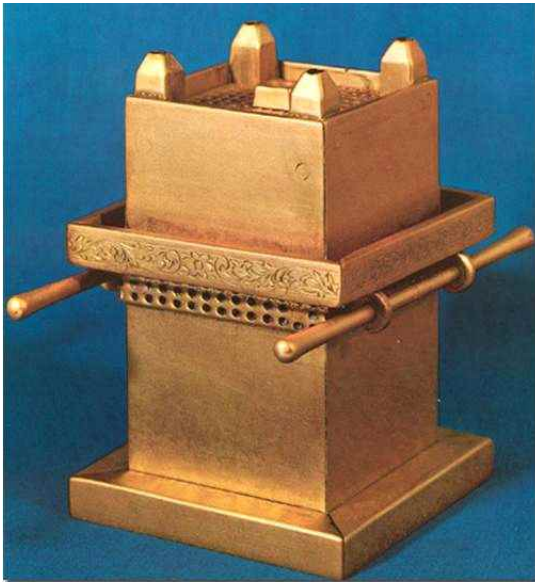
설명상과 마찬가지로 운반이 용이하도록 금 고리와 금을 짠 운반 채를 만들었고, 운반 채를 고리에 끼어놓은 채 성소휘장 앞 중앙에 놓았다. 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 사용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한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밝히

고 있다(시 141:2, 계 8:3,4). 출애굽기 30장 7-8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분향단의 향불이 꺼져서도 안 되고, 중단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듯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살전 5:17),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중단해서도 안 된다.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한다. 호흡하지 못하면 생명이 끊어지듯이 기도하지 못하면 영혼이 죽는다. 반대로 날마다 영혼의 창을 열어놓고 신령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의 영혼은 활력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사 40:31).

성막기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또 성막기물들은 예배를 상징한다. 말씀과 기도와 주의 만찬과 '세상의 빛이 되라'는 소명과 사명을 의미한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체험하며 하나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자.

51. 성막 뜰 기구 제작(출 38:1-31)



번제단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출애굽기 38장 1-7절은 번제단 제작에 관한 내용이다. 이 단은 제물을 태워 드리는 단이기 때문에 '번제단' 혹은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단'이라 부른다. 그러나 전체를 놋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조각목으로 사방 5규빗(2.25m), 높이 3규빗(1.35m) 크기로 제작한 다음 놋으로 짠 것이다. 넓이는 1.5-1.6평 정도이다. 재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읍기는 그릇, 그물, 고리와 같은 부속기구들도 모두 놋으로 만들었다.

놋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한다. 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예물과 감사예물을 바치는 곳이다. 버림받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질 때 비로소 속죄함을 받고 감사할 이유를 갖게 된다. 조각목이 놋으로 감싸지듯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는 뿔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 한다. 고대근동에서는 뿔을 힘과 권세의 상

징으로 여겼다. 레위기 4장 25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물을 번제나 화제로 바치기 전에 그 제물의 피를 제단 모퉁이 뿔에 발랐던 것이다(레 4:18). 이 의식은 단을 깨끗케 하는 예식이었다. 레위기 8장 15절을 보면, “모세는 그 수소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고 했고,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고 했다.

희생제사에서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갖는 속죄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제단 뿔을 붙잡고 탄원을 하면 억울한 누명이나 실수로 인한 범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면을 받을 수도 있었다(왕상 1:51).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새찬송가 268장의 가사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이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을 믿자.

출애굽기 38장 8절은 몰두멍 제작에 관한 내용이다. 이 몰두



번제단 보속 기구들

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청동거울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필수품인 거울을 몰두멍 제작을 위해서 드렸다. 자신

이 쓰고 남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아끼는 물건을 드렸다. 따라서 여인들의 미용에 쓰이던 거울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성결을 위해서 쓰이게 되었다.

물두멍은 성소 뜰, 곧 성소 바깥마당에 놓였다. 정확하게는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놓였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이곳에서 수족을 씻어야 했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하나님 앞에 사를 때에도 수족을 씻어야 했다.

성막에 쓰인 놋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리고 물은 침례를 상징한다. 따라서 놋으로 만든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과 구원받은 것을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공증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또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물두멍의 물로 씻어 죽음을 피하라(출 30:20)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출애굽기 38장 9-20절은 성막 뜰에 친 포장 제작에 관련된 내용이다. 성막 뜰의 크기는 남편과 북편이 각각 100규빗(45m), 동편과 서편이 각각 50규빗(22.5m)으로써 306평 정도이다. 울타리는 5규빗(2.25m) 높이로 세마포로 쳤다. 기둥은 5규빗(2.25m)에 하나씩 세웠고, 각 기둥은 놋받침을 만들어 받쳤다. 그러니까 성막 뜰의 경계를 표시할 울타리를 치는데 2.25미터 기둥 60개, 놋받침 60개, 2.25미터 폭 세마포가 126미터 필요했다. 또 각각의 기둥에는 은갈고리와 은가름대와 놋말뚝들을 필요로 했다.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장소이다. 속죄를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회개와 씻음이 이뤄지던 곳이다.

성막문은 동쪽에 하나뿐이었다. 크기는 20규빗(9m)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짠 포장으로 만들어졌다. 문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하나뿐임

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성막 밖의 인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거룩한 처소인 성막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동편 문 하나뿐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31절은 성막제작에 쓴 재료의 물목과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다. 24절을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 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금 한 달란트가 34킬로

놋 대야(출 30:17-21, 38:8)
제사장들이 의식을 치르기 전에 수족을 씻을 물을 담아 두는 그릇이었다.
제사장의 뜰 곧 성소와 놋 제단 사이에 놓였다.

그램이다. 29달란트이면 986킬로그램에 해당된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이다. 730세겔이면 8.27킬로그램에 해당된다. 성막에 들어간 금의 총량은 994.27킬로그램, 곧 265,138.7돈이 된다. 금 한 돈에 18만2천 원가량으로 보면, 482억 5천5백만 원에 해당된다. 성막에 들어간 은, 놋, 가죽, 천 가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산출될 것이다. 19평 크기가 채 못 되는 공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성막을 제조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귀한 정성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모실 성막을 제조했

능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돈의 액수를 보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정성과 희생을 보았으면 한다. 성막에 쓰인 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뼈대를 구성하게 된 아름다운 결과에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되어진다. 금이란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본래 금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금으로 도금된, 곧 금으로 덧입은 존귀한 존재들이 되지 않았는가? 따라서 성막에 쓰인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을 모신 곳의 신성함과 소중한 것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의 성화와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은의 양이 100달란트와 1775세겔(20.12킬로그램), 곧 3,420.12킬로그램이었고, 또 놋이 70달란트와 2400세겔(27.2킬로그램), 곧 2,407.2킬로그램이나 되었다. 금은놋의 양을 다 합할 경우 귀금속의 무게가 무려 6.8톤이나 된다. 어마어마한 귀금속이 성막제작에 쓰였던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성과 희생과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을 모신 곳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의 성화와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다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보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입고 침례와 세례를 받아 구원에 대한 공증을 받은 성도들을 금은놋보다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영화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도록 하자.

52. 하나님 이 명하신 대로(출 39:1-43)



실 뽑기, 염색하기 및 베짜기 공정

출애굽기 39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에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쓰이고 있다. 32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

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여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늦 제단과 그 늦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막제작에서 알 수 있는 핵심사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뤄지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교의 핵심사상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이들 성막과 기물제작에 관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그 계명이 613개에 이른다고 믿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들 613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이들 613개의 계명들을 침범할 수 없도록 수많은 울타리 법들(Gezeiroth)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유대교인들에게 율법과 규례는 안식의 상징인 이 세상의 가나안땅과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해하는 이유는 참 안식의 상징은 저 하늘 가나안땅이고, 인류의 영생이 걸린 문제는 보이는데 있거나 일시적인데 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영원한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규례들을 빈틈없이 지켜내려는 유대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서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가장한 노력을 높이 사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의 문제점은 공리주의에 입각한 성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고 무시하는데 있다. 왜곡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유대교의 가르침과 구별하지 못하는데서 나타난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서로 다른 이유는 구약성서에 대한



털실로 다윗의 별들을 수 놓은 천

이해의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신약성서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구약성서

를 신약성서 저자들이 이해했듯이 이해하지 않고, 신약성서 저자들이 해석했듯이 해석하지 않고, 유대교의 랍비들이 하듯이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때로는 구약의 유대교인지, 신약의 그리스도교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무시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성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데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신약성서의 가르침대로 다 행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려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에로 돌아가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한 후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때 축복을 받게 된다.

출애굽기 39장에서는 성막과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성업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완성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었다. 완성된 성막의 기물들은 다음과 같은 상

징들을 갖고 있다.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이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상징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

속죄소는 택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죄악된 요소와의 분리를 상징한다.

진설병은 구원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생명의 빵을 상징한다.

등잔대와 등잔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한다.

분향단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상징한다.



수를 놓아 만든 유대인의 기도보

번제단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회복을 상징한다.

관유는 하나님을 위한 성별을 상징한다.

물두멍은 영적인 정결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제작이 완료된 제사장들의 예복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상징한다. 제사장들의 예복이 상징하는 바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늘고 하얀 베실로 짠 흰 '반포속옷'은 그리스도의 성결과 성도들의 죄 씻음

을 상징한다.

두 번째로 에봇 안쪽에 받쳐 입는 ‘에봇 받침 겹옷’은 청색 옷으로써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상징한다.

세 번째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든 겹옷 ‘에봇’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네 번째로 에봇의 두 어깨띠(견대)에 매단 ‘호마노’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사가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두 어깨와 성도들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상징한다.

다섯 번째로 가슴에 매단 ‘판결 흉패’와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뫼미가 들어 있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하며, 둠뫼미는 ‘완전’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뫼미가 들어 있는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에게로 나아왔다.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 불렀다. 이 흉패는 택한 자기 백성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한다.

여섯 번째 대제사장의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허리띠’는 성결의 상징인 가는 베실로 만든다. 따라서 이 띠는 성결의 띠라 할 수 있고, 겸손과 사랑의 띠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과 관에 매다는 ‘성패’가 있다. 관은 성결을 상징하는 가는 베실로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성패를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 끈으로 매단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결의 능력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상징한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성도들에게 생명과 성결을 주신데서 비롯된 것이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예복이 상징하는바 대제사장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성결케 하는데서 비롯

되는 것이다.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성패가 말해주듯이, 자신의 성결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성결까지 두 어깨에 짊어진 하나님의 종이였다.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성결을 위해서 친히 두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자.

53. 성막봉헌식(출 40:1-38)



이스라엘의 진과 성막 제사의 묘사도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봉헌식에 관한 내용이다.

1-8절에서는 제작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이 설치되고 있고, 9-11절에서는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다. 12-16절에서는 제사장들을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봉헌식이 이뤄진 날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15일 부족한 만 일 년이 되는 성력으로 정월(니산월) 초하루였다.

그리고 17-33절에서는 성막건축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일곱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란 점을 강조한 말씀이자, 유대교적 관점에서 613개의 토라와 모든 계자이로트(Gezeiroth), 곧 모든 율법과 규례가 문자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을 강조한 말씀이다. 이 점에서 유대교인들은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의 모형과 그림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리스도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유대교인들에게 율법과 규례는 안식의 상징인 이 세상의 가나안땅과 민족의 생사가 결

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안식의 상징은 저 하늘 가나안땅이고, 인류의 영생이 걸린 문제는 보이는데 있거나 일시적인데 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영원한데 있다. 34-38절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일을 펼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광야생활 40년은 고난과 죽음의 숫자이다. 인생살이의 고달픔과 생로병사의 아픔을 나타낸 숫자이다. 인생을 아픔과 고통과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다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비록 우리의 삶이 험하고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분명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과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보호하신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성막 성구들 모습

하나님은 성막을 접수하시고, 그 안에 임재 하셨다. 그 증거가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에

는 여호와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38절)고 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성막건축이 완료되고, 출애굽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한 것과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어서 출애굽기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출애굽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방식에 있다.

첫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와 사자’(말르아크 예호와)로 임재하셨다.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와 사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3장 4절에서는 그냥 ‘여호와’라고만 바꿔 쓰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은 “여호와와 사자가 말씀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로써 우리는 ‘여호와와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등장한 ‘하나님의 사자’가 방향을 바꾸면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14:19-20).

둘째, 하나님은 이 ‘여호와와 사자’를 ‘이스라엘에 앞서 보내신 분’으로 설명하셨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앞서 보내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33장 2-3절에서는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실 분’으로 설명하셨다.

셋째, ‘여호와와 사자’의 임재는 출애굽기 33장 7-11절에서 ‘구름기둥’으로 상징되었다. 이 구름기둥을 ‘쉐키나’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 부른다. 33장 7-11절에서 회막문에 내려 선 구름기둥 쉐키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회막은 성막이 건축되기 이전에 임시로 세

은 성막이다. 성막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구름기둥 쉼기나가 성막을 뒤덮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35절). 따라서 구름기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 하여 계신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형태였던 것이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자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쉼기나의 인도를 철저히 따랐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36-37절).

출애굽기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부여하신 중요한 특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것의 상징적인 증거가 구름기둥의 쉼기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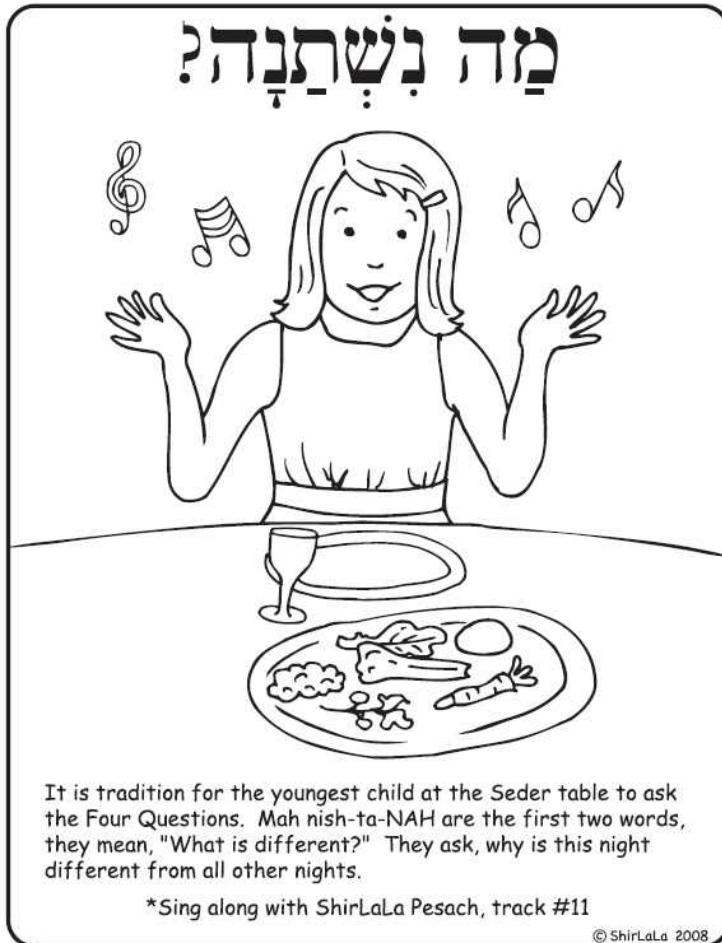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시 43:3; 139:10; 사 30:20-21; 58:11; 눅 1:79; 요 10:3).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세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체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 하시리로다.”고 하였다. 시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해마지 않는다.

광야시대에서의 성막제작과 봉헌 이야기는 일 년에 한 차례씩 모세오경을 완독하던 유대인들, 특히 바벨론유배에서 조상들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고토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방인들의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다. 이 바벨론(페르시아)탈출 세대가 고토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900여 년 전 이집트탈출 세대가 광야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가 나서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및 백성에게 성전재건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외치며 힘써 독려했다. 그로 인해서 비록 솔로몬성전의 영광에 훨씬 못 미쳤고 기간도 20년이나 걸렸지만, 그들은 성전을 완공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떠돌이와 노예들인 조상들이 극한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웅적 광야시대의 이야기는 수천 년에 걸쳐 제2, 제3의 떠돌이 광야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그 희망’(Ha-Tikvah) 자체였다.

[결표지 그림 설명]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18단계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 세 덩어리의 무교병, 네 잔의 포도주, 구운 계란, 양의 정강이 뼈, 소금물, 하로셋 잼, 쓴 나물, 채소, 손 씻을 물 및 예식서를 준비한다. 그림 상단의 큰 글씨(פסח, 페사흐)는 '유월'(逾越)이라고 쓴 것이고, 예식서에 쓰인 큰 글씨는 유월절식사(Pesach Seder) 때 "왜 오늘밤은 모든 다른 밤들과 다릅니까?"라고 아이들이 물어야하는 네 가지 물음의 첫 두 글자(מה נשתנה, Mah Nishtanah, "무엇이 다릅니까?")이다.